



애·향·문·집

고향의 노래




 천안시서북구문화원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 2017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

애·향·문·집

고향의 노래

 천안시서북구문화원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2017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에·향·문·집



© 천안시서북구문화원 /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2017

발행일 2018. 1.

발행인 김한국

발행처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기획 천안시서북구문화원

편집 이정우

인쇄 한솔에드텍

비매품

ISBN 979-11-89097-02-9 05090

*이 책은 「한국문화원연합회_2017년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2017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

애·향·문·집

고향의 노래



천안시서북구문화원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 인사말

‘향토문화의 푸른 뱃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천안시서북구문화원 원장 이 중 석

천안시서북구문화원 개원 55주년, 무엇보다 천안시 시 승격과 맥을 같이 하면서 적지 않은 연륜을 문화원 차원에서 기릴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 그래서 발상된 것이 『애향문집』의 간행이었습니다.

천안 문인들과 천안에 연고가 있던 작가들의 작품 중에서 천안을 노래한 작품을 모았습니다. 신작만으로 엮겠다는 욕심도 처음에는 가졌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음을 느끼면서 천안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재, 인물들을 소재로 노래한 시와 시조, 수필, 동화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근현대를 살아온 지역 출신 문인들이 노래한, 특히 문학성과 자료적 가치를 우선하였습니다. 물론 한정된 지면과 예산, 시간 등 제약 요소가 있었기에 모두를 수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습니

다. 미처 살피지 못했거나 소통이 안 돼 수록치 못한 작품들은 다음 기회에 엮을 예정입니다.

우리는 천안이 왜 ‘문화도시’로 자부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집이 발간되는 의의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백 년 전, 천 년 전에도 천안의 산천 속에서 감동하고 마음을 적셔왔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문인들 역시 문화도시 천안의 궁지에 닿고 그 자부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름의 감성을 이곳에서 다듬고 곳곳마다에 문학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향문집』은 문화도시 천안이 문학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음을, 천안문학의 시대정신 및 애향정신을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로 삼고 싶습니다.

모쪼록, 천안 문인들의 문학 혼이 응집된 『애향문집』은 천안문학의 뿌리와 토착성을 확인하고 생동감 넘치는 천안문학의 독자적 향기를 널리 펼칠 수 있는 문화의 축제마당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나아가 본원 개원 55주년을 기념하는 ‘향토문화의 푸른 뱃길’이 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2017년 12월

*** 축하의 글

고향의 노래, 애향 의식을 만드는 촉매자이기를

| 천안시장 구 본 영

천안을 살고 있는 문인들이 천안의 산천과 경승지를 찾아다니며 느낀 것을 시로 수필로 동화로 표현한 작품들을 망라한 『애향문집』 발간을 먼저 축하 드립니다.

천안시서북구문화원은 지역의 아름다운 산수와 자연을 벗 삼아 자신의 감정을 읊고 인문을 노래한 주옥같은 문학 작품들을 채록하여, 시민들이 한 자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편집해 펴냄으로 향토 문학을 가늠해 보는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천안 곳곳의 산천과 인물들의 행적과 경승과 문화유적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시문들을 향토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리하고 시대감각에 맞게 디자인함으로 고향의 노래라는 의미를 붙인 점은 매우 의미가 깊다 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천안 문인들의

문학과 고향의 노래라는 애향 의식을 심어 준다는 점에서 본지 발간의 의의를 살필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천안시서북구문화원의 애향운동 전개사업 차원에서 추진된 본지 발간이 문화의 원천 콘텐츠 발굴사업으로 이어지는 촉매자 역할이 되고 우리지역 문학과 정서를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덧붙여 천안이라는 지역에 함께 인연을 두고 있으면서 태생적으로 소유한 공통의 감성을 확인하는, 지역의 문학에 접근하는 생생한 경험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이종석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애향문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7년 12월

일 러 두 기

1. 본 문집은 천안의 근현대기, 즉 해방 이후부터 2017년 6월까지, 천안지역 문학지, 문예지, 정보지 등에 발표된 시, 시조, 수필, 동화, 평론, 소설, 희곡 중에서 채록한 작품 87편을 수록하였다.
2. 작품 채록의 순서는 최근에서부터 우선순위를 두었다.
3. 작품은 대체로 소재별로 분류하고, 편집 체제를 감안하여 발표 연대순 등에 구애됨이 없이 배열하였다.
4. 작품에는 수록 발표지의 연원을 밝혔다.
5. 작가의 현황은 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하였으며, 이력 사항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5행 안에서 기술하였다.
6. 문학상 수상작품의 경우 시상 명과 등위를 밝히고 그 밖의 백일장 등은 그것을 생략하였다.
7. 작품에 표준말이 아닌 사투리가 있다 할지라도 작가의 의도를 존중하여 그대로 살려 두었다.
8. 작품 수록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거나 소통이 안 돼 수록치 못한 작품은 다음 기회에 우선적으로 수록할 예정이다.
9. 그 밖의 사항은 문학지 게재 일반적 사항을 준수하였다.

제1장
시

- 김명배** 이빠진산 1 _ 16
이빠진산 2 _ 18
성불사 1 _ 20
향요 7 _ 21
오늘은 천안역에서 _ 22
목천천 _ 23
- 안수환** 對酌 _ 24
芙蓉무덤에서 香奩을 열고 _ 26
우리는 천안에 살고 있다 _ 29
분배하라 그대여 _ 30
그대 손에 닿아 보석이 되었네 _ 32
충만한 시간 _ 34
- 윤여흥** 삼거리韻 3 _ 36
봉서산 _ 38
삼거리韻 _ 39
황톳빛 그리움 _ 40
겨울비 _ 42
- 권상기** 성정천에서 _ 43



제1장
시

권상기	흑성산 2 _ 44
	흑성산 1 _ 45
장성균	승적골에서 _ 46
	병천에서 _ 47
	기로리 _ 48
	오곡리 _ 49
이병석	난 아직 천안에 남고 싶다 _ 51
	천안 큰재빼기 _ 52
박미라	성불사 _ 53
이심훈	재빼기는 마을의 경계이면서 _ 54
	취 _ 56
권복례	얼마나 큰 그리움으로 물어오는가 _ 58
	봉서산 _ 60
한정찬	천안에 산다는 것이 _ 61
	천안삼거리 6 _ 62
전명수	만일사 마애불 _ 63
	아우내 장날 _ 64

정창순	성환역 _ 66
	송덕리 近況 _ 68
정인숙	광덕산에서 _ 70
	봉명동 62번지 _ 72
강석화	봉서산 _ 74
	태학산 마애불 _ 76
김다연	유관순 _ 78
	광덕산 _ 80
이명열	목천의 아침 _ 82
	왕지봉에 올라 _ 84
	하릿벌 _ 86
이숙영	한저루마을 장승 _ 88
조묘순	광덕산에서 2 _ 90
	삼곡리 형님 _ 91
최택균	태조산에서 _ 93
	노태산 담쟁이 _ 95
정아지	천안, 천안 _ 97
	봉서산을 오르며 _ 98



제1장
시

- 조유정 취암산 아침 _ 99
소학골의 가을 2 _ 101
天興寺址 _ 102
- 배상섭 일봉산 벗꽃 _ 104
- 국미나 갈재고개 꽃바람 _ 105
- 김상묵 흥쟁이 辭說·別章 3 _ 106

제2장
동시

- 김월순 광덕에서 전해준 말 _ 110

제3장
시조

- 신군자 흥타령축제 _ 112

제4장
수필

- 최병호 천변풍경 _ 116
아우내길 _ 120
그 이름부터 _ 125
- 김세관 천안 사람 _ 129

이정우	아, 천안이여 _ 133 「만남」 속에 핀 民草들의 신바람 _ 137 한 밤의 기적소리만큼 _ 142 목천 송덕비 _ 145
유인순	천호지에서 익어가다 _ 148
김용순	천안역 서정 _ 152 삶을 갈무리하는 또하나의 씨오쟁이 아우내 장터 _ 155
박상분	내 사랑 봉서산 _ 160 천안역 앞 그 집 _ 164 유관순, 그의 오솔길에서 _ 167
박매선	송남리 _ 172
손남미	삼거리공원 _ 177
김만수	천안을 꿈꾸며 _ 182
김순자	인연의 땅, 사람 _ 186
문세희	서당골 장마 _ 191
김다원	만일사 _ 194 갯골 외숙모 _ 199



제5장
동화

- 소중애 천안남산초등 아이들 _ 204
햇불낭자 유관순 _ 214
김월순 할머니의 텃밭 _ 287

제6장
평론

- 윤성희 천안의 세 풍경, 길과 장터 _ 296

제7장
희곡

- 이명열 운초 김부용 _ 306



제1장



시

김명배	정인숙
안수환	강석화
윤여홍	김다연
권상기	이명열
장성균	이숙영
이병석	조묘순
박미라	최택균
이심훈	정아지
권복례	조유정
한정찬	배상섭
전명수	국미나
정창순	김상묵

이빠진산 1 외 5편

| 김 명 배

내 말을 그냥
가만히 들어만 주는
친구 어디 없을까.

나도 그의 말을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는
친구가 되고,

이빠진산*
두 봉우리
그리 살고 있네

친구야,

*이빠진산 : 취암산 혹은 치함산이라 함. 천안시내와 목천읍 경계에 있는 산으로 이 고장 사람들은 이빠진산이라고 부른다.

마을 앞 장승이 된
소학교 때 친구야.

사람이 그림다.

〈천안문학 62집, 2016〉

이빠진산 2

나는 내 자리에
언제나 그대로 있을 뿐인데...
비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서
세상이 변하네.
새가 우는 밤엔
어디 있느냐, 너는.
때때로 내 곁, 네 자리가
비어 있네.
그럴 땐 내가 네 곁,
내 자리에 있을 뿐인데...
꽃피고 잎이 지고
구름이 가려서
세상이 변하네.
이빠진산 두 봉우리
금줄 동여매고
그냥 그렇게 있을 뿐인데...
누구와 이별하고 있는가,

둘이 있어도 허전한 세상.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세월일 뿐인데...

〈김명배 시집 '이 빠진 산 두 봉우리' 2001〉

성불사 1

하늘이 찾아와서
눈도 찌르고 이도 뽑아 가서
멍청바위
딴 모습으로 태어나기 전에
오던 길 되돌아가고 있네.
세상에 얼굴 한번 내밀지 못하고,
바위 속에 갇혀 살다가
돌덩이로 돌아가고 있네.
돌아가는 길 온 길만큼 험한데
친구가 있으면, 가는 길도 길이지.
성불사 마애불
눈도 멀고 코도 빼뺏고
스스로 미륵의 인연을 끊고서
바위로 돌아가고 계시니
그 길, 동행함이 어떨까.
풍경소리
소멸되는 귀로의 노을.
나도 함께 갔으면 좋겠네. 〈천안문학 42집, 2006〉

향요 7

목천천에 얼굴 씻고
까치밭로
몰래 왔다 몰래 가는
초승달을
못 보셨는가.
마음이 떠나 버리면
몸도 떠나 버리는 것,
동네 귀신
나막신 거꾸로 신고
밤길을
몰래 갔다 몰래 오는 걸
못 보셨는가.
소쩍새 소리만 더
구슬프더라.

〈천안문학 15집, 1993〉

오늘은 천안역에서

처마 밑에 제비집
올해도 비어 있네요
지금쯤, 아기 패랭이 꽃
그 자리에 피어 있겠네요.
검정 고무신 신어보고 싶네요.
하늘이 하도 개운해서
풀뿌리까지 진저리치는
장마 뒤의 산과 들,
코스모스 잘못 알고 또
그 자리에 피어 있겠네요.
구구단 외워보고 싶네요.
돌아오는 것도 있고
돌아오지 않는 것도 있고,
무슨 말을 할까요, 오늘은
제비 한 쌍
날 듯도 한데
천안역에서 하행선
완행열차를 타보고 싶네요.

〈김명배 시집 '산도 너스레를 떠는가' 2006〉

목천천木川川

아우내 장날
새벽,
목천천을 건너서
외판집 과부
꿈 팔러 간다.

목천천에 몸을 씻는
애기부처
자갈 틈에 앉아서
왜 웃는가.
왜 웃는가.

〈김명배 시집 '또 한세상 살고 한세상 또 살고'〉

김명배 | '현대시학'으로 등단.
천안문협 초대지부장
한국현대시인협회 고문
녹원문학상, 충청남도문화상
시집 「발 그리기」 외

對酌 외 5편

| 안 수 환

木爐에 앉아

시인 박용래 선생과 對酌하며 떠들은 이야기다

실개천이 흐르는 옥천엔 누구 있느냐

정지용이 있지요

맞다

그래서 옥천을 옥천이라고 부르는 거다

변산반도로 가는 길목 부안 거기엔 누구 있느냐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의 신석정이 있지요

맞다

그래서 부안을 부안이라고 부르는 거다

내가 사는 대전엔 누구 있느냐

저녁눈이 내린다고 눈물 질금거리는 박용래가 있지요

맞다

그래서 대전을 대전이라고 부르는 거다

그렇다면 네가 사는 천안엔 누구 있느냐

默然,

〈천안문학 63집, 2017〉

芙蓉무덤에서 香奩을 열고

維歲次

님이 가신 지 한 세기 삼십 년
당신의 빈 뜰 앞에 와서 쌓인 바람은
열두 굽이 열두 섬
이끼만 혼자 자라 푸르다 하셨거늘
품에 지나다가 남겨주신 인생은
저 하늘 못다 적시고
우리 머리 위에 오늘 구름으로
떠돈다.

芙蓉

당신이 살다 가신 곳은 연못입니까
당신이 살다 떠나신 그곳이 연못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꾸는 꽃이
떡이거나 돌이거나
높은 자리, 귀한 이름이거나
당신의 꽃은 여태도 사랑 그뿐이거나
절대의 평화, 절대의 행복

그 영원한 나라에 당신은
다시 피어 있을 거라
큰 산이 님 곁에 누워 있네.

당신의 빈 뜰에 쳐놓은 문발을 걷으며
이제 오시는 님은 바람이 아니고
공연히 당신이 속는 그리움도 아니고
깊디깊은 침묵이거니, 維歲次
나무는 나무를 위해 자라고
풀은 풀과 춤추고
새는 새를 데리고 날아가는
이 언덕에서 당신은 별을 보는가
님을 보는가.

우리에게 남겨 준 두어 평 잔디밭
누구나 저승에서 보면 초라한 人生인 걸
염불하는가
물소리 먼 데서 들려온다

물소리 먼 곳으로 흘러간다
아직은 우리가 오르는 이 산비탈이
더 험하고 숨차도
님의 평화와 安息에 못 미침이니
산 아래 신발을 신고 온 우리 얼굴을
님은 오늘 잠깐 실눈 뜨고
보소서.

〈천안문학 61집, 2016〉

우리는 천안에 살고 있다

우리는 천안에 살고 있다
물이며 안개며 수채며
욕망에 닿은 길을 놓아두고
명근이 상부 풍습이와
명태를 씹으며 소주 마신다

어떤 중심이 빠진 것 아니냐?
무슨무슨 명언도 별스럽지 않으니
아무 말도 꺼내지 않고
명근이 상부 풍습이와
명태를 씹으며 소주 마신다

어떤 중심이 빠진 것 같으냐?
입으로는 이런 것 씹으며
당근 오이 산도라지 취나물
번쩍 눈을 떠 배웅해 보자
저 바람소리 어디 극단 있느냐

〈천안애향시집 ‘충만한 시간’ 1991〉

분배하라 그대여

사람은 망각할 것을 망각해야지
정의와 사랑과 자유를 망각해버리면
짐승이 되거나 짐승만도 못한
쾌락에 붙들려 몸을 망쳐 버린다

사람이 편리하게 사는 것을
가장 좋은 행복으로 받들던
간지스강 인도문명이
또는 에게해 문명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의 앗시리아 문명이
모래무덤 속에 사그러진 것을 보라

흔히 문명이란 자랑인 줄 알지만
번쩍거리는 착색과 드높은 탐신과
달착지근한 음식물의 향기인 줄 알지만
광야를 헤매고 돌아온 성자들을 보면
매뚜기 지팡이 마대 이런 것들에게
진심을 주던 말씀과 풍속들 아니었나

우리 마을 비좁은 골목을 터놓으려면
우리 새끼들 밤중을 멀리 밝혀 주려거든
시기와 대립과 분쟁을 무너뜨리려면
장식을 죽여야 하며 허욕을 죽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오는 길을 터주어야 하니
우리 고장 문화가 이 대문을 열어 놓자면
그대, 사람 위에 군림하는 물질을 눌러야 한다
그대, 건천으로 떠도는 거짓을 지워야 한다
그대, 느린 발걸음으로 다가오는 기쁨을 위해
초조와 흥분과 술수와 역순을 버려야 한다

우리 시대의 창조란, 느닷없이 드러나는
무로부터의 돌출이 아니며 독단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골고루 나누어 가진 팍방울일 뿐이니
다 같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인준하는 진리를
분배하라 그대여

〈천안애향시집 ‘충만한 시간’ 1991〉

그대 손에 닿아 보석이 되었네

미물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아네
유량천 잔돌맹이 삼거리 장승일지 몰라
그 보다는 작은 미물을 우리는 아네
정직이며 사랑이며 생명인줄 우리는 아네

그렇거니와 날마다 일봉산 해뜨는 걸 보게
오늘 아침 햇별이 어제 그제의 것일라나
그대여, 그대 문풍지를 적시고 떠오르는
빛이여 착한 힘은 언제나 작은 일로부터
우리 마음 날날이 꽃밭을 일구었네

그렇거니와 아산만 풍량이 일어나
백석동 성정동 수신 병천까지 이르러
우리를 흔들고 빗장을 여는 것은
한밤중을 씻는 미풍인바 속절인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 하네
널리 천한 것이 귀한 것을 이긴다고 하네

애당초 무엇이 무엇을 이긴다는 것도
쇠붙이 가시덤불 악령들의 악덕인바
교육도 종교도 예술도 언론도
이것들 반대편에 있어야 하니 그대여,
우리 동네 흑성산 태조산을 보면 안다네
사람이 제자리를 지키며 사는 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오늘 유량천 모래알 잔돌멩이가
이만큼 그대 손에 닿아 보석이 되었네

〈천안애향시집 ‘충만한 시간’ 1991〉

충만한 시간

산인지 구름인지
당신이 오신 길은 깊어 분간할 수 없지만
아득함도 여럿이면 당장 오늘인 것 모르고
공연히 산을 보는 우리에게
또는 구름을 보는 우리에게

당신은 대낮 늙은 손을 주십니다

초하루 그림 데리고
50년 평정하신 손으로 가리키는 곳이
다른 하늘 끝인 줄 알았더니
오, 저 어린것들 맨발에 신겨줄 신발이라니요

빈손이 충만한 것을

그렇더라도 방동사니 풀을 뽑고
휴지조각 줍고 왁자그르 웃으며
이 일 다음으로 문득 사람이 되는 것을

다 펼쳐 주셨으니

입장 장날에 나온 늙은 소여!

먼산 흰구름을 보더라도

저기서 달려오는 어린것들 발자국소리!

이제야 별관에 홀로 서서

너희가 건드리고 지나간 풀씨를 멀리 날려주리

〈천안애향시집 ‘충만한 시간’ 1991〉

안수환 | '문학과 지성', '시문학' 으로 등단
천안문협 창립회원, 지부장 역임
시문학상, 충남시협상
시집 「신들의 옷」 외
시론집 「우리 시 천천히 읽기」

삼거리韻 3 외 4편

| 윤 여 흥

너무 오래 쟁여 둔 기억을 더듬어 본다
어디 옮겨 놓거나 버릴 데가 없구나
나는 희망이라 했고 너는 그리움이라고 했다
저녁 봄비에 벼들꽃 난분분할 때
나는 낮짜도 드러나지 않는 시에 주눅이 들고
너는 소복소복 눈을 맞고 혼자 왔구나
반씩 나누어가진 너의 절망 나의 상처
겨우내 목과 팔이 잘려나간 수양버들
삼거리에 봄이 오고 푸른 심줄 파란 핏기운
오물거린다 치렁치렁 늘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미련처럼 너를 만나지만
너는 그리움이라 하고 나는 희망이라고 다시 말한다
너와 나의 해후는 또 한번
어디 옮겨 놓거나 버릴 데가 없겠다
아침 까치 소리가 포물선을 긋고 날아온다
빈 까치집이 또 한번 무성할 것이다

너무 오래 쟁여둔 기약을 넣어 말린다.

〈천안문학 37집, 2004〉

봉서산

봉서산 산책길에서
맨발의 오르막길
인적이 뜸한 숲길에서
폐비닐 쓰레기 속을 뒤흔들며
청솔모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밤나무 그늘 쫓기 흔들며 까치 몇 마리
낙엽 속 흠냄새를 뒤지고 있었다
낙엽도 쉽게 묻히지 못하고
그늘 속에서 신음하듯
바스락거리고 있었다
경계하는 것은 내 쪽이었지만
내 마음이 쟁기는 것은
내가 그들의 일부였음을
가슴속이 쿵쿵 울렸다
수함의 태권 맨발의 저 노인
뒤로 걷는 모습이 봉서산에 묻히고 있다
물 한 모금 죄 한 짐, 가득 등에 지고

〈윤여홍 시집 ‘내 늙 속에 빠져’ 2002〉

삼거리韻

밤새 놀다 간 이 빠진 산
이 빠진 자리에 해가 솟는다

밤새 술기운처럼
푸르게 물이 올라도

척 늘어진 수양버들
척 늘어져 흥이 나는가

하룻밤 처가살이
이 빠진 산이 웃고 있다

만남과 떠남이
기약 없는 천안 삼거리

눈물 같은 하얀 꽃가루
흥타령에 취해 있다

〈윤여홍 시집 ‘내 늘 속에 빠져’ 2002〉

황톳빛 그리움

- 성황동 산7번지

국민학교 시절 신작로가 들어선
산7번지 성황동은 마냥 황톳빛이었다
산비알 가로지른 신작로를 내려다보며
가마니를 깔고 신나게
미끄럼 타던 산동네 성황동.
땅거미 비집고 번지는 저녁노을에도
제일국민학교* 교정의
아카시아 꽃내음은 환하기만 했다.

미끄럼 타다 지쳐버린 나절가웃엔
키보다 크게 자란 호밀밭 이랑을
주인 몰래 누비며 하룻강아지처럼
밀껍 씹으며 풍선 만들고
깜부기 훑으며 배를 채웠다.
그때는 하느님도 무섭지 않았다.

*지금의 천안초등학교

부황 든 산동네 달빛 한 짐을
등에 지고 신나게 노래 불렀다.

그 때 그 자리 예쁨에서 어디일까?
조울하듯 쳐다보는 천안의 달.
어릴 적 부황 든 산동네
황톳빛 성황동의 달이 보일까
지금은 전신전화국 피뢰침이 높이 솟아
하느님과 무슨 교신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 아프게 찌르고 있다.
사진첩에도 없는 그때 그 자리
성황동 산동네 황톳빛 그리움
지명^{知命}의 담뱃불이 사위어 간다.

〈천안문학 15집, 1993〉

겨울비

- 그리움 15

삼거리 활터를 지나 거무산 쪽으로
구름이 우르르 우르르 몰려간다
목천 독립기념관에 비가 오겠다
아우내 장터에 비가 오겠다
80년대 분진 같은 겨울비가 오겠다
이 비 끝에 오는 추위를 위해
비를 맞으며 옷깃을 여미지만
마지막이라는 후련함은 어쩔 수 없다
매봉산 세성산의 조선 솔잎도
누대의 아팠던 상처를 여미고
80년대 역광으로 비치는 겨울비를 맞고 있다
마지막이라는 후련함은 어쩔 수 없다

〈윤여홍 시집 ‘내 늑 속에 빠져’ 2002〉

윤여홍

‘심상’ 신인상
심상시인회, 천안시인회, 서안시 회원
한국문협천안지부장 역임
충남문학 대상
시집 「내 늑 속에 빠져」 외

성정천에서 외 2편

| 권 상 기

해 없는 날
달 없는 날
질척거리는
그 긴 골목을 지나
닦고
씻고
배설한 물만 흐르는
성정천에 오면,
육교
철도주변
충남방적 기숙사 불빛,
어머니 바늘 끝 사랑을 만난다.

사전에도 없는
낱말들을 찾아보다가

〈천안문학 14집, 1992〉

흑성산 2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당신이 아닙니다.

우리 언 손으로
등불 들고,
우리가 죄 지은 만큼
당신을 바라봅니다.

한양을 등진
몇 멧의 선비가
천안의
풀,
돌 하나에
정들어
풀씨 기름에
불 밝혀
당신을 바라봅니다.

〈천안문학 15집, 1993〉

흑성산 1

천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흑성산
그 능선따라
그 계곡마다
만나는 얼굴

눈빛 하나로 알고
언약 없이 헤어져도
목천,
입장,
전의사람
착한 목숨 하나로
천안에서
담울음소리로 만났다.

〈천안문학 15집, 1993〉

권상기 | '한국시' 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천안지부장 역임
천안시인회 회장 역임
시집 「침묵으로 남는 소리」 외

승적골에서* 외 3편

| 장 성 균

한 시대
아름차게 머물다 떠난
당신의 삶, 그 앞에서
다 피내고
비로소 느끼는, 충만함
한식 햇살 드리는 청솔가지 사이로
아느작거리던 앓은뱅이꽃
안부 몰라
하늬바람 불어도 하냥
넌 그리다
발길 돌려 발길 돌려
반복되는 작별하기

〈천안문학 55집, 2013〉

*승적골 : 천안시 북면 오곡리 봉황산록 수려한 계곡

병천에서

병천의 달을 보면
봉화대 아래
하나 둘 모여드는 사람들
가전리 길 따라 장이 서면
도롱이 걸친 조선 사람
금세 큰 눈으로 모여 드는데
유씨네 족보는
우리 족보 아닌가

아우내의 달을 보면
누군가 타이르던
삼밭과 호미
삼밭과 호미
그런 처녀가 보이고
이길 따라 매봉산 올라가면
숨 모은 아침 하나가
산기슭으로
내려오고 있다

〈천안문학 13집, 1992〉

기로리

하늘 빛 성기어
산 너머 사라지는 곳
남으로 누운 기로리

어른들은
앞산에서
물 즐기 되고

얼굴이 고운 아이들은
날마다
예수한테 가고 있다.

빈잠을 들고 따라오는
오늘을 지우고

이 마을 공터를
자꾸 지우는
기로리

〈천안문학 10집, 1987〉

오곡리

오늘 우리가 이 별관에서
서로의 이마를 대고
다른 새벽을 기다리는 것은
커다란 시야로 떠난 이들의
귀환을 바라보며

끈적한 쟁기질 뒤로 볼때기 흠치던
당신의 유년을
등판으로 퍼 올리기 위함이니

저렇게 별떨기 떨어지는
오곡교
그대 품으로 우리는 다시 오네

연일 침묵하던 들새의
몸짓이 부서지던 저녁
우리는 왜 밀밭 언저리에

능 이슬로 남아 있느냐고
가끔씩 따져드는 아내의 젖은 목소리

그러나 이 들뜬에 서성이는 것은
아무도 어둔 밤중을 끌어안은 이 없어도
날마다 함께 누워 편안한
오곡리
그대 품으로 우리는 다시 오네

〈천안문학 13집, 1991〉

장성균

‘창조문학’ 신인상
한국문협, 충남문협, 충남시인협회 회원
천안문인협회 회장 역임
시집 『하늘보기』 외

난 아직 천안에 남고 싶다 외 1편

| 이 병 석

기차가 지나간다
기차안의 사람이 지나간다
그 사람의 시간이 지나간다

철길에 눕는 낙엽,
재도 없이 타버린 시간,

바람결에 산이 저문다
난 아직 천안에 남고 싶다

〈천안문학 33집, 2002〉

천안 큰재빼기

한발 내딛으면
허물어지는 뒤축
뛰쳐 오르면 꼴덕 미끌어지는
하루, 허전한 맨발.

선 자리 땀들다
주저앉은 아침
다잡아 일으키는 거무산 해를 잡고
기 쓰고 오르는 천안 큰재빼기.

등성이에 서면
스스럼없이 어우르는 중앙시장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움큼
발끝부터 뿌듯한 천안 큰재빼기

〈천안문학 15집, 1993〉

이병석

‘문예사조 신인상
천안시인회, 서안시 동인
천안문인협회, 가톨릭문우회 회원
충남문학작품상, 정훈문학상
시집 『끈에 관한 명상』 외

성불사 成佛寺

| 박 미 라

하늘에 뜻이 계서 날아왔던 백학 한쌍
18나한님의 형상 신명을 바쳤건만
초립동 네 목소리 그 또한 업이러니
성불사 일컬음도 또 다른 인연이라
네 아니 왔더라면 만일사 있겠느냐

봄바람 가을비에 희미해진 님의 형상
따스한 이끼 아래 차라리 온화롭다
하 많은 애절함에 하늘로만 크는 괴목
관음죽 부대낌이 천년 두고 여일하니
문노니, 너 또한 외롭지는 않았으리

〈천안문학 15집, 1993〉

박미라 | 대전일보 신춘문에 당선
충남작가회의, 충남시인협회 회원
천안문인협회, 현대시인회, 바람시동인
시집 「이것은 어떤 감옥의 평면도이다」외
에세이집 「그리운 것은 곁에 있다」

재빼기는 마을의 경계이면서 외 1편

- 천안역

| 이 심 훈

재빼기*는 마을의 경계이면서
길과 길을 연결하는 다리목이다
경부선 전라선 호남선 장항선 따라
날줄 씨줄로 이어지지 않는 곳이 없는
천안역은 장항선의 시발점 기차가 서면
행상들이 올라와 호두과자를 팔곤 했지

역전 근방 세월의 뒤안길 넘는 재빼기
공설시장 별들이 쉬었다 가는 여인숙
작은재빼기 가는 길목에 게 딱지 같은
개성식당 해풍에 마른 우럭젓국이나
간제미회무침으로 목축이고 큰재빼기
넘어 충양시장으로 이어지는 길의 절도

* 고갯마루

** 천안 출생의 독립운동가 이동녕 선생

갈래갈래 이름도 별스럽게 흐벅진
역말오거리 방죽안오거리 버들육거리
천안삼거리 흥타령이 문산 파주 도라산역
넘어가면 경의선 물꼬도 트여 한걸음에
개성 지나 신의주역 만주 횡단 철도로
이어지는 길 따라 석오의** 도포자락
펼럭이는 재빼기는 젓마루 경계이면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릿목이다.

〈이심훈 시집 '장항선' 2013〉

칩

흑성산 기슭에서 칩을 깎다
씹을수록 살이 우러나는 암칩
독립기념관에는 임시정부요인 밀납 인형이
묵은 칩처럼 향기를 풍기고 있다
광장에는
놀이 나온 사람들이 춤을 춘다
일본인 관광객 두엇이 김구를 구경하고 있다

거리에 진열된
NHK 수신 안테나에서
사무라이를 만났다
그는 우리의 안방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칩을 씹다
끓일수록 향기가 우러나는 수칩
오랜 세월 어둡고 척박한 땅에서
한 뿌리 칩으로 밀납 인형들이

고문없이 쉽게 부르튼 내 손을 바라본다

거대한 독립기념관에서

고등계 형사들이

밀납 인형들을 고문하고 있다

칼날보다 보드라운 전파를 타고

〈충남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2001〉

이심훈 | 웅진문학상으로 등단
한국문협천안지부장 역임
백매문학회 동인
충남문학 대상
시집 「장항선」외

얼마나 큰 그리움으로 묻어 오는가 외 1편

| 권 복 례

향을 올리고
제례를 끝낸 후
결국, 살아 있는 사람의 몫으로
더운밥과 잘 익은 음식은 돌아 왔다

부용 곁에서
제례에 올랐던 다식과 진달래 화전을 나누고
작설차를 음복하며
세월에 풍화되어 버린
부용 묘를 바라보았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을 떠올리면 살아서
얼굴 한번 못 보았다 해도 그리움이다. 눈물이다
하물며 詩로 만남 부용은 얼마나 큰 그리움으로
내게 묻어오겠는가

하산 길에 부용 곁에서 사진을 찍는데 누군가가 내

어깨에 손을 얹는다
그 온기가 너무나 따뜻해 오래도록 산벚꽃향에 취했다

내가 부용을 그리워한들,
그의 어깨에 내 손을 얹고 싶은들 다
마음뿐이다. 그는 이미 세월에 풍화되어
내 손을 얹을 수 없는,

결국, 살아 있는 사람의 몫이었다
더운밥과 잘 익은 음식과
따뜻한 체온까지도

〈운초 김부용의 삶과 생애, 천안문협 간, 2017〉

봉서산

내가 올려다보는 봉서산이 아닌
마주 바라보는 봉서산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첫새벽을 맨 먼저 불러들이고
불러들인 첫새벽을 아낌없이 내게 건네주는
봉서산은
부질없이 욕심을 부채질한
지난밤의 부끄러움을 모두 씻어 주느라
밤새
복식호흡을 하여
바람에 실린
나무 향을 나에게 보내준다

그 향기 오 할은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오 할 만큼만 담아 두고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

〈천안문학 63집, 2017〉

권복례 | '해동문학'으로 등단, 석초문학회, 천안시인회, 천안수필문학회 동인
천안문협 회원, 해동문학상
시집 『수수꽃다리 앞에서』 외

천안에 산다는 것이 외 1편

| 한 정 찬

천안에 산다는 것이
좋은 줄은
오 년 살고 느꼈습니다.

천안에 산다는 것이
참 좋은 줄은
십 년 살고 알았습니다.

천안에 산다는 것이
정말 좋은 줄은
십오 년 살고 깨달았습니다.

〈천안문학 44집, 2007〉

천안삼거리 6

그대 옷자락 머문 손끝에
버들잎 띄운
찬물 한 사발의
인연,
그 애뜻한 사랑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한 세월은
부서진 사랑의 편린을
꼬옥 쥐고 있다

아, 그대 능소여
그리운 능소여

〈천안문학 15집, 1993〉

한정찬 | 한국문인협회 천안지부장 역임
천안시인회 회장 역임
소방문학 주간
농촌문학상, 옥로문학상, 충남펜문학상
시집 「한줄기 바람」 외

만일사 마애불 외 1편

| 전 명 수

댓돌위에

가지런한 신발 같은 마음 데리고

햇살 비스듬한 만일사에 올랐다

애뜻한 사연들을 몸에 새겨

구불구불 불거진 소나무 너머

먼 옛날 이곳에 내려온 백학 한 쌍이

부리로 돌을 깎아 부처를 그리다가

인기척에 놀라 떠나간 뒤

천년동안 백학은 돌아오지 않고

기다리던 마애불은 얼굴마저 닳아버렸다

풍경소리에 저무는 만일사

어디선가 학의 울음 들리는 듯

구름을 빠져 나온 달이

마애불에 얼굴을 그리고 있었다 <천안문학 44집, 2007>

아우내 장날

외딴 섬에 유배된 것 같이
웅크렸던 마음 닷새 장에 풀어본다
똥고 똥은 양재기에 꼬물거리는 미꾸라지
세상을 빠져나가는 길도 보이고
여린 상추
지글거리는 고기냄새 안겨 주고
드물게 보이는 누룩
제사 때마다 술을 거르시는
어머니 손도 보인다
막걸리에 얼큰히 취해
노랫가락 흥얼거리는
할아버지 손에 매달린 기차표 고무신
가벼운 삶의 무게
날은 저물고 가지고 온 물건
다 팔아야 돌아갈 텐데
반짝 세일 바구니에 밀려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
머물다 떠난 자리는

또 다른 길을 만나고

〈천안문학 29집, 2000〉

전명수 | '순수문학' 으로 등단(1997)
호서대학교 외래교수
천안문협 부지부장
시집 「문득 지독한 눈물이」

성환역 외 1편

| 정 창 순

할머니 손을 잡고 기차에
오르던 날
승강장의 석탄가루

맘 졸이며 오르던
누이의 눈물이
안개로 머물던 그 첫 새벽

그리움을 안고 내리던
날의
저녁별들,

초승달이 과수원 위로
내려앉으면
바람으로 넘치던 배꽃의 싱그러움이여
민들레 꽃씨 멀리 멀리 날리며

질주하던 급행열차,
그 빈자리

먼 여행에서 돌아와 승강장에 내리면
맞아주던 눈 시린 새벽달
출렁이는 달빛 등에 지고

〈천안문학 62집, 2016〉

송덕리 近況

소나무들 맥없이 뽑힌 자리
동산은 속살마저 찢기고
콘크리트 덮어 써 숨이 차도
비 오는 밤이면
푸른빛으로 무섭던 소나무 숲 도깨비불
겹내는 아이들 없다.

물 가득 잡아 얼음 지치던 텃논배미
모닥불에 말리느라 가랑이 태우고
야단맛을 일 없고, 맑은 물 솟구치던 샘물터엔
주유소가 들어서
오가는 자동차들 쉬어가기 편하다.

샘물터 문혔어도
집집마다 수도꼭지에서 맑은 물 팔팔 흐르고
다져진 쓰레기더미 놀이터
아이들의 웃음소리 햇살로 환하다.

밤이면 아파트 창문마다 별이 뜨고
주유소 앞 가로등 달빛보다 밝다.
추녀의 고드름 언 손으로 당기지 않아도
주유소 앞 편의점에 갖가지 얼음과자
넘쳐난다.

〈천안문학 57집, 2014〉

정창순 | '시문학' 신인상
한국수필가협회, 한국현대시인협회 회원
충남시인협회, 천안수필문학회 회원
수필집 『아내의 미소』

광덕산에서 외 1편

| 정 인 숙

곱게 물든 단풍잎
바람을 안고
광덕산 골짜기
낙엽 위에 서 있다

저녁 햇살에
산이 물들고 있다
감추어진 상처들이
하나 둘 걸어 나온다

산자락 붉은 빛
잠길 즈음
흐르는 냇물에
짐을 내려놓는다

천천히

상치가 아문다

〈천안낭송문학회 ‘시와 올림’ 5호, 2008〉

봉명동 62번지

분홍빛 편지가 우편함에 꽂히면
제비꽃잎 책갈피에 끼워 두고
토끼풀꽃 엮어 목에 걸었다.

쪽문을 열고 두어 걸음 부엌을 지나면
미닫이문 너머 싸늘한 골방에서
밤늦도록 주판알을 튕긴다.

겨울바람 몰아치던 새벽녘
연탄가스 중독에 신음하다
동치미 국물로 두통을 다스리고

창 밖 장항선 열차를 바라보며
집에 가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단발머리 자취생들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이십년 전 승복을 입고
도립병원 등나무 아래서 작별한
친구의 얼굴이 동치미 국물에 선명하게 떠오른다.

봉명동 62번지, 재개발 팻말이 붙더니
철대문집 바람벽이 봄바람에 허물어지고
토끼풀꽃 언덕이 달빛 아래 무너져 내린다.

〈천안문학 63집, 2017〉

정인숙 | '문예한국' 신인상
충남시인협회, 천안여류시동인
천안문협 부지부장 역임
공저 시집 「눈부심이 그리운」 외

봉서산 외 1편

| 강 석 화

새 한 마리 날아와
산머리를 선회하다 앓을 곳을 찾지 못해
과거의 블랙홀로 돌아간다
새가 날아간 궤적을 나는 기억한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내 마음 속에
그대가 날아간 자리 남아있듯이
작은 날갯짓이 차지하던 공간의 의미를 이제는 안다

그대 이후로
가슴 속에 함몰된 날개는 부패되어갔다
밤마다 심장을 쪼아대던 날개의 열병은
왜 모든 것을 버려야할 만큼 치명적이지 못했을까
봉황을 품었다가 산자락이 잘려
이제는 참새도 살지 않는 산처럼
날개를 잃은 것들은 모두 침묵한다
부끄러워 하늘도 돌아눕는다

날고 싶다
살을 찢고 퇴화된 날개를 꺼내어
비상을 두려워하는 비겁의 땅을 벗어나 멀리
햇살이 온 몸에 스며들어 어둠 없는 나라로
따스한 그대 깃털에 부리를 부비고 싶다
잠들고 싶다
눈 뜨면 봉황의 미소 간 곳 없고
무거운 날개 지평선에 걸려 추락하는 꿈
새를 잃은 산도 밤새 신음한다

〈천안문학 44집, 2007〉

태학산 마애불

세상을 뒤로하고 산에 오를 때
사방으로 뻗은 나뭇가지처럼
할 말은 무성하게 돌아났으나
대화는 먼 바위를 닳아 따라오지 못했다
그게 아냐
말도 안돼
잘려나간 말들은 메아리 없이 흩어지고
침묵으로 봉쇄당한 가슴은 갈수록 무거웠다

산 중턱에서 마애불을 만났다
부처는 바위에 기대어 산 아래를 굽어보고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바위로 귀와 입을 막고
천년을 묵묵히 참선하는 마애불에게
우리의 소망은 어떤 울림이 될까
묵언의 숲을 지나며
너에게 울림이 되지 못한 말들을 생각했다

우리는 산을 내려와
다시 세상의 길로 접어들었다
길은 휘어지고 오르내리고
우리도 휘어지고 오르내렸다
마애불이 미소지었다고 나는 말하고
너는 아니라고 했다
해답은 멀지 않았지만 찾을 필요는 없었다
산허리에 걸린 저녁 햇살을 헤치며
느릿 느릿 돌부처가 걸어오고 있었다

〈천안문학 37집, 2004〉

강석화 | 월간 '순수문학'으로 등단
충남문협, 충남시협, 서산시 동인
천안문인협회 회원
시집 「호리천리」 외

유관순 외 1편

| 김 다 연

해마다 삼월은
아우내 장터의 햇불과 함께 온다

그때의 삼월 하늘은
미세먼지 자욱하지 않아서
더욱 높고도 푸르렀을 것을
눈이 아리도록 피었을 봄꽃 한 아름
꺼어 들고
수더분한 촌부의 아낙이 되었어도
한 평생이 향기로웠을 것을

삼천리 방방곡곡
속 깊은 울음의 산맥을
한 자락 돌게 했던 죄로
억눌린 그리움이 되어버린
그 이름

삼월의 찬란한 봄별 속에서
여전히 열여덟의 누나로 살아 있다

〈천안문학 63집, 2017〉

광덕산

나무인 듯
풀잎인 듯
눈꽃 몇 송이를 매달고
부챗살처럼 퍼지는 햇살 속을
지나
문득 산발치에 부러진 나
산자락 어디쯤
아련히 남아 있는
잔해조차 헤아리지 못해
푸룻푸룻 일어서는
마음 밖을 향해 스미는
아득함을 뒤로 한 채
차오를수록 응고되는
실핏줄 사이
산그늘 깊은 능선을 오른다

때로 산이 내게 길이 되는 것처럼
나도 산에게 길이 되고 싶은

간절함으로
일상은 그렇게 경계를 허무는 일이라고
삶이란 또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라고
한동안 오르지 못한 정상
가파른 고갯길을 돌아가고
돌아간다

〈천안문학 56집, 2013〉

김다연 | '조선문학' 신인상
천안여류시동인회, 천안문협 회원
공저 시집 「바람은 욕심을 잠재우고」 외

목천의 아침 외 2편

| 이 명 열

실안개 걷어내는 나지막한 담장 안팎
지칭개 지천으로 흐드리지고
소리쟁이 목이 쉬는 유월,
느린 걸음 속에 마주하는 목천의 아침은
막 그린 수채화처럼 물기 돋는 듯합니다
누군가 밤새워 털이개를 휘둘렀거나
삼뱅이 저수지에 내내 걸레를 행구었겠지요

까마득한 조상이거나
또는 한 겹 한 겹 가슴 저미던 그였더라도
바람이 오는 길 하마 짐작도 없이
오래된 가르마 어디쯤 쓸어내다가
문득 해묵은 가슴도 쓸어낼 거라고
흑성산에 풀잎이나 바람이나 솔 그들의 팽이밥까지
속울음으로 녹음이 짙어지는데

생인손, 마디
다시 불거집니다.

〈2002삼거리문학축전 출품작〉

왕지붕에 올라

울타리를 뛰어 넘은 꽃잎이
첫사랑처럼,
첫눈처럼 百百한 여기
봄의 색깔을 묻지 말자

건자, 걸어라

왕림리 배꽃나무 아래
잠들지 못하는 달빛에게
봄이 환하게 부서진다
더 멀리를 꿈꾸는 사람들
물갱냉이골 걸으며
꽃의 주인이 된다

왕지붕에 올라
깜깜한 나뭇가지에서
흠쩍흠쩍 자라는
봄의 색깔을 묻지 말자

울금리 배꽃들이
하얗게 흐드러진 것은
누대에 걸친
헐겁거나 느슨한
봄의 한 생이
여기 머무는 까닭이다

〈천안문학 63집, 2017〉

하릿벌

몽크의 절규 같은

‘이 동네선 제일 잘 된 놈이 택시 운전사여’
공부가 밥 먹여 주냐 던 그 때
하천부지에 들깨 모종 하나라도
더 꼽는 것이 밥에 근접한 것

직물공장 큰 애기들이
안서리에서 넘어온 물고기처럼
바글대던 철길 뒷동네
월급날이면 ‘살찌는 집’ 고기냄새가
넉넉넉 작은 재빠기로 넘어가고
외상을 갚으러 가면 다시
외상을 달고 오던 참 좋은 시절

직물기계들이 낮은 품을 찾아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떠나고
하릿벌에 큰 물 지나가고

육교가 놓이고
들꺾잎이 하천에 고꾸라지고
후미끼리 상점들도 문을 닫았다

공장이 진 자리에
클럽이 열리고
천변 푸성귀 같던 순옥이를 조석으로 감시하던
성정동 姜씨도
자전거 끄는 소리도 더는 보이지 않는
하릿벌, 복개천에
멈칫멈칫
봄이 흘러간다

〈천안문학 59집, 2015〉

이명열 | 천안문학 신인상
충남시인협회, 천안낭송아카데미 동인
천안문인협회 사무국장
공저 시집 「시와 울림」 외

한저루마을 장승

| 이 속 영

마을에 굶은 일이 있으면
신묘한 영험을 보인다는 장승

어린아이처럼 감기가 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때맞추어 보내면서
땃돌 위에 놓인 신발들이 가지런하다

다른 동네 소식들이 귀우똥거리며
나무다리를 넘어와도
장에서 돌아오는 순식엄마 보따리에 풀어놓은
물까치 똥들

정월이면 더 고단한 마음 다시 일어나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본다

서로서로 앞 편이고 다시 뒤편이고

〈천안문학 29집, 2000〉

이숙영 | '자유문학' 신인상
천안여류시동인회, 오산시인협회 회원
천안문인협회 회원
공저 시집 「눈부심이 그리운」 외

광덕산에서 2 외 1편

| 조 묘 순

찬물에 발 담그고
버들강아지 눈떴다
개울가로 쏟아지는
봄바람 한 자락에도
몸 푸는 산수유 꽃망울들

문빛장 열어놓고
봄바람 부르더니
속내 깊은 광덕산도
양지녘부터 바람이 났다
옥빛 바람이 났다

세월은 변함없이 흐르고
바람든 나의 마음을
어느 곳에 묻을까
두 손은 어디에 숨길까

〈천안문학 33집, 2002〉

삼곡리 형님

동세 나 죽으면 그때나 올까
서방님도 그러는 게 아녀요
천안으로 이사 가더니 삼곡리*는 남 된 거여
우리 현숙이는 아들만 둘 뒀어
큰 놈이 네 살 낀나니는 내가 받아냈어
우리 윤재 중신 좀 해여 동세
혁재는 치과대학 땡기구
현정이는 간호과 땡기잖아
동세 나 오늘 부화 나서 글썸
현숙이 어미는 절에 가서 여드레째여
이 늙은이가 여직 제 서방 밥해주고 있어
오늘 저녁 애비한테 승질 떨어졌지
한바탕 굶을 했다구
동세 나 이제 기운도 예전만 못해요

*삼곡리 : 천안시 성거읍에 있는 마을 이름.

그러나 저러나 동세

자네만 먹는 가벼 자네는 두룩두룩 살찌고

〈여류시동인회 사화집 3, 1999〉

조묘순 | '문예한국' 신인상
충남시인협회, 천안여류시동인회원
전안문인협회 회원
시집 「숨겨놓은 그리움 하나」

태조산에서 외 1편

| 최택균

태조산에 올라 흥시 빛으로 물든
노을 바라본다.
노을은 추옥의 열개,
잠시 늦추어놓고 가쁜 숨 돌이킨 채
가만히 백양나무 가지 사이
담배 꽃을 피워대는 그의 모습으로 어른거렸다.

안개처럼 뿌연 그들의 뒀안길
언제나 그 자리만큼 멀어져
희미한 잔상으로
각인된 그 곳, 어느 뉘 아득한 시선을 던지던
노모老母는
신산辛酸한 가슴 떨치며, 백팔 난간 힘겹게 발 디딘다.

시절을 앗아가는 염량炎涼의 유속流速에
어제의 숨결들은

가벼운 역류 일으키며,
사바의 아픔, 산사 곳곳 얼얼하게 부항^{附缸} 떠나며
산 구비 넘고, 넘어 다다른 그곳
희미한 미소 한 조각으로 온 누리 휘감는
그의 뒷모양이 달빛인양 휘영청 솟아오른다.

〈천안문학 44집, 2007〉

노태산 담쟁이

노태산 입구 농원農園, 퇴락한 흙 담 위로
담쟁이 넝쿨, 햇살 받아 기어오른다.

온 몸 불사른 아픔도 잊고
언젠가 있을 부침浮沈의 날 감내하며
온 몸 가득 선홍빛 꽃으로 불태워 동여맨 채
기울어진 몸, 설 곳 없는 황토길
그 모진 골고다의 길, 오르고 또 오른다.

여린 줄기 부둥켜안고
추락의 아픔마저 망각한 채,
삶의 모든 것을 하늘, 그 곳 어딘가에 달아매고
그곳을 향한 집요한 성 쌓기
아침이면 이슬 한 모금 털어 먹고
꽃 한 송이 살라낸다.

서로 기대가며, 서로 아파한다는 것,
한 줄기의 뼈와 살들이 살갑게

마주대하며 산에 오르는 것,
주저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믿음에
송두리째 불 태워가면서도
꽃 한 송이 피워 입에 물고 또 다른 계절을 잇는
송고한 릴레이,
인고의 세월 달갑게 견디며 아득한 꿈 잊지 않는다는 것,
산다는 것이, 그런 아득한 살 보듬질 아니었던가.

〈천안문학 44집, 2007〉

최택균 | '문예사조' 평론부문 신인상
문학박사
천안문인협회 이사 역임

천안, 천안 외 1편

| 정 아 지

능수버들 기억하던 거리에서
벚꽃으로 축제가 시작되면
내 가슴은 청춘의 봄을 다시 만나오
사랑이란 설렘이 지는 게 아니 듯
벚꽃 속 다시 만나는
명동거리 어딘가
단발머리 그녀가 손을 흔들고
기적 소리에 벚꽃이 휘날리면
천안 역 창가에서 손수건 적시던
그리운 숨결이 묻어있는 천안, 천안

지독한 청춘에게
무던한 느낌의 사랑 법을 가르쳐 준
삼거리 영남루 능수버들 꽃의 인연까지
낮익은 이 거리 아름다운 천안, 천안
제2의 고향이랴오 〈천안문학 63집, 2017〉

봉서산을 오르며

땀 뻘 가쁜 숨을 밀쳐내면
가지 사이로 흐르는 바람에 가을 냄새가 배어 나온다
낮은 계단마다 따스한 햇살이 푸른 하늘을 더 높게 만들고
팔을 뻗치면 손에 파란 물이 들 것 같은 가을 하늘
바람이 옛지 있게 도토리 한 되박을 뿌려 주는 통에
머리를 맞아도 그저 기분 좋은 가을 상흔
발걸음 소리에 놀라 도망가는 다람쥐
까망 눈을 뜨고 위압적인 그대 닮은 청설모
미덥지 못한 그도 집이 그리울까
전화번호 1번을 누르면 부재중
하룻배이 닢의 산판배 해조음이 들린다
방부 처리된 호치민 시신 옆에 내력을 묻고 있는 여자
한 여자 두 여자 세 여자가 날 선 산등선에서 활짝 웃고 있다
이해한다는 것은 너를 모를 때이다

산은 지금 내 곁에 있다

〈천안문학 51집, 2011〉

정아지 | '시사문단'으로 등단, 여성동아문학상, 전국시조백일장상
한국시조시인협회, 현대시문학 회원, 천안문인협회 회원
시집 『오래된 그리움을 담다』

취암산 아침 외 2편

| 조 유 정

어둠이 오면 취암산은 깊은 들숨을 쉰다
도시에 한숨과
번잡한 일상을 조용히 받아 안아
소리없이 밤새 어르고 다독인다

어르신 등 뒤로 푸른 희망이 넘실대는
새벽하늘 열리고
드디어 어둠을 밀어내고
하루가 열리는 태양이 떠오르면
밤새 잠재운 산 너머 거룩한 조국의 혼을
날숨으로 토해낸다

골짜기 촌가 아궁이에 불 지펴 연기 오르면
새떼들 이리저리 노래하며 먹이 찾고
어린노루 경중경중 물가를 찾아 나선다

팔 벌여 천안벌 끌어안고
어린 백성 평안을 빌며
매일 아침 하늘의 기운 새 생명으로
이 도시를 채우시는 취암산 어르신이지어.

〈천안문학 44집, 2007〉

소학골의 가을 2

산모퉁이를 돌자 병풍처럼 둘러친
비경이 눈 앞에 펼쳐집니다.

붉은색으로 그린 한 폭의 산수화
바람도
산짐승도 집을 비웠습니다.

온화한 소학골*의 가을빛
밭밀의 낙엽은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먼저 가신 님들의 설운 사연을
서둘러 잎 떨군 감나무
등불처럼
골짜기 환히 밝혀줍니다.

〈조유정 시집 ‘이 세상 어떤 말로도’ 2010〉

*소학골 :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호당리에 있는 천주교 성지. 박해 때 신앙의 선조들과 순교자들이 피신하여 신앙생활을 영위했던 교우촌 7개가 남아있다.

天興寺址

은빛 안개비가 하얗게 내려오던
새벽녘
설핏 든 잠 이어지던 악몽 끝에
푸른 언덕에 황금빛 금계국
아름답게 흔들리며
지난날을 잊으려한다.

성거산 골짜기 작은 물줄기
끝없이 받아 안던 깊은 못
그가
오늘은 허영계 속을 보이며
울고 있는데

부처 옆에 천 년 전 돌맹이
오가는 이 발밑에서
깨달음 전하며

노란 금계국 속에 들어앉은

까만 씨앗
돌맹이 부처 설법 전하러
바람에 흔들리며
흔들리며 산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천안문학 42집, 2006〉

조유정 | '문예사조' 신인상
한국문협 천안지부장
충남문협 이사, 대전충남가톨릭문우회 회원
시집 「이 세상 어떤 말로도」 외

일봉산 벚꽃

| 배 상 섭

흐드리지게
피었다는
남녘 소식 전해 듣고

답장이나
띄워볼까
일봉산에 올랐더니

가려 선
매운 황사에
입 다물던 봉오리

〈천안문학 46집, 2008〉

배상섭 | '해동문학'으로 등단
한국문협, 충남문협, 아산문협 회원
인터넷문학상, 충남문학 대상
기행화첩 「스케치 파노라마」

갈재고개 꽃바람

| 국 미 나

봄비에 적셔진 생강나무 꽃
숨소리가 말게 들린다

뽕얀 구름 지나가는 바람이
달콤하다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두런두런
소풍 나온 야생화는 예쁘게 단장을 하고
오롯이 얼굴 내밀며 나를 반긴다

꽃바람에 마음은 덩실덩실 춤을 추고
광덕산 갈재고개부터 춤춤하게
봄을 수놓는다

〈천안문학 63집, 2017〉

국미나 | '한국문학세상' 신인상
한국문협 문학정보화 위원, 천안문인협회 이사
유관순 시단 이사, 시동인 '시울림' 회원
시집 「비와 나만의 속삭임」

횡경이 辭說·別章 3

| 김 상 목

해마 독 저 계수나무껍
절굿괭이질이 바쁜 품새여

태순엄니 작두 타는 곳거리로 온 동네가 시끌작하게 될 가을 빗장격
인 추석 달밤엔 노상 그리해 오듯 애들끼리 이발저발을 몰켜 돌며 따
모은 수숫잎으로 이영을 엮어 둘러쓰고는 이 마당 저 마당 달빛서슬
을 쓸면서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하며 맴돌고
자빠지며 죽는 시늉하는 거북이놀이로 먹을 것을 거두곤 했는데 아
무리 밀이 찌지는 집도 또 인심야박한 집도 이날만은 하다 못해서 밀
전병이라도 돌려내던가 설익은 풋콩설기라도 한 조각 내밀게 마련이
어서 일 년 내 못 먹어온 애들 일동은 그저 먹고 또 먹고 배꼽이 치솟
도록 허발덕신을 하여 사뭇 먹고 또 먹는 기쁨으로 너나 없이들 들짐
승마냥 날뛰는 단대목이었음에라

* 횡경이 : 천안 성환에 있는 대흥리(홍경리)의 토속어

금년엔 설사들 읊시 제발
그냥 그냥 빙겨질라나 원

〈천안문학 27집, 1999〉

김상묵 | 1947년 천안 출생
시조시인
대중음악 작사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보부장 역임



제2장



동 시

김월순

광덕에서 전해준 말

| 김 월 순

산속에 그림 같은 예쁜 집에 사는
친구가 봄소식을 전해줬어요.

개울가에서 꺾어온 버들가지가
하얀 솜털 옷을 입었네요.

먼 산에 잔설이 남았는데
종달새가 구름위에서
햇살을 눈부시게 뿌렸네요.

개울가 파란물속에 송사리 떼가
목이 터져라 노래를 하고 있네요.
저 멀리 들판에 아지랑이가
밀물처럼 달려오고 있네요. 〈천안문학 41집, 2006〉

김월순 | 아동문예문학상으로 등단
충남아동문학회, 백수문학회 동인, 천안문인협회 부지부장 역임, 현재, 천안문인협회 이사
공저작품집 「시와 울림」 외



제3장



시 조

신군자

흥타령축제

| 신 군 자

1.

굳은 언약 잊으셨나 과거보러 가신 님
능소아씨 흘린 눈물 연못 가득 고였네
춤추는 물고기들 노니는
천안 삼거리공원

2.

아버지의 지팡이는 능소의 키 훌쩍 넘어
연못가 능수버들 머리 풀어 춤을 추네
세계의 흥겨운 춤축제
천안 삼거리공원

3.

구월의 영남루에 선비인 듯 올라본다
국화꽃 몇송이가 발아래 눈짓하네
옛 선비 시조 읊는 소리

천안 하늘 올리네

〈천안문협 카페, 2017. 10. 8〉

신군자 | '월간문학'으로 등단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
천안문인협회 회장 역임
충남재능시낭송협회 고문
공저 작품집 「시와 울림」 외



제4장



수 필

최병호

김세관

이정우

유인순

김용순

박상분

박매선

손남미

김만수

김순자

문세희

김다원

천변풍경川邊風景 외 2편

| 최 병 호

분출구噴出溝가 5미터 남짓 될까. 물 더미는 90도가 넘게 꺾인 것 같다. 하얗게 퍼져 두어 단 구르곤 삼시간 안쪽을 비운 수직폭포가 되었다가 비스듬한 둔덕을 타고 원성천院城川으로 끼어들고 있다. 오수종말처리장에서 되살아난 물이다. 땅속에 묻힌 관을 타고 뿌드득 뿌드득 거슬러 올랐지만 하늘 한 번 치솟아보지도 못한 채 유량동 ‘은행나무집’ 건너 길가에서 허탈한 듯 되돌아서고 있다. 시궁발치의 으스스름냄새 같은 빛깔이 가볍게 날리는 것 같다.

박태원朴泰遠의 《천변풍경》이 떠올려진다. 배경인 청계천淸溪川은 당시 떡 감고 빨래하던 맑디맑은 시내였다. 8·15광복 후, 사회적인 대혼란 속에 그 맑던 냇물이 코를 쥐게 하는 하수구로 전락했었다. 이윽고 근대화의 기치와 더불어 거창한 대로大路가 되었고, 마침내는 거기서 얻은 여유로 다시 도시미화의 서정을 구가謳歌하는 말끔한 시내로 태어났다.

원성천의 정화수淨化水 방류는 이 같은 청계천의 복원이 많은 것을

시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양쪽으로 길만 하나씩 달랑 거느린 새 청계천은 그 본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를 것이다. 보기에 따라선 내[川]라고 하기 보다는 가로선 ‘ㄷ’ 자 형의 특이한 계곡溪谷 같기도 하고 도심都心으로 몰아붙여진 붓도랑 같기도 하다. 내나 강은 역시 경계인 냇가 강가가 넓고 다채로워야 제격이다.

방치됐던 시절, 원성천도 주민들이 아무렇게나 막아댄 크고 작은 보들이 각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마침내 당국의 손이 미처 산뜻하게 정비되었다. 그게 본래 모습이거니 했다. 그러나 물길은 이내 그 안에서 이리저리 제 뜻대로 새 길을 열었다. 굽이마다 모래더미나 재갈더미를 고만고만하게 심고 웅덩이를 파는가 하면 여울을 펴기도 했다. 넓죽한 반석을 들춰내는 기적도 낳았다.

바위와 돌멩이와 모래알들을 물과 더불어 넓게 좁게, 깊게 얇게, 흩어지게 모이게 그려대는 하상河床의 창의創意는 그대로 하늘의 숨결이다. 이를 감싼 풀덤불과 꽃들의 색조는 또한 그 미소다.

냇물에 떡 감고 빨래하고 족대 몰던 풍경은 사라진지 오래다. 물의 오염이 그 단초이긴 하지만 세월이 좋아진 탓이기도 하다. 집집마다 욕실이 딸리고 동네마다 수영장이 넘실대고 직무에 쫓긴 젊은이들은 족대 잡을 그런 겨를을 얻을 수가 없어서다. 냇물과 냇가는 이제 주민의 산책길로 휴식공간으로 그 존재가치를 다듬어가고 있다.

사석沙石이 자주 유실되는 물가의 작은 수직방천垂直防川이 의젓한 단壇처럼 보기에 좋다. 세 개의 네모기둥을 나란히 뉘이고 양 끝머리 사이에 그만한 높이의 도막을 끼워 틈새 있게 틀을 짜 붙인 경계막이가

매우 뜬직하다. 마대 끈을 명석 같이 두루두루 만 신소재의 촘촘한 막이가 신기하고 이채롭다. 고기떼나 풀들의 번식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조치이다.

양편 단 위엔 산책로가 산뜻하고 그 끝은 비스듬하게 기어올라 큰 길가의 가로수를 떠받치고 있다. 원성천의 천변은 이렇듯 주택가의 여백처럼 고즈넉하다.

거슬러 올라가면 오른 쪽으로 흑처럼 불거진 길을 돌아야 한다. 백보가 넘는 반원(半圓)이다. 직선거리는 사십여 미터나 될 듯. 고기들의 휴식처인지 정화초(淨化草)의 군락지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물길은 질푸른 빛깔에 꼭꼭 숨겨져 있다.

원성천은 그 시원이 유량골 왕자산(王子山)이다. 유량동 사람들은 그래서 이 냇물을 유량천이라고들 한다. 유량천엔 크고 작은 다리가 십여 개 된다.

그 중 이름이 붙어 있는 건 둘뿐이다. 다른 것들은 시공표지판만 남아있다. 아마도 원성천처럼 ‘원성1교, 2교’ 하는 식의, ‘유량’ 돌림자를 찾고자 하는 ‘동네의식’의 합의가 진행 중이 아닌가 싶다.

시청의 답변은 명쾌하다. 원성천은 정수 분출구가 있는 유량동 ‘은행나무집’ 앞에서 남부파출소 밑 ‘다가천’과의 합류지점까지 고작 삼킬로여라 한다. 하루 분출구로 쏟아지는 물은 만 하고도 사백 톤이고.

나는 길지 않은 이 동네 천변을 소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맑게 녀겨진 냇물엔 고기들이 신명나게 움직인다. 돌 밑과 그 언저리엔 다슬기들이 한가롭다. 나비와 벌들은 냇가와 그 가운데의 꼬마 섬들과

산책길 주변 및 그 둔덕에 핀 울긋불긋한 꽃 속을 하염없이 드나든다.
잠자리도 어느새 슬금슬금 찾아들고 있다.

산책길이야 어찌할 수 없는 불박이지만 그 공간에 들어서기만 하면
누구든 전적인 자유를 누린다. 남녀도 없고 노소도 따로 없다. 앞으로
가든 뒤로 뛰든, 내닫든 아장거리든, 짹을 날리든 혼영의 춤을 추든,
무엇을 걸치고 무엇을 쓰든, 제 운동 제 모습 제가 골라잡는 서성서성
한 곳이다. 무릇 규제의 사각지대라고나 할까. 제 기동 제가 곧추세우
는 외로운 시간대라고나 할까. 모두들 제각각 바쁘다.

우리는 항상 경제가 어렵다는 당대를 살고 있다. 아이디어를 찾아내
야 하고 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당위에 매어 있다. 따지고 보면 청계천
도 원성천도 다 개발이란 이름으로 복원되고 보완된 것이다. 이름은
같아도 그 내용은 반드시 같지 않다. 복원된 내가 과연 그 내인가? 보
완된 내가 역시 그 내인가? 개발의 다른 말을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면 그 건 어떻게 풀어야 할까?

영똥하게도 나는 모두의 박태원 작가의 영혼에게 저승에서 굶어본
오늘의 이 땅 <천변풍경>은 과연 어떠한 시원의 물을 찾아야 할 것
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천안문학 48집, 2009〉

아우내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천안 톨게이트를 빠져 나와 왼편으로 돌면 팔차선의 시내 진입로가 시원스럽다. 잠시 이 길을 달리다가 문득 멈추게 되는 네거리에서 터미널을 저만치 전방에 두고 왼편으로 방향을 바꾸어 천안 동부 외각을 남부로 가로지르는 ‘천안대로’에 들어서면 이 길이 바로 아우내 길로 이어진다.

천안대로는 외각도로답게 시내로 들어가는 크고 작은 길들을 바른편으로 연방 터주면서 쏠살같이 내닫는 육차선 도로다. 대로를 얼추 지나게 되면 번잡한 네거리가 나오고 이 네거리에서 또 한 번 왼편으로 신호를 받으면 아우내 길로 들어서게 된다.

아우내는 천안과 진천 사이의 중간 지점인 병천^{並川}의 옛 이름이다. 유관순 열사가 항일 만세를 선도했던 ‘아우내 장터’가 바로 이곳에 있다. 유서 깊은 역사의 현장성 때문에 아우내라는 이름은 병천이라는 이름보다 늘 따뜻하고 자랑스럽다.

아우내 길은 중간에 독립기념관이 서기 전까지만 해도 별 수 없는 시골의 자갈길이었다. 버스를 타면 차 밑을 통기는 자갈 소리가 군밤 튀듯 했고 뽕얀 먼지가 유성의 꼬리처럼 이어졌다. 가로수도 포플러와

농수버들이 아무렇게나 빈 곳을 메운 것처럼 초라하게 줄서 있었다. 그래도 차편만은 편리했다. 천안 진천 간의 정기버스, 서울 진천 간의 급행버스, 천안 시내버스 등등이 자가용처럼 어느 것이나 하나는 늘 정류장에 대기하고 있었다. 지금은 좌석버스, 택시 등이 연락부절이다.

아우내 길을 타보면 그 권역이 셋임을 알 수 있다. 천안삼거리 공원 권, 독립기념관권, 유관순 사우권이 그것이다. 아우내 길의 출발점인 삼거리공원권은 공원을 중심으로 좌우 반 십리 정도의 짧은 거리다. 독립기념관권은 경부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굴다리 너머서부터 응원리, 신계리, 기념관 네거리, 연춘리에 이르는 이십 리길이다. 유관순 사우권은 연춘리에서 사우까지 시오리 정도의 거리다.

아우내 길로 접어들면 흥타령을 연상케 하는 농수버들 가로수가 휘늘어져 춤을 추고 있다. 이내 바른편으로 삼거리공원 정문이 열린다. 왼편으론 ‘농수옛주막’, ‘버들집’, ‘민속주막’ 등의 목로 집 간판이 보인다. 집 앞엔 말 대신 자가용 승용차가 늘 줄서 있다. 능소(綾紹)아가씨의 전설에 대한 호기심일까, 그 시절 그 분위기에의 주연(酒宴)에 대한 향수 때문일까, 공원을 찾는 길손들의 발길이 거의 이곳을 거치게 마련이다.

공원을 지나서 1킬로쯤 달리면 경부고속도로 굴다리가 나온다. 나란히 가던 길을 거의 90도로 좌행하여 굴다리 밑을 통과하고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여 가파르게 오르면 벌써 독립기념관 권역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이다.

가로수가 산뜻한 느티나무로 바뀐다. 첫째 모퉁이를 돌면 응원리

마을 앞 공원이 성큼 눈길을 끈다. 정비된 도로가 다 그렇지만 특히 이 권역의 길 양편 자투리땅들은 모두 이 공원처럼 깔끔한 휴식 공간으로 잘 꾸며져 있다.

유관순 사우 권역인 연춘리부터는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바뀐다. 아 직은 멀쭉한 키다리다. 옛길을 노퍽만 넓게 정비한 탓으로 비교적 단조로운 노정이다. 길 가양의 논밭들이 본향^{本郷}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서 묘한 신비감을 더해 준다.

아우내 길 사십 리는 봄 여름 가을 없이 꽃이 피고 꽃이 진다. 또한 계절 없이 열고 짙은 푸르름이 무성히도 쉼바뀐다.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가 꽃으로 채워지고 길옆에 맞닿은 작은 공원들이 푸르름으로 장식된다. 여기 꽃들은 거의가 필요에 의해서 파종되고 이식된 꽃들이어서 피는 시기가 조금은 들쭉날쭉이다.

몇 그루 안 되는 산수유나무에 노란 꽃이 피면 개나리가 뒤질세라 황금 밭을 토해낸다. 패추니아가 나타나고 잘 정리된 쥐똥나무의 흰 꽃들이 가로수 사이를 뺨뺨하게 메운다. 길을 내느라고 가파르게 깎여진 산자락엔 황색 코스모스가 만발하여 지나는 사람들이 탄성을 연발케 한다.

연춘리를 에워싼 산등성이에 아카시아 꽃이 울울창창하게 피면 꽃보다 아름다운 향훈이 이 길을 더욱 꽃답게 한다. 루드베키아, 메리골드, 백일홍, 패랭이, 맥문동, 사루비아, 푸록스 꽃 등이 쉼 없이 피고 진다. 길 너머 저쪽으론 논두렁, 밭두렁, 도롱가 할 것 없이 풍성하게 핀 망초 꽃이 하얀 세트를 이룬다.

이내 빨간, 불그레한, 하얀 접시꽃이 무리 지어 피고 목부용이 피고 청초한 도라지꽃이 핀다. 노란 원추리가 끼어들고 싸리꽃이 나타난다. 코스모스가 한동안 춤을 추고 나면 점잖은 국화가 갖가지 모습으로 조락(凋落)을 달래고 위로한다.

심심찮게 길옆에 이어진 자투리 공원들은 무엇보다도 산뜻한 잔디가 인상적이다. 알맞게 바윗돌이 놓이고 등나무 녹음대가 설치되어 있다. 영산홍, 철쭉, 옥향, 오엽송, 단풍, 적단풍, 명자나무, 자귀나무, 산수유, 느티나무 등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편안한 의자들이 다투어 좋은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다.

나는 능수버들, 느티나무, 은행나무로 이어지는 아우내 길의 가로수에서 또 다른 의미의 꽃을 본다. 그 자체가 꽃이던 신록은 녹음이 짙어지면 뒤늦게 여린 새들을 꽃으로 곱게 피운다. 같은 빛깔의 꽃을 내는 난처럼 여린 새잎은 오래오래 피는 꽃이다. 특히 위로 불쑥 솟아 약간 흰 느티나무의 새 가지, 새 잎은 난보다도 더 아름답게 늦가을까지 오랜 위안을 안겨주는 꽃이다. 그 아름다움은 진짜 꽃의 아름다움에 버금하는 것이다.

아우내 길은 안개가 잦다. 자욱했던 안개가 삼시간에 뿔뿔이 도망가는 모습은 또 하나의 거대한 꽃이다. 비껴드는 햇살은 은은한 향기다. 철이 바뀌어 눈이 내리면 독특한 정취의 눈꽃이 핀다. 능수버들에 도 느티나무에도 은행나무에도 줄줄이 눈꽃이 열린다. 이 또한 진짜 꽃의 아름다움이다.

아우내 길 사십 리는 꽃길이다. 나는 이 꽃길을 태양을 안고 출근했

다가 또한 태양을 안고 퇴근한다. 눈이 부셔서 차광도 하고 더러는 찌푸린 실눈도 되지만 벅쳐오는 감동만은 어찌할 수가 없다. 날씨가 흐릴 때는 이글거림이 싹 가신 불그레한 큰 원이 와락 이마에 얹히는 경우가 있다. 태양의 또 다른 모습이다. 달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넉넉한 양감과 유순함이 더없이 정답게 느껴진다. 태양과 꽃을 완상하며 달리는 나의 출퇴근길 이십여 분은 답답한 빌딩 숲을 정체와 싸우며 헤치고 다니는 대도시 사람들에게겐 아마도 무슨 도원경(桃源境)같은, 축복받은 쾌주의 시간이다.

나는 이 길을 오가며 묘한 당위의식 같은 것을 느낀다. 천안을 지났던 많은 선인들이 삼거리 주막에서 잠시 신들매를 풀고 낭만을 즐겼던 애뜻한 전설을 기려 구조화한 것이 천안삼거리공원이라면 유관순 사우는 유관순 열사가 아우내에서 주도했던 3·1독립운동을 기리는 거족적인 송모의 전(殿)인 것이다. 그 중간 지점에 독립기념관이 서게 된 것은 결코 우연만은 아닐 것이란 생각이다.

아우내 길 사십 리는 역사의식을 일깨우는 한 도정이어야 한다. 시류에 따른 변작이 후덕으로 치부되고, 이치 바른 논리가 강경으로 지탄되고, 날카로운 비판이 이적행위로 몰렸던 알 수 없는 억지는 이제 이 아우내 길에서 멸실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아우내 길을 꽃길로 곱게 가꾼 정성에 합치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이 같은 생각을 반추하며 태양과 꽃무리들과의 호응을 더욱 깊게 한다. 오랜만에 능소아가씨의 옛집이 생각나는 것은 그 동안이 너무 고단했던 탓일까. 〈천안문학 29집, 2000〉

그 이름부터

그 이름부터 편안한 곳이 천안 아닌가. 사람들은 고향 하면 으레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고장’이란 말을 빼놓지 않는다. 같은 말이지만 그 산과 물과 인심에 서린 정회는 저마다 천자만홍千紫萬紅일 것이다. 천안사람들은 이에 덧붙여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임을 강조하며 허허허 웃을 것이다.

예전에 나는 천안 하면 ‘삼거리’, 아니면 ‘호두과자’를 떠올렸다. 훨씬 후에 외우 김남웅이 이곳 태생임을 알게 되면서 천안 하면 노상 그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다가 나도 그의 권유로 천안사람이 되었다. 이젠 천안 하면 내 고향으로 입이 열린다.

먼 산자락을, 긴 강물이 굽이굽이 감돌아 나가는, 작은 분지에서 자란 탓인지 내 눈에는 이곳 산들이 그만그만하게 겸손하고, 그 사이사이를 적셔나가는 물들도 졸졸졸 정겹다. 인심은 그 산하山河만큼 느긋하게 느껴지고. 산사태나 물난리를 겪은 일이 없다. 사람들의 큰 싸움도 구경한 적이 없다. 그만하면 편안한 고장이 분명하다.

어언 한 세대를 넘게 살았지만 이름 그대로 잘 지낸 것 같다. 처음 김남웅 외우가 설립한 중학교에서 3년여를 보냈다. 평준화정책이 강력

히 추진되던 시절이라 과도기적인 터덕거림이 없진 않았지만 작은 유포피아를 그리며 정성을 다했다.

‘완전학습’사에서 시행하는 ‘월례평가’에서 몇 번인가 1위를 차지하는 기쁨도 누렸다. 지역유지들과 새마을조기청소를 하고 함께 나누었던 커피타임도 잊을 수 없는 회억거리다.

교장월례모임에서 박준구 교장의 친절이 따스했다. 후덕한 품모에 항상 미소로 대하는 과목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친구가 되어 교육대학원도 함께 했다. 그런 정의로 그가 설립한 중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하여 8년여, 사학의 신뢰와 성가를 드높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월례고사에 많은 신경을 썼다.

비공개로 되어있는 4개교(시내 남중학교) 교과별 성적을 교내장학을 이유로 복사해 와서 그 대책을 사뭇 진지하게 논의했었다.

유도부가 연달아 전국을 제패했다. 지도교사 안재호 선생의 묵묵한 헌신을 잊을 수 없다. 자모님들이 가을마다 마련해 준 돼지찌개용 배추김치의 맛과 자양이 아니, 그 정성스런 손길이 바로 선수들의 기량이 되었음을 익히 알고 있다. 참으로 고마운 추억이다.

새 교장의 좋은 산과 물과 인심의 정령이 문득 내게 비쳐왔다. 뜻밖에 전직을 하게 되었다. 공사립교원 교류 케이스의 일환으로 시교육청 장학사가 된 것이다. 다리를 놓아준 당시 권혁조 교육위원님과 최승기 천안교육장님의 호의를 잊을 수 없다.

맡은 부서가 사회체육계였다. 86·88올림픽을 대비한 거국적인 소용돌이 속에 관내 초중 선수들의 격려는 물론, 관외의 이 연관된 행사에

도 부지런히 쓰다녔다. 많은 지도자들과도 교분을 나누었다.

대학입시 체력검사 및 체력장 발급은 정확과 신속을 요하는 업무였다. 경직된 지시 때문이었는지 매끄럽지 못한 진행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다. 가슴이 떨렸지만 객기를 동원해 이를 바로잡고 신속을 기했다. 흐뭇한 추억거리다.

정확히 3년 반의 외지근무를 마치고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왔다. 중학교장과 야영장을 겸직한 고교로 발령이 되었다. 소재지가 동쪽이어서 희한하게도 나는 해바라기출퇴근을 했다. 그곳 3년은 정말 해바라기처럼 밝고 싱그러운 나날이었다. 조회의 참석을 돌아가며 했지만, 어쨌든 세 군데를 다 돌고 나면 금방 점심때가 되었고 잠시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내 퇴근을 해야 했다. 말 그대로의 ‘천안’은 거기 있었던가 싶다.

고등학교 양궁부 한승현군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감격스런 장한 일이었다. 체육회에서 환영대회를 열어주었다. 학교 주악대가 한껏 퍼레이드를 펼쳤던 그날의 환호를 잊을 수 없다.

컴퓨터를 담당한 김태균 선생의 헌신으로 본교가 관내 아니 도내(?)에선 처음으로 학생들의 성적표를 OCR 카드로 발급하였다. ‘개천에서 용이 꿈틀거리는 기분’이 되어 우쭐했던 일이 어제 일만 같다.

퇴임을 앞둔 마지막 4년의 근무는 귀여운 여학생들의 학교였다. 음악 미술 무용 등, 예능반 학생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문예진흥원의 기금을 계속 받으면서 모두들 얼마나 열성이었는지 모른다.

한편으로 나는 여류문인 몇 분들의 리브콜로 천안 문협에 가입했다. 사무국장 이정우 선생의 헌신이 매우 돋보였다. ‘세미나’ 보다 후속의 ‘재미나’가 더 신나다는 것은 알고 있는 바지만 천안문협의 그런 모임은 시인 박미라 선생이 날렵하게 주도하는 화목을 보였다. 배후에 10년을 멀다 않고 문협을 뒷바라지해온 김석하 회장의 양식良識이 우뚝했다. 참 좋은 고장이구나. 역시 ‘천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나와는 아예 무관한 것으로만 여겼던 법정퇴임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덮쳤다. 마침 정부도 IMF 폭풍에 허우적거릴 때여서 남들이 다 했던 퇴임잔치도 자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집을 하나 상재한 게 빌미가 되어 학교와 문협이 양면을 다 되돌아보지며 기회를 마련했다. 서울에서 공덕용 선생을 비롯한 여러 문우들이 내려와 나로선 분외의 대접을 받게 되었다.

내겐 그 자리가 퇴임을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역을 축하하는 자리로 여겨졌다. 교단에서 문단으로, 교사에서 문사로! 가만히 손이 쥐어졌다.

‘겸손하고 정겹고 느긋한’ 그 정령이 나로 하여금 그 이름부터 편안한 이 고장에서 더욱 편안하라고 그렇듯 좋은 인연들을 마련해주었던 게 아닌가 싶다. 천안만세!

〈천안문학 44집, 2007〉

최병호 | ‘수필공원’으로 등단
한국수필문학진흥회 부회장
현대수필문학상, 충남문학발전대상, 신곡문학상, 백제문학상
수필집 「그러나, 그렇지만」 외 다수

천안 사람

| 김 세 관

이따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으레 듣게 되는 말이 있다.

내가 오래 살았던 대전이나 학교를 다녔던 서울에서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다 보면, 내가 이제는 완전한 천안 사람이 됐다는 거다. 하긴 내가 천안에 첫 발령을 받은 지도 어언 30년이 넘었으니, 그런 말을 들을 만도 하다. 서산으로 전근을 가게 되어 그곳에서 잠시 살다 온 적이 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겐 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줄곧 천안에만 살았던 것으로 기억되나 보다.

‘완전한 천안 사람’이란 말은 물론 무심코 쓰는 표현이리라. 그러나 그 말을 듣는 나는 무심코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은 조금 생각이 흔들리고 있지만, 내 고향이나 다름없는 대전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완전한 천안 사람이라면 천안을 떠날 생각을 버려야 할 텐데, 아직은 그렇다고 단언할 수가 없다.

글을 쓰다가 스스로 깜짝 놀라게 된다. 내가 실제로 대전에 거주한 것은 불과 8년에 지나지 않는데 비해, 그 세 배가 넘는 긴 세월을 천안

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아직 천안은 객지로 느껴지고 있으니 말이다. 내가 대전을 잊지 못하고 고향처럼 느끼는 것은 아마도 어린 시절을 보낸 때문이리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천안에 살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을 때까지도 나는 대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기회만 되면 대전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광역시가 되면서 인사교류가 막혀 버렸으니... 어렵긴 하지만 도 간 교류도 전연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오랜 기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알고 보면 천안과 대전은 너무나 많은 닮은꼴을 하고 있다.

대전의 서쪽으로 온천 휴양도시 유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천안의 서쪽으로는 온양이 있지 않은가. 경부고속도로가 도시의 동남부를 지나는 것도 공통점이고, 그 언저리에 있는 옥천과 목천도 나에게서 같은 발음으로 들린다. 아니, 나는 가끔은 온양을 유성이라 부르고, 목천을 옥천이라 부르는 때가 있다.

대전이나 천안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이 역전 근처에 있다가 IC 부근으로 이전한 것도 공통점이다. 나에겐 태조산이 지족산이고, 흑성산이 식장산인 셈이다. 대전은 호남선의 분기점이고 천안은 장항선의 분기점이다. 장항선 열차를 타는 일이 있을 때면 나는 꼭 호남선 열차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

그 외에도 열거하려면 천안과 대전의 공통점은 여러모로 많을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은 억지라고 여길 줄 모르지만, 나에게서는 어쩐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천안에 직장이 있으면서 대전에서 통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그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긴 나도 1년 넘게 대전에서 통근을 한 일이 있긴 하지만, 나는 한시적이었던데 비해 기약 없이 통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

직장생활을 마치면 나는 어디에서 노후를 보내야 할까? 오직 야구를 보는 재미로 살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히 대전으로 가야 할 것이다. 지금은 주로 중계방송을 시청하는 쪽이지만, 퇴직을 하여 시간이 많아지면 직접 현장에 가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천안을 떠난다고 하면 문우들과의 작별이 너무 섭섭하여 갈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한화 이글스의 연고지를 천안으로 이전한다는 말이 있기도 했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내 고민은 깨끗하게 해결될 텐데.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것이 인연이다. 사람과의 인연도 그러하지만, 어떤 지역과의 인연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교사 발령을 기다리면서 천안으로 발령이 날 줄은 전연 예상치 못했다. 아는 선배님에게 문의했더니 도내에 농고가 있는 곳을 금산 공주 청양 등 대전을 중심으로 알려주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발령 순번이 1번이었고, 발령 희망지를 고향인 금산으로 제출해 놓고 있었다. 사령장을 나누어주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 금산

으로 발령을 받은 것이었다.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해 보았으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제 생각하니 그것은 내 인생의 판도를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은 분기점이었다. 천안에서 아내를 만났고, 또 두 아이들이 태어나 천안 사람이 되었으니 말이다. 그 뿐인가. 지금은 내가 만나는 사람의 거의 전부가 천안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 천안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다. 우리 천안이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동네라는 말이다. 나는 곧잘 편지 말미에 ‘天下大安의 고을에서 김세관 드림’ 이라 적곤 한다.

내가 천안에 발령을 받고 항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듯이, 대전으로 전근을 가려고 여러 차례 기회를 노렸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듯이, 퇴직을 한 이후라도 대전엘 가려 하지만 우리 문우들이 놓아주지 않듯이, 어쩌면 내가 천안에 살게 된 것은 천리天理인 지도 모르겠다.

〈천안수필문학 동인지 5호, 2005〉

김세관 | 월간 '수필문학' 천료
한국문협천안지부장 역임
한국수필문학가협회 이사 역임
천안문인협회 이사
수필집 「내가 정말 혈~인데」

아, 천안이여 외 3편

| 이 정 우

어쩌다 서울에 다녀오기 위해서는 교통편과 노선을 생각해야 한다. 업무상 출장이나 집안 일 등 간단한 일에도 어김없이 하루를 다 보내야 한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살고 있는 천안은 서울에 비해서 훨씬 편하다는 느낌이다. 아무리 막혀도, 어떠한 날이라도 너끈히 30분이면 웬만한 곳은 다 다닐 수 있으니 말이다. 현란한 문명의 불빛도,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집중돼 있다 해도, 아직은 시골 내음을 맡을 수 있고, 더러는 순박한 인정이 살아 있으며, 요모조모 변화의 느낌을 감지하며 살 수 있는 천안만은 못하다는 생각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해 천안에 닿을 무렵이면 안서동 천호지의 물살을 바라보며 아주 대조적인 풍경을 만나게 된다. 하나는 야트막한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전원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동편의 편안한 모습이고, 또 하나는 우뚝우뚝 솟아있는 서편지역 아파트 단지의 숨 가쁜 모습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어느 쪽을 바라보

건 병풍처럼 늘어 선 푸른 산들이 한 눈에 들어왔고 그 경치가 너무 좋았다. 하지만 요 몇 년 사이에 그 아름답고 넉넉한 산자락이 도시에 밀려 사라졌고 이제는 아주 먼 곳 말고는 볼 수 없게 되었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그래서 살 집을 자꾸만 짓기 시작하고, 땅이 모자란다고 위로 위로 솟아오르더니 급기야 우리는 산도, 나무도, 아름다운 서녘 노을도 모두 빼앗긴 것이다.

언젠가 서울에 살고 있는 고향 친구에게 요즘 천안의 모습을 말했더니 그는 거의 통곡하다시피 외쳤다. “아이고, 몇 년 후 고향에 내려가 맑은 공기 쉼뻐 살려고 했는데, 어릴 적 칠팔리 캐고 솔방울 따던 고향을 늘 그리워했는데…….” 문명 속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품의 그는 거의 울상이었다.

도시규모의 확대, 즉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는 다 ‘이유와 타당한 논리’가 있을 것이다. 비용이 싸게 들어야 하고, 시간이 절약되어야 하며 또 교통량의 조절이나 지방세수의 확대, 특히 쾌적한 문화도시 구축 등. 그렇다 해도 반 만 년 유업으로 이어받은 이 강산을 다시금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책임은 다른 모든 ‘이유와 타당한 논리’에 앞서야 할 부분이다. 더구나 무분별한 개발은 아직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 파괴, 생태계의 균형을 그만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우리는 ‘개발’이나 ‘발전’의 방법과 목적은 물론, 삶의 철학마저도 차분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나아가 이 땅 위에 ‘산다’는 것, 그리고 ‘잘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살펴야만 할 것 같

다. 정녕 새와 메뚜기와 짐승들, 뱀까지도 같이 살아야 할 ‘가족’이며 땅과 개울과 하늘도 같이 해야 할 ‘一家’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 볼 만한 때가 아니겠는가.

며칠 전, 재미있는 글을 읽었다. 미국 대통령이 서부태평양 연안에 사는 인디언 추장에게 땅을 팔라는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워싱턴의 대통령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말을 해왔다. 그러나 하늘을 어떻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생각이다. 이 공기의 신선함과 물의 반짝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닐진대, 그것을 어떻게 팔고 사고 할 수 있는가? 이 땅의 모든 곳, 빛나는 소나무 비늘잎, 모래 강변, 어두운 숲 속의 안개, 웅웅거리는 곤충, 이 모두가 내 겨레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 성스러운 곳인데, 개울과 강에서 흐르는 반짝이는 물은 그저 물이 아니고 우리 선조의 피인데……. 우리가 당신에게 이 땅을 판다면 당신은 그 물이 신성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호수의 맑은 물에 반사하는 그림자는 내 겨레의 삶에 있었던 사건들과 추억을 말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당신에게 이 땅을 판다면 공기가 우리에게 귀중하다는 것, 공기는 그 정기를 그것이 돌보는 모든 형제들과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아메리칸 인디언 추장의 아름답고 간결한 자연과 인간의 同體性의 ‘철학’에 정녕 숙연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인간 이외의 것, 말하자면 산천초목과 땅과 짐승을 마구 다루어도 좋다는 환상을 갖기 시작했다. 땅을 마구 다루면

인간의 설 땅이 무너지고, 공기와 물과 나무를 마구 대하면 인간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밥그릇에 밥 한 알이라도 남기면 벌을 받는다 고 했고, 산을 함부로 자르고 강을 함부로 막아도 천벌을 받는다 했다. 그런 천벌의 으름장에는 미신도 있었지만 참다운 지혜도 숨어 있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겸손한 마음일 것이다. 한 때 우리는 가난했기에 돈도 물건도 땅도 시간도 아껴야 했다. 이제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 모든 것을 더욱 아끼고 사랑해야 하며 인디언 추장처럼 산도 공기도 물도 나무도 형제처럼 더욱 아끼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나.

멀리서 바라보아도 가까이서 바라보아도, 혹 여행에 지친 몸을 이끌고 천호지 언저리, 대흥동 시장통 등 내 고향 천안의 어디를 바라볼 때에도 언제나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그윽한 차령산맥의 푸르름을 대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아! 좋다, 천안이여.”

〈천안수필문학 동인지 1호, 2001〉

「만남」 속에 핀 民草들의 신바람

헤어짐이 오래면 만남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만남의 기쁨을 노래하기보다는 헤어짐의 슬픔을 더 많이 소리로 불러왔다. 고려가요 「가시리」도 그렇고 「아리랑」도 그렇다. 소월도 그랬고, 이미자도 나훈아도 조용필도 또한 그랬다.

정말 우리에게 만남은 없는 것일까, 이 물음에 ‘아니다’ 라고 크게 대답하는 노래가 있다. 「천안삼거리 흥타령」은 자다가 들어도 신바람이 나는, 어깨춤이 절로 나는 우리네 민초들의 만남의 노래이다.

서울역에서 호남선이던 경부선이던 남행열차를 타면 천안역을 지나게 되고, 부산이나 목포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도 천안을 지나친다.

천안시 삼룡동三龍洞에 가면 삼거리가 있고 길 양옆으로는 능수버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서울로 향한 큰 길 아래 동남쪽 한 길은 남안들 고개를 넘어 청주, 문경새재, 상주, 김천, 대구, 경주, 부산으로 가는 길이고, 또 한 길은 도리티고개를 넘어 공주, 논산, 전주, 순천, 목포로 가는 길이다.

이 세 갈래 길은 예부터 형성되었으니 자연 주막거리가 들어설 수

밖에 없었을 게다. 그 주막거리에서 삼남지방의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으니 끝없는 만남과 헤어짐 속에 사랑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랑이 있으니 눈물인들 오죽 길에 뿌렸겠으랴만 천안삼거리 에 가면 옛날의 산보다 더 높았을 이야기들은 다 어디가고 능수버들에 얽힌 홍타령만 구성지게 살아남아 주모가 건네주는 막걸리 사발대신 소주병을 기울이게 된다.

기차를 타고 이곳을 지날 때면 으레 「천안 명물 호도과자」가 나오지만 관광버스 안내원들에게서는 삼거리 홍타령에 얽힌 능소의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된다.

조선시대 전라도 고부에 사는 박현수라는 선비가 한양 5백리 과거 보러 올라가는 길에 길손님을 만나 어렵사리 마련한 명지전(明紙錢)을 털리고 몸마저 상한 터인데 사람을 알아보는 능소라는 기생이 극진히 돌봐주고 용돈까지 거두어줘서 무사히 과거에 응시, 장원급제로 삼남 어사를 제수 받았다. 박 어사는 귀향하는 길에 삼거리를 먼저 찾아서 그때까지 정절을 지키며 기다려준 능소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자 너무 기뻐서 주막 앞에 서 있는 버드나무에 얽혀 홍타령을 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것이다.

‘능소나 버들은 흥’은 뒷날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면서 능수버들이 되었다고 하는데, ‘천안삼거리 흥 능소나 버들은 흥 제 멧에 겨워서 축 늘어졌구나’ 홍타령 가락이 솟털처럼 가벼운 바람에 실려 귓전에 맴돈다. 뒤돌아보니 독립기념관을 안고 있는 흑성산이 멀리 눈에 들어온다. 그 밑으로 삼거리를 싸고 있는 ‘무상부락’이 낮게 자리하

고 있는데 그 옛날 흥청대던 색주가와 주막들 대신 지난 봄 새로 초가 지붕을 얹은 듯한 말끔한 민속주점 서너 채가 여름햇볕에 즐고 있다.

천안삼거리의 전설과 민요를 낳은, 그야말로 넘치는 흥겨움 속에 숨겨진 애절함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흥타령은 선율적 구조상의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사설이 주는 짜릿한 선정성과, 선비와 기녀 간의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사랑의 전설이 한데 어울려 끈질긴 생명력을 더해 가고 있다.

삼거리의 영속성과 보편성을 지탱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은 표면적으로는 다소 이질적인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있음을 알 수 있다.

흥타령은 그래서 지방의 민요로 머무르지 않고 소리의 영역을 넓혀 우리 나라 구석구석에 그 씨앗을 뿌려왔다.

천안삼거리 흥 능수나 버들은 흥
제 밧에 겨워서 성화가 났구나
에루화 좋다 흥 성화가 났구나 흥

계변양류가 흥 사사록인데요 흥
그 버들가지가 유색신이라
에루화 좋다 흥 성화가 났구나 흥

세월은 흘렀지만 흥타령은 가락은 끊임 없이 끊이지 않는다. 그 옛날

박현수와 능소_{陵紹}가 만나 결합의 기쁨을 노래한 그 자리에는 더 이상 흥타령이 들려오지 않지만 그들의 전설은 이곳 사람들의 흥타령 가락 속에 살아 숨쉬는 듯하다.

10m 높이는 뒹직해 보이는 능수버들이 주위를 감싸고 있는 삼거리 공원의 여기저기에는 여름날 더위를 피하려는 부녀자들이 눈에 띄는 풍경이다. 가사 속에 사사_{絲絲錄}으로 표현된 능수버들의 질푸름은 제철을 만나 그 느낌을 더해주고 있으며 특히 새벽까지 내린 단비를 촉촉이 머금은 능수버들은 힘찬 생명력으로 그 모습을 뽐내고 있다.

공원 남쪽 연못가를 걸치고 서 있는 영남루_{永南樓}가 능수버들과 함께 옛 정취를 한껏 드러내고 있는데 영조가 온천으로 행차할 때 이 누각에 올라 친히 역석감회_{憶昔感懷}란 글을 써서 현판으로 걸었다 한다.

천안삼거리는 요즈음 새로운 옷을 입고 있다. 오랫동안 옛모습을 지켜왔었지만 공원 확장사업으로 잔디광장이며, 팔각정, 놀이마당, 누각 등이 새로 들어서고 있다.

공원 동편 산책로를 끼고 서 있는 흥타령 비는 흥타령 가사와 함께 노산 이은상님의 글을 담고 있다.

여기는 천안삼거리
세월 따라 옛 모습 달라졌어도
조상 적부터 전해오는 흥타령
구성진 민요가락 들리는 곳
천안삼거리 흥 능수나 버들은 흥
제멋에 겨워서 축 늘어졌구나 흥

겨레의 얼 겨레의 숨소리
멋있게 살아온 옛 사람들
우리는 오늘 삼거리를 지나며
입안으로 굴러보는 홍타령

경부고속도로마저 외면 못하고 꺾이고 지나가는 천안삼거리.
유관순 열사가 만세를 불렀고 겨레의 집 독립기념관이 들어선 배경
에는 삼거리의 애잔한 문화적 바탕과 뜨거운 향토정신이 솟아난 징표
이리라.

박 어사가 능소를 만나 덩실거리던 그 만남의 기쁨을 다시 한 번 언
제 맞볼 수 있을까!

우리는 이곳 삼거리에서 배울 것이 있다.

산다는 것은 헤어짐이 아니라 「만남」이라는 것을…….

〈천안수필문학 동인지 2호, 2002〉

한 밤의 기적소리만큼

1

소녀가 묻는다

“나 얼마나 좋아해?”

소년은 한참을 생각하다 수줍음의 높이로 대답한다.

“한밤의 기적소리 만큼”

- 무라카미 하루키 '밤의 원숭이' 中 -

어느 날 밤중에, 아주 깊은 밤중에 잠을 깨면 세상의 적막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린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된 듯한 마음이 된다. 그때 어둠이라는 선로를 타고 기적소리가 들려온다. 하루키의 소설에서는 그것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설명하진 않는다.

2

시골집들에는 마루가 있었다. 그 중에서 참외나 수박을 짓는 집은 밖에 나앉은 마루나 원두막이 있었다. 병천 잣밭 큰 외가댁은 참외농사를 지으셨고 여름방학이면 우린 많은 밤을 그곳에서 보냈다.

작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깔개위에 이불을 펼치고, 원두막 지붕 처마 끝으로부터 모기장을 내려서 이불 가장자리 밑으로 구겨 넣는다. 가장자리 네 모퉁이에는 동아전과와 표준수련장, 보물섬 등을 놓아 각을 더 주면서.

우리가 거기서 공부를 한다고 하니, 외삼촌이 어렵사리 전기를 끌어다 원두막 천장에다 전구를 달아주었다. 모든 게 부족한 곳이라고, 늘 겸손을 달고 사는 외갓집 식구들은 도회지에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허용하였다.

우린 시도 때도 없이 참외를 따다 먹고 옆집 수박밭까지 손을 뻗었다. 두 갈래로 머리를 탄 막내 고모네 어린 여동생도 우리를 따라 함께 했다. 쉬야를 해야 할 때면 계집아이는 꼭 내게 동행을 요청했고, ‘오빠 멀리가지 마’ 를 반복했다.

누이도 동생도 잠이 들고, 나는 밤과 밤사이에 잠시 눈을 뜬다. 초저녁 서럽게도 울어대던 개구리소리 잦아들고 가냘픈 풀벌레 소리가 원두막 모기장 안을 채울 즈음, 나는 몸을 일으켜 황달 기 있는 전구를 끈다. 그때 들려오던 먼 곳의 소리. 그것은 읍내 쪽 철길 따라 이어지던 기적소리였다.

키가 커오면서 참외밭도 원두막도 없어지고 거기엔 아파트가 들어섰다. 마르케스 소설에서 새벽녘 항구의 뱃고동 소리를 들을 때도, 아사다 지로와 하루키 소설에서 기적소리를 들을 때도 나는 원두막에서

들었던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때의 원두막에서 새록새록 부풀어 오르던 나의 어린 시절, 한밤
의 기적소리만큼…. 그만큼 사랑해.

〈천안수필문학 동인지 14호, 2014〉

목천 송덕비

목천 읍사무소 담장을 경계로 오래된 비석이 즐비하게 서있다. 예전 내 어릴 적 기억으로는 이 비석들이 읍사무소(당시는 면사무소) 입구 양쪽으로 주욱 늘어선 게, 그래서 흔히들 비석거리라 부르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직산 초등학교 옆, 그러니까 옛 직산현 관아 터 입구에도 여러 개가 지금까지도 당시의 실상을 보여주듯 역사의 흔적으로서 있다. 물론 이러한 비석거리는 우리고장 천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안성에도 있고, 공주 공산성에도 있다.

이 비석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줄지어 서있다. 키 큰 놈, 조금 작은 놈, 치장이 제법 된 잘 생긴 놈, 풍상에 씻겨 남루한 자태로 흔들거리는 놈, 아무튼 고만고만한 놈들이 반반한 얼굴들을 하고 늘 그 자리에 서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누구누구의 송덕비라 쓰여 있다. 균수였었고, 현감였었고, 어떤 것은 현령인 경우도 있다.

최근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이 비석거리 사진이 실려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열 살만 먹으면, 이 비석들의 내력을 대강은 알게 된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고장이나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의 한 일이나, 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돌에 새겨 비석으로 남겼는데, 이런 비석이 세워져 있는 거리를 비석거리라 하였다.

… 개인의 비석은 대개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세웠지만, 살아 있는 사람의 비석을 세우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원님은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기 위하여, 어진 정치를 폈다는 선정비를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세우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백성들이 어진 정치를 해달라는 바람에서 미리 세우는 경우도 있었다.

송덕비, 이 송덕비가 많이 서 있을수록 충절의 고장같이 보여서일까? 아무튼 오늘까지 남아 반촌^{班村}의 위엄을 전하고 있는 이 송덕비를 볼 때마다, 과연 저 비석 한 개 한 개가 세워질 때마다 또 백성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극작가 이추원 씨는 이 비석과 관련지어 신명나는 사설을 남기고 있다.

이름을 세우지 말라. 산 사람을 세워놓지 말아라. 남의 산, 남의 돌에다 이름을 새기지 말아라. 남의 땅 명당이라고 눈독 들여 내 명당 만들지 말아라. 남의 좌청룡우백호까지 샀다고 내 것 되랴. 부관참시도 아니고 모셨던 사람 깨워놓지 말아라. 근래 자식 잘 났다 호화묘지에 누웠다고 남의 입에 올라 씹힌

고인이 맞이되고. 나 잘나 높이 되고 돈 벌었으면 그 조상 묘
 그계 명당이지. 부모 죽어 명당에 묻어 나 잘됐다고 세상에 내
 세우는가. 나 잘 되라고 부모 죽어 명당에 파묻을까. 아서라,
 왕릉은 명당이 아니었더냐. 사육신은 명당이 아니어서 일 백
 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 되었던가. 산 사람을 함부로 불러내
 어 내 앞에 세워놓지 말라. 나 또한 남 앞을 가로막고 섰지 말
 고. 그 더욱 묘지 앞에, 호화묘지라고 그 앞에 내 이름 세워 두
 지 말고. 산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그게 명당
 이고, 고인의 평화로운 자리 아니겠나. 호화묘지 꾸미는 대로
 된 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못되게 된단 말인가. 그러면 나
 만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아닐 것이다. 사람은 살아 있어야 이
 름 또한 남는 법이다. 아직 따뜻한 사람의 가슴에, 따뜻한 이름으로서
 남을 뿐이다.

목천에 있는, 직산에 있는 저 비석거리의 차가운 돌이 아닌.

〈역사와 문화로 만나는 천안기행, 2017〉

이정우 | '시와 시론'으로 등단
 한국문협천안지부장 역임
 백매문학회, 충남문인협회 회원
 천안시문화상, 충남문학작품상
 수필집 「그리움, 그 마른 상상력」

천호지에서 익어가다

| 유 인 순

이사짐 꾸린 게 25년 만이다. 마치 내 몸처럼 익숙했던 집 안 구석 구석을 훑어보았다. 봉명동 산록에 고층 아파트가 생겼을 때, 처음 입주해서 25년을 살았다. 이곳에서 삼 형제 키우고, 결혼시키고, 우리가 족이 사회적으로 성장한 곳이다.

남향이어서 별도 잘 들고, 적당한 시야에 푸른 일봉산도 보이고, 걸어서 2분 거리에 전철역도 생겼다. 삼 형제가 걸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다. 죽도록 일하던 젊은 날, 과로로 쓰러져 옆집처럼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 신세를 진적도 여러 번 있었다. 조금만 걸어 나가면 시내 곳곳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로데오 거리가 있어서 심심찮게 눈요기도 할 수 있다. 남들이 아파트를 옮기는 일로 재산을 늘려 갈 때에도 살기 편하다는 이유를 핑계로 25년간 이사를 생각해 보지 않았다.

남편이 오랜 공직에서 퇴직했다. ‘집사람’이라고 농담을 할 만큼 밖에 나가는 일이 드문 남편이 묵은 살림살이가 널브러진 낡은 집에

혼자서 종일 지낼 것이 마음에 걸렸다. 아파트를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의사결정 대차대조표를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이제 빈 등지가 됐으니 학군은 무시하기로 했다. 그러니 천안 최고 학군으로 값이 비싼 불당동이 제외됐다. 그동안 재테크의 수단이었던 아파트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가격 하락이 시작될 거라는 의견에 동의하기에 발전 가능성은 배제하였다. 앞으로 30년 정도는 거주할지 모르므로 새 아파트 일수록 좋고, 나들이하기에 좋은 톨게이트나 터미널도 가깝고, 시내버스 노선이 자주 있는 곳, 가벼운 등산이나 산책이 가능한 곳, 둘 다 노인이 될 테니 병원이 가까우면 더 좋고, 하나씩 체크하다 보니 안서동쪽으로 발길이 향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아파트를 세 개째 보다가 동남향으로 탁 트인 전망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다. 무슨 집을 슈퍼에 가서 쌀 한 포대 사 오듯이 금방 결정하느냐고 했지만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진 그림이 나타나는 순간 굳이 발품을 더 팔아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눈을 뜰 때마다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감탄한다. 방 깊숙이 쏟아지는 햇살, 소파만 하나 달랑 있는 거실의 여유, 열어 놓은 창문 사이로 무수히 들고나는 산들바람, 잡동사니를 모두 감춘 붙박이장, 어느 방에 앉아있든 보이는 하늘과 태조산 숲, 대학 건물들, 그 안에서 시간 날 때마다 멈추어 나를 돌본다.

남편은 단연 주변 산책길을 예찬한다. 천호지를 돌고, 가까운 산을

오르며 심신단련에 최고 입지라며 만족해한다. 그런저런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쓰레기봉투와 집계를 들고 산책길을 나섰다. 돌이 손발이 맞아 집고, 담고 하니 산책하는 즐거움에 보람도 더한다. 다만 마주치는 분들이 칭찬의 인사를 건넬 때 쑥스러움을 어찌 극복할지는 아직 난감하다.

천호지의 사계절을 바라보면서 조금 느려도 좋을 삶을 배운다. 잠이 묻은 눈으로 현관을 나서도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이르면 명랑하게 반짝 꺾는다. 새벽에는 모두 걸음이 빠르다. 뛰는 이들도 있고, 경보로 엉덩이를 실룩이며 야무지게 팔을 흔들고 지나가는 이들도 있다. 운동기구가 있는 곳에서 횡수를 헤아려가며 서너 가지 기구를 작동해 본다. 늘어진 팔뚝이 단번에 올라붙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하얗게 얼었던 천호지에서 아키오리가 태어나고 그 안에서 어미오리가 된다. 펄떡펄떡 뛰어오르는 잉어도 보고, 가끔은 허연 배를 드러내고 떠오른 물고기의 주검도 본다. 저수지 쓰레기처럼 아무렇게나 눈 덮인 못가에 말라붙었던 연 대가 조그맣게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소나기를 피할만한 우산 크기로 연잎을 키워 올리고, 기어이 바닥까지 드러낼 것 같은 가뭄이었다가도, 때맞춘 몇 번의 비로 다시 가장자리까지 찰랑거리기도 한다. 매일 보는 낮익은 풍경이지만 그 안에 사소한 생명들이 살아나고 스러지면서 가슴에 새겨지는 풍경에 사계절을 입힌다.

매일 한 시간 정도의 걷기 운동으로 내 몸도, 마음도 편해졌다. 좋아하는 일은 자주 하게 되는 법, 휴일에는 해거름 녘에 다시 천호지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된다. 여명의 시간과 저물녘의 시간은 속도가 다르다. 마치 짧은 날의 시간과 초로의 시간이 다르듯이. 조금 느린 걸음으로 주변을 들여다보고 지나치는 사람들의 표정도 본다. 그러다가 풍광 좋은 곳에 놓인 벤치에도 앉아본다. 행복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설명하는 그림으로 본 적 있는 풍경이다. 선망했던 액자 속의 모습이 되어 멀리 아파트단지가 경쟁하듯 하늘로 치솟는 걸 낮설게 바라본다. 치열한 삶의 터전에서 한 발짝 비켜서니 여백이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오랫동안 곱게 익어가고 싶다.

〈천안문학 60집, 2015〉

유인순 | '조선문학' 신인상
천안수필문학회 회장 역임
천안문인협회 회장 역임
수필집 「세월만큼 열정」

천안역 서정 외 1편

| 김 용 순

새벽 어스름에 천안역으로 간다. 오랜만에 기차를 탄다.

기차를 타고 천안에 처음 오던 날이 생각난다. 기억 속에 붙박이로 존재하는 얼굴,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새벽에 고향 역을 떠나 이곳으로 왔었다.

나의 혼수를 장만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천안역 근처 중앙시장으로 가셨다. 안살림은 어머니가 다 하셔왔기에 아버지는 세간에 대해 모르실 줄 알았는데, 연탄집게, 문 발 따위의 소소한 것까지 꼼꼼히 살펴 고르셨다. 나는 아버지의 꿈무니만 따라다녔다. 그렇게 이틀 동안 발품을 팔아서 마련한 살림살이로, 남의 집 문간방에 마련된 신희 방 안팎을 채워 주셨다.

그리고는 먼저 갈 테니 하루 더 묵어 오라 하셨다.

“간다.”

못내 서운하셨던지, 어깨가 늘어진 아버지는 천안역 개찰구 앞에서 나를 한 번 더 돌아보셨다. 그리고는 저녁 기차를 향해 허정허정 걸어 가셨다.

기억 속 천안역에는 서너 살 큰애도 있다. 가끔 아버지를 뵈러 갈라치면 세 식구가 하루 한 번뿐인 저녁 기차를 이용했다. 그때 천안역 플랫폼에는 홍익회 매점에서 끓이는 멸치 육수 냄새가 진동했었다. 어린 것이 어른처럼 그 육수에 말아주는 가락국수를 좋아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국수 가락을 호호 불어주면 오물오물 잘도 먹었다.

그 애가 자라 학업을 마친 후에는 천안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했다. 새벽잠을 설치며 출근하는 자식이 안쓰러워서 나는 매일 역까지 배웅했다.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것 또한 안타까워서 어스름한 저녁이면 이곳으로 마중을 나왔었다. 한동안 그렇게 천안역을 오가던 큰애는 그곳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내 품을 떠났다.

그러고 보니 내 기억 속의 천안역은 이른 아침이거나 초저녁으로 어둠과 밝음의 전환점에 있다. 어스름 저녁에 부모님 슬하를 떠났으며, 이후 가끔 저녁 차로 친정에 다녔다. 이른 아침과 초저녁에 딸을 배웅하고 마중하다가 제 길로 떠나보냈다.

기차의 속성이 그런지도 모른다. 기차가 도입된 시기는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접어드는 전환기였다. 화륜거라 불리던 당시의 증기기관차는 기껏해야 시속 20~30킬로미터였다. 그러나 걸어서 오가던 당시에는 날아다니는 새에 비유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충격이 마냥 좋기만 하지는 않았다. 외세침략과 맞물려 악귀가 붙었다느니 ‘왜귀’라는 등의 오명을 얻기도 했다. 사람들은 지나가는 기차에 주먹질을 하고 철길 위에 돌을 올려놓았다. 심지어 인근 전의역을 불 지르기도 했다.

이처럼 전환에는 서로 다른 현상의 양 끝점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얼마간의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다. 아버지를 떠나올 때나 큰애를 떠나보낼 때 기쁨 한편의 아릿한 슬픔을 견디어야 했었다.

배낭을 멘 사람이 줄음이 어린 걸음으로 맞이방에 들어선다. 차림 새로 보아 여행을 가나 보다. 오늘 저 사람의 천안역은 일상과 휴식의 전환점이라.

나는 강의를 들으러 간다. 말끔하게 다림질된 셔츠가 촉촉이 젖도록 ‘동양철학’을 강의하던 사상가, 일 년만에 다시 만나는 그는 오늘 내 생애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려나. 또 한 번의 전환을 꿈꾸며 새벽 기차를 기다린다. 아침이 어둠을 서서히 밀어내고 있다.

〈역사와 문화로 만나는 천안기행, 2017〉

삶을 갈무리하는 또 하나의 씨오쟁이 아우내 장터

아우내 장터로 장을 보러 간다. 새로 난 21번 국도를 타면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러나 천안삼거리를 지나 옛길로 간다. 한차례 내린 소나기로 출렁거리는 능수버들 푸른 물결이 더욱 싱그럽다.

20여 분 달리니 아우내장터를 알리는 비석이 반긴다. 글자 위에 얼룩진 이끼가 아우내장터의 오랜 역사를 말해 주는 듯하다.

저잣거리에 들어서니 순댓국 구수한 냄새가 침샘을 자극한다. 길을 따라 양쪽으로 늘어선 순댓국집, 이름난 ‘병천 순대거리’ 이다. 1960년대에 병천 인근에 돼지고기로 햄을 만드는 공장이 들어서자 그에 맞서 아우내 사람들은 순대를 만들어 팔았다. 그러기를 어언 50년이나 되었으니 ‘50년 전통’이라는 자랑도 단순히 허세만은 아닐 것이다. 뿌리가 이만큼 깊게 뻗다 보니 장날에만 순대를 팔던 한두 곳이 지금은 50여 곳으로 늘어나서 상시 영업하는 천안의 명소 ‘병천 순대거리’로 이름이 알려졌다. 전국 어디를 가나 순댓국집 간판에는 접두사처럼 ‘병천’이라는 지명을 덧붙여서 ‘병천순댓국집’으로 행세한다. 거기에 다 서울 - 천안 간 전철이 개통되면서 아우내 순댓국을 맛보러 내려오는 서울 고객이 많아졌다고 하니 가히 전국의 명소라고 할 만하다.

병천순대는 돼지 큰창자를 쓰는 함경도 아바이순대와 달리 작은창자를 쓰기 때문에 누린내가 나지 않고 선지에다 갖은 채소로 속을 꽉 채워서 맛이 담백하다. 입소문이 난 집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한다. 그러나 아우내 장터 순대국밥은 어느 집이 됐든 구수하고 푸짐한 데다 칠천 원으로 입맛의 호사를 누릴 수 있는 별미이다.

병천 순댓국의 또 한가지 매력은 돼지 사골을 오랜 시간 고아 우려낸 국물 맛에 있다. 국밥집에 들어서면 가마솥에서 끓는 순댓국 육수가 먼저 김으로 반긴다.

밭길 닿는 곳으로 들어간다. 주문하자 이내 뽀얀 사골국물에 순대와 내장, 머리 고기 등 건더기로 그들먹한 순댓국이 나온다. 들깻가루를 한 손갈 넣고 송송 다진 청양고추를 푹배기에 띄운다. 먹기 좋게 국물이 식을 동안 건더기를 건져서 새우젓에 찍어 먹으니 입안에 도는 감칠맛이라니...

맛있게 잘 먹었다는 인사에 인심 좋게 생긴 주인아저씨가 커피 한잔을 들려주며 식당 뒤 나무 그늘로 안내했다. ‘아우내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이라고 쓴 커다란 조형물이 눈을 부릅뜬다. 입만 호강시키지 말고 정신도 깨워 가라는 뜻일 게다. 안내판을 보니 아우내독립만세운동 당시 일본 주재소가 있던 자리이다. 당시 시위 군중은 태극기만으로 이곳에 몰려왔고 일본 헌병의 총부리와 맞서야 했다. 지금은 ‘그날의 함성’이라는 조각상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우내 장터 만세 사건은 전국에서 일어났던 3.1 독립운동 중 규모

가 가장 크다. 1919년 아우내 장날인 4월 1일, 3천여 명이나 되는 군중이 모였다. 비밀리에 약속한 시각인 정오가 되자 의연히 나선 유관순 열사의 비장한 연설에 군중은 하나같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오늘 정오를 기하여 병천 시장에 번득이는 태극기를 따르라! 모이라! 잃었던 국토를 다시 찾자!’

그때의 함성이 조각상의 입에서 다시금 터져 나올 듯하다. 네댓 살 쯤 되어 보이는 어린이 둘이 세발자전거를 타고 만세 인파가 새겨진 조각 주위를 돈다. 까르르 웃음소리도 따라 돈다. 두 모습이 참으로 대조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인과의 현상으로 다가온다. 내가 나무 그늘에 앉아 편히 쉴 수 있는 것조차도 저토록 피땀 흘린 절규와 희생의 대가일 것이다.

아우내 만세운동 발생지를 뒤로하고 저잣거리로 다시 발길을 옮긴다. 즐비한 천막으로 향하는 인파의 흐름에 발을 맡기고 장 구경을 한다. 돼지껍질 무침과 막걸리를 파는 아주머니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아줌마를 연방 부르는 천막 아래 사람들은,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맞은편에 앉은 일행에게 건넬 한 접시 정을 청하는 것만 같다. 가족끼리, 또는 이웃끼리 웅기종기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더없이 정겹다.

이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라서 냇물이 합치는 지역이다. 아우내라는 지명 역시 백전천과 갈전천이 아우른다는 말에서 연유되

었고, 이를 한자어로 바꾸어서 병천(屏川)이라고 한다. 동쪽으로 진천이 사십 리, 서쪽으로 천안이 사십 리, 남쪽으로 오창이 사십 리, 북쪽으로 입장이 사십 리. 그나마 큰 고개를 넘어야만 했다. 장길이 그렇게 멀고 험하다 보니 아우내 사람들은 따로 장을 틀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장 풍경을 보면 하천만 아우르는 곳이 아니라 세상살이 고달픈 네 마음 내 마음도 막걸리 사발에 녹여 아우르고, 내 고장 물건 네 고장 특산물도 장바닥에서 아우르는 곳이란 생각이 든다.

“뽕!”

느닷없는 포성이 상상 속에 있는 나를 내동댕이친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보얀 김에 가려 ‘범인’은 보이지 않고 고소한 뽕튀기 냄새가 놀란 마음을 달래 준다.

장 보러 왔으니 무엇이든 사야 할 것 같다. 남편이 좋아하는 짹조름한 조개젓 한 종지에 창가에 걸어 둘 관엽 화분도 하나 산다. 이어 ‘복상’이라고 써 붙인 트럭 옆으로 발길이 향한다. 이것저것 사다 보니 양손에 든 비닐꾸러미가 묵직하다. 배불리 먹고, 역사를 학습하고, 장 보기를 넉넉히 했어도 마음의 지갑은 오히려 두둑해졌다.

많은 사람과 자동차가, 순댓집과 천안호두과자 가게와 3.1운동 발생지를 알리는 조각상 사이를 오가며 아우러져 정겹고 활기차다. 좌판도 없이 길가에 늘어놓은 따리, 채반, 죽부인, 명석…: 씨오쟁이는 특히 반갑다. 문득 고향 집 처마 밑에 붙어있는 제비집이 시야를 가려 덮는다. 씨오쟁이하고 모양이 비슷해서일 것이다. 제비집처럼 곁이 오돌토돌하고 앙증맞은 씨오쟁이를 손으로 쓸어본다. 먹이를 구해 날아

오는 어미를 향해 한껏 입을 벌리고 재촉하던 어린 제비 새끼들이 화려르르 날아오를 것만 같다. 제비집엔 제비의 대를 이어갈 제비 새끼들이 자라고 있었고, 씨오쟁이엔 다음 해 농사를 이어갈 씨앗이 오롯이 담겨있었다. 작지만 생명을 이어가는 소중한 터전이다. 산으로 빙 둘러싸인 아우내 장터 또한 우리네 건강한 삶을 갈무리하는 또 하나의 씨오쟁이가 아닐까.

〈역사와 문화로 만나는 천안기행, 2017〉

김용순 | '수필과 비평'으로 등단
충남문인협회 부회장
한국문협천안지부장 역임
허균문학상, 충남문학작품상
수필집 「내 안에 피는 꽃들」

내 사랑 봉서산 외 2편

| 박 상 분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천안에선 어디 갈만한 데가 있어야지.”

나는 슬그머니 화가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사는 천안의
가 볼만한 곳을 손가락으로 꼽아보았다.

우선 떠오르는 곳이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봉서산이다. 야트막
한 봉서산은 철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며 우리 동네 사람
들을 다정히 품어 안는다. 추위가 채 물러나기도 전에 맨 처음 달려
나온 개나리꽃이 산 입구 아파트의 담을 에워싸는 봄이면 진달래도
수줍은 얼굴로 솔솔 그늘에 살그머니 나와 앉는다.

우거진 솔숲에서는 이름을 다 알지 못하는 새들이 숲속 음악회를
연다. 우리와 친한 까치, 까마귀, 참새, 비둘기 외에도 쉽게 들을 수 없
는 딱따구리의 집 짓는 소리가 산 아래에서 아파트를 짓는 이들처럼
바쁘게 보인다.

이름은 모르지만 그 목소리가 아름다워 나를 사로잡은 새가 있다.
더위를 느끼기 시작하는 늦봄에 찾아오는 새인데 유명한 조류학자에

게 전화도 해보고, 인터넷을 헤매고도 그의 이름을 알아내지 못하였다. 이름이야 아무래도 괜찮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를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기가 어렵다.

4월 말에서 5월 초에 강원도 치악산에서 그 새의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내 맘대로 붙였다. ‘오월새’라 하기로 했다. 오월에 내 사랑 봉서산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오나라, 월나라에 미녀가 많았는데 아마도 그 여인들이 신나서 부르는 노래가 이 새소리와 같지 않을까 싶다.

다람쥐는 어디 깊숙이 집을 지었을까? 청설모만 이 가지 저 가지로 내달리며 뛰논다. 넓게 펼쳐진 솔숲이 지루했을까? 아카시아 숲이 있다. 운동선수랄까, 모델이랄까, 하늘로 쭉쭉 뻗은 가지가 시원스럽다. 아카시아는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라고 구박을 받았다. 특히 조상의 묘원을 극진히 섬기는 자손들에겐 더없는 애물단지였다. 요즘에는 밀원의 보고라고 다시 인정을 받기도 한다. 봉서산에 아카시아 꽃 만발하면 건넌방에서 우리 막내가 향수병을 앓지르기라도 한 듯 온 동네가 향기에 취한다.

아카시아 숲을 지나 팔각정에 오르면 여신의 거대한 몸뚱이를 내려다보는 듯하다. 여신의 풍만한 두 다리를 모아놓은 듯한 골짜기 끝으로 수많은 아파트가 봉서산의 정기를 다투어 받으려는 듯 운집해 있다. 봉황 봉凰, 깃들 서棲, 봉황이 깃드는 산이라더니 저 많은 사람들이 봉황이다. 봉서산을 빙 둘러싸고 있는 저 아파트에 깃들여 사는 이들이 봉황이다.

팔각정 아래에는 숲 속 찻집이 있다. 부지런한 아저씨 한 분이 약수를 길어다가 찻물을 끓인다. 봉서산의 기와 바람으로 간을 맞추었을까? 꾸미지 않은 얼굴, 편한 옷차림으로 마주 앉으면 산 아래뜰에서 오랫동안 같이 산 이웃 같다. 산에서 처음 만난 이 같지가 않다.

숲 속 찻집을 지나 걷는 오솔길은 우리 큰어머네 가는 길 같다. 서서히 구부러진 오솔길 밑으로 펼쳐진 비탈진 밭에는 어설피 허수아비가 주인 대신 농사일을 한다. 날 좋아했다던 그 애가 우리 큰어머네 가는 길가 보리밭에서 지나가는 나를 힐끗힐끗 쳐다보았다더니... 나는 고개를 뒤로 돌려 허수아비를 다시 바라보았다.

아주 오래 전에는 작은 웅달샘이라도 하나 있었을까? 물기 많은 길에서 걸음을 늦추고 바지가랭이를 잡아야한다. 그러면 그렇지, 그 아래로 작은 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저들이 얼마나 논으로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들도 곧 아파트 터가 될 것이다.

철로의 레일을 받들 던 네모난 나무기둥, 침목이 봉서산에 왔다. 어디론가 늘 떠나는 사람들의 뒷모습만 바라보던 그들이었다. 그들이 봉서산에서 다시 태어나 비탈진 산길의 계단이 되었다. 그들은 아직도 철길에 누워있던 때를 잊지 못하는 것일까? 그들에게서 철길냄새가 난다. 그들의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

비탈진 계단을 내려가면 약수터가 있다. 천안시에서 수질검사 결과 물을 붙여놓았다. 아무려면 어떠랴, 산 속에서 마시는 한 모금의 물은 감로수다. 예쁜 조롱박에 약수를 가득 받아 벌컥벌컥 마신다. 하늘빛

물로 내 뱃속에 호수 하나 생겼겠다. 마시는 것으로 모자라 물병에 담아 짙어진다. 웅달샘, 버들잎, 물동이 인 처녀, 꽃고무신을 떠올린다.

봉서산이 참 좋다. 내 사랑 봉서산을 두고 다른 데로 어찌 이사할 수 있을까? 오월새가 있는 봉서산을 두고 그와 함께 산길을 거닐면 최고다.

〈천안수필문학 동인지 3호, 2003〉

천안역 앞 그 집

천안역은 길목이 크다.

경부선, 장항선, 호남선, 전라선 열차가 이 길목을 뺏다 지나가기도 하고, 잠시 머물러 길손을 보내주기도 하고, 맞이하기도 하곤 다시 떠나간다.

어떤 열차는 천안역에서부터 출발하기도 하고, 어떤 열차는 천안역이 종착역이기도 하다. 많은 이들이 잠시 머무는 열차 창으로 천안역을 내다보고 가기도 하고, 서둘러 내려 우동 한 그릇을 들이키기도 하며, 손님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먼 길에서 돌아오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이 있는 것에 비하면 천안역은 참 초라했다. 지금은 새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환하고, 서울로 오가는 전철 손님들의 바쁜 구두 소리와 어울리는 도시의驛舍 같기도 하다.

천안역 앞 도로는 비좁다.

어떤 이는 한국 전쟁 때 폭격을 맞지 않아 재건이 되지 않아 그 옛날 5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도로다 보니 그렇다고 했다. 글썸다. 天安이라는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이란 이름값을 했던가 보다. 편안한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말하기 거북스런 논리가 먹혀드는 걸까?

천안역 앞에는 그 때 그 시절, 그 時空과 어울리는 집이 있다. 새로 짓기 전의 그 역사와 역 앞 도로와 잘 어울리는 집인데, 현재 대합실에서 승강기를 타고 내려와 좁지만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 쪽으로 난 골목으로 몇 발짝 걸어가면 마주치게 된다.

아주 작고 초라한 집이 “천안의 역사는 내가 아느니라.” 말하는 것처럼 빛바랜 흰색으로 서 있다. 3층이라지만 낮아서 단층처럼 보이는 그 집에는 상호도 일반명사로만 되어 있어서 별다른 이름 없이 그냥 ‘여인숙’ 이고, ‘이발소’ 고, ‘칼국수 식당’ 이다. 식당 식단이 밖에 내 걸렸는데 바지락칼국수, 팔 칼국수, 해장국, 김치 칼국수, 사골해장국, 밥, 죽이란다.

발이 쳐진 이발소 벽에서 나온 연통이 벽에 찰싹 붙어서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난겨울을 난 것인지 양철 연통의 윤기는 사라지고 없었다. 늘어진 발밑으로 구두 신은 어떤 남자의 바지가랑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 이발한 손님인가 보다.

입구에도 영성한 발이 쳐져있는 여인숙은 2층, 3층이다. 말이 2층이고 3층이지 키 큰 사람의 이마를 찡을 것처럼 낮고 허술해서 손님이나 있을까 싶고 여인숙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차라리 사다리라 해야 할 것 같이 좁고 가파르다. 건물 외벽의 페인트는 퇴색했고, 자물쇠 채워진 LPG통과 비스듬히 기댄 자전거, 추녀 밑에 매달린 무시래기가 오래된 동무처럼 그들끼리 잘 어울린다. 옆 건물의 DVD영화관과 게임방, 약국, 고시원, 학원, 그리고 옥상의 대형 광고판과는 헤아리기 어려운 세월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 집 앞에는 화단이랄 수도 없는, 한 평도 안 되어 보이는, 어찌 보

면 큰 화분만한 터가 있는데 입구와 통하는 길로 쓰러니 그것마저 셋으로 나뉘어졌다. 그러나 규모는 작지만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아주 작은 정원이고 식물원이다. 좁지만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서 살았는지 나무 등걸이 내 팔뚝만한 상수리나무가 도도히 서 있다. 그 뿐 아니다. 날씬한 딸내미 종아리만한 뽕나무, 한 되박은 족히 열렸음직한 대추나무와 빗자루 매는 댕싸리, 대나무와 사철나무, 작은 소나무가 돌담에 둘러싸여 이름을 다 알 수 없는 일년초와 어우러져 있다. 돌담은 오래되어 어딘가에 이끼도 자라고 있을 것 같고, 어느 한 구석에는 서생원이 기생하면서 제 집인 양 행세하고 있을 것처럼 화단과 밀착되어 있었다.

그 집 앞 정원은 작은 섬이다.

도시 속에서 자연을 갈구하는 주인의 정성이 가득 들어있음이 보인다. 그보다 훨씬 넓은 땅도 잡초 우거져 황량한 곳이 많은데, 그 좁은 땅에 온갖 생명을 가꾸는 그 주인장의 부지런한 손길이 펍 다정하게 느껴진다.

어느 날 심심하고 출출할 때 일부러라도 다시 가리라. 팔 칼국수도 좋고 사골해장국이나 죽도 좋을 듯하다. 빛바랜 추억의 앨범 속으로 들어가서 무채색의 음식과 마주앉아 지나간 세월을 반추해 보리라.

그곳엔 어쩐지 벽에 걸린 괘종시계가 멈춰있을 것 같다. 소리치며 지나가는 무궁화호 열차 곁에 소달구지를 모는 어떤 어르신의를 모습을 보는 듯하다.

〈천안문학 46집, 2008〉

유관순, 그의 오솔길에서

서울은 참 멀었다.

여학교에 다닐 때, 서울 사는 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은 더욱 멀었다. 언니와 함께 보낸 짧은 서울 나들이가 살그머니 흔들리는 장항선 기차 안에서 더욱 꿈같았다. 기차는 달리고 멈추고를 거듭하는 사이, 키가 큰 서울 건물들의 오만한 지붕을 뒤에 두고 어느새 낮아진 건물들이 다정스레 기차 안을 기웃거리는 곳까지 왔을 때, 흥익회 아버지씨의 구수한 목소리가 들렸었다.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따끈따끈한 찜 계란, 김밥 있어요.”

아버지씨의 호흡 따라 나는 침을 삼키고, 이제 내 집이 있는 예산이 가까워졌다는 안도에 기지개를 켜며 ‘한참을 더 가야겠네. 천안쯤에 살았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했었다.

천안에 살고 있다. 꿈 단지를 한 번 슬쩍 건드렸을 뿐인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다. 요즘엔 서울 지하철이 천안까지 연장되어 어떤 이의 우스갯말처럼 ‘서울특별시 천안구’ 가 된 기분이다. 지하철 연장운행으로 서울이 훨씬 가까워졌다. 서울이 가까워져서 좋은 것은 마음만 먹으면 서울 가서 서울님들을 빨리 만날 수 있고, 서울 사는 이들이 쉽게 천안에 올 수 있는 것이다. 고속버스는 서울을 더욱 가깝게 한

다. 때로는 고속도로 정체로 주차장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특별한 변이 없으면 서울서 떠난 내 몸은 한 시간 후면 천안고속터미널에 도착한 차에서 짐을 챙겨야한다. 고속터미널 앞의 조각공원은 천안의 대문을 大家의 품격으로 격상시켜서, 두고 온 서울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아리리오광장으로 이어진 조각품들과 나무들의 조화는 예술과 자연의 어울림이다. 천안에 오시는 손님을 내가 굳이 마중하지 않아도 거기서 그들이 손님을 맞이한다.

420번 시내버스를 탔다. 종합터미널에선 혈령했었는데 복자여고 앞을 지나고 천안역에 도착하니 한 무리의 은빛 어르신들이 올라타며 아이들의 나들이마냥 왁자한 소란도 뒤따라 올라타더니 비좁은 시내버스는 숨 막힐 듯 가쁘게 달리기 시작했다. 젊음을 바쳐 일했던, 이제는 뒤로 물러선 은퇴자들의 천안 나들이인 모양이었다. 서울지하철 1호선의 천안 연장 운행으로 생긴 신품경이다. 서울 어르신들이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 천안쯤이라도 내려오면 가슴이 트일 것 같기도 하고, 더욱 매력이 있는 것은 전철이 65세 이상은 무료승차라니! 이런 호사가 또 있을까? 게다가 색다른 먹을거리 ‘병천 순대’가 푸짐하고 따끈하니 금상첨화일 게다. 그 분들이 서울행 전철을 타실 때는 역사와 전통의 천안명물 호두과자로 가족들에게 선물을 하신다니 그 또한 천안나들이의 특별한 맛일 게다. 일행 중 한 분이 ‘병천 우체국’ 앞이 아니라 ‘병천’에서 내려야한다고 주의를 하시더니 버스는 금세 병천에 도착했고 그 분들은 우르르 내리셨다. 다시 혈령해진 시내버스는 두어 번 서고 달리더니 ‘유관순기념관’ 앞에서 나를 내리게 했다.

천안 봉명동으로 처음 이사 와서 어디론가 바깥나들이를 하고 싶은 날 이었다. 낯선 천안을 익히기도 할 겸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이정표를 보곤 ‘천안공원’ 옆 가고 싶다고 했다.

천안공원은 저세상의 영혼들의 유택이었는데 난 이 세상 사람들의 쉼터로 알았었다.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가자고하느냐고 면박을 받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렇게 구박받을 일은 아닌 듯싶다. 삶은 어느새 죽음으로 이어지고, 산 이는 누구나 죽은 이들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천안공원’에는 특별한 이들만 가는 곳은 아닐 것이다. 조금 먼 저거나 조금 나중일 뿐 우린 하늘 공원에 가야한다. 천안은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세상의 영혼들에게도 명당인 모양이다. 요즘엔 성공한 자손들이 부모님의 유택으로 ‘천안공원’을 택한다고 하니 말이다. 그 때 그 이정표를 외면하고 왔던 곳이 여기 ‘유관순 기념관’이었다.

먼저 사당에 한걸음에 올라 오늘 다시 분향 재배를 올렸다. 나라의 고난을 내 것으로 품어 안아 결사의 의지로 맞서고 버티었던 거룩한 ‘유관순’은 나라의 열사요 천안의 자부심이다. 그의 영정 앞에서 한 없이 고개가 무거워지며 그의 거룩함에 하늘이 낮기만 하다. 사당 옆에 샘솟는 옷샘물은 오랜 세월 큰 가뭄에도 마를 줄 몰랐다더니 오늘도 여전히 그 물 넘쳐흘러 사람들의 약수로 사랑을 받고 병천(甁川)에 보태어질 것이다. 다디단 물 한 조롱을 꿀처럼 마시고 오솔길로 들었다. 유관순, 님이 다녔던 이화여고의 후배들이 그를 기리는 詩를 돌에 새겨 세워놓으니 고샅으로 느껴진 숨찬 우리 발걸음은 더딘 걸음걸이로 잠시 시심을 느껴보게 한다. 그렇게 숨을 고르고 봉화대까지 오를 수

있어서 그 또한 좋다. 오솔길에 뿌려진 색색의 낙엽 중 백미는 노란 솔잎이다. 봉화대서 불을 밝혀 쳐들었던 대한독립의 의지가 붉게 타올랐던 것처럼 저 솔꼈에 불을 지르고 싶었다. 솔잎 타는 향기로 찌들고 지친 마음을 사르고 싶었다.

우리 강산 어디나 곱지 않은 데가 없지만, 깎아지른 듯 절묘하고 텅치 큰 명산도 좋지만, 이 오솔길은 참으로 뜻이 깊고도 정답기까지 하다. 나라의 순탄치 못했던 역사를 곱씹을 수 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요, 거룩한 님의 구국의 뜨거운 열정을 새겨보며 다시 나라를 의식해 보는 애국의 길이요, 혹은 다정한 이와 손을 잡고 걷는 사랑의 길이다. 천안에 처음 오는 벗이 있어 함께 걷기를 청하면 나는 망설임 없이 길로 그를 안내한다.

유관순 열사는 이 고개 너머 병천면 용두리서 1902년에 태어나 이화학당에 재학중에 3.1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귀향하여 1919년 3월 1일(음력) 아우내 만세 운동을 일으켜 공주감옥에 수감되었다. 1919년 8월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된 후 일제의 악독한 고문에 못이겨 1920년 9월 28일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님의 정신을 후세에 기리기 위하여 1969년 추모각을 건립하고 1972년부터 매년 순국일에는 유관순열사 추모제 행사가 이곳에서 거행되고 있다. 열사가 거사를 알리고자 봉화하였다는 봉화지와 봉화탑, 님의 생가에는 님을 추모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매년 2월 말일에는 봉화제 행사가 거행되고 있다. 야트막한 산자락에서 어찌 그리도 걸출한 인물이 태어났을까? ‘작은 고추가 맵다’ 더니

이 작은 동산은 속이 꽉 찬 정기를 뿜어내는가 보다. 저기 저 옷 샘물
이 예사롭지 않다. 오솔길을 내려가서 샘물 한 조롱을 더 마셔야겠다.

〈천안문학 44집, 2007〉

박상분 | 한국방송대 문학상(동시)으로 등단
대전가톨릭문학회, 천안수필문학회 동인
천안문인협회 부회장, 충남아동문학회원
공저 수필집 「내 마음의 들」 외

송남리

| 박 매 선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려고 정보지에 내놓았다. 집 구경을 하러 오겠다는 전화가 왔다. 안방과 건넌방, 거실을 쓸고 닦고 목욕탕의 천장까지 닦았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베란다의 유리창까지 뽀얀뽀얀하게 닦았다.

“글쎄요. 비싸네요.” 하면 나는 도배하라고 100만 원 정도 깎아 주려고까지 했다. 그런데도 “좀 생각을 해 보고요.” 하고는 그냥 나간다.

어떤 이는 금방 계약을 하러 올 것처럼 약속 시간까지 정했다. 난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기다렸다.

그러길 1년 반 건축경기의 침체와 미분양 아파트의 속출로 인해 집 팔기를 포기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따로 있다더니 집이 아담하고 깨끗하다면서 10일 내로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새 아파트 입주 날짜는 10개월 정도 남았다. 월세를 살기로 했다. 소파와 식탁을 재활용센터로 보냈다. 애들 학교 문제로 집을 성정동

초등학교 근처쯤으로 구하려고 했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다. 원성동, 봉명동, 다가동, 구성동, 믿기지 않게도 시내 쪽으로는 집을 구하기가 수월치 않았다. 우리는 집을 팔 때보다 더 초조해졌다.

남편의 회사 근처, 성거초등학교 담을 따라 10여 분 걸어 들어가는 송남리, 피대에 거미줄이 쳐진 방앗간집 뒤 허름한 기와집에서 10개월만 살기로 했다. 시군 통합으로 천안시내에 속하긴 하지만, 시골학교로 전학을 갔다 와야 하는 게 부담스러웠다. 이웃들은 우릴 말렸다. 우간다로 유학 가는 사람도 있는데, 같은 말을 쓰는 나라 안에서 어떡냐고 답했다. 콘크리트 건물에 사는 애들에게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상자에 담은 짐도 풀지 않았다. 밥그릇 몇 개 수저 네 개, 웅색하기만 한 우리의 살림살이였다.

송남리에는 거봉포도밭이 많았다. 60여 가구가 사는 작은 동네이다. 행인들도 뜸했고, 이사를 오고가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인지 외지 사람을 경계하는 듯했다.

그 뿐 아니다. 집집마다에는 대체로 개들을 키우는 집이 많았다. 짙는 것도 잊어버린 듯이 낯선 사람을 보고도 어슬렁거리며 따라올 뿐 짙지도 않는 개들이다. 난 동네 사람들의 얼굴은 모르지만 개는 알고 있다.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걷는 할아버지네의 송아지만한 점박이, 울타리에 개나리꽃이 핀 슬라브집의 검둥이, 그리고 누렁이.

딸애는 개를 무서워했다. 학교에 가려고 대문 밖을 나섰다가도 개랑 마주치면 “엄마, 개가 학교 못 가게 해.” 훌쩍거렸다. 난 딸애가 집

어 던진 탬버린과 캐스터네츠에 다가가 냄새를 맡고 있는 개들을 쫓으면서 주우면서 딸애를 향해, “개의 눈을 노려 봐, 눈꺼풀도 움직이지 말고. 그러면 개가 널 무서워 해. 오히려 개가 널 피할 거야. 또 있어. 주머니에 돌맹이를 넣고 다니다가 따라오는 개에게 집어 던져.” 난 딸애를 방앗간을 지나 학교가 보이는 동구 밖까지 데려다 줬다.

잡종개만 어슬렁거리는 동네에 머리에 빨간 리본을 달고 있는 발바리가 있다. 난 그 개의 상태를 살펴야 했다. 눈곱이 끼었나, 털이 빠지지 않나, 물을 무서워하지 않나를. 그 개가 얼마 전 우리 집에 찾아오신 친정 엄마의 종아리를 물었기 때문이다.

망향의 동산을 지나 쪽 오다보면 성거초등학교 뒷동네에 우리 집이 있다고, 연신 설명을 해대도 초행길 친정 식구들은 동네 어귀에서 도통 우리 집을 찾지 못했다. 엄마는 빼꼼히 열린 대문으로 들어섰다가 달려든 발바리에 다리를 물리쳤다. 왼쪽 발목 위에 난 두 개의 이빨 자국에 퍼렇게 멍까지 들었고 금세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인근 단국대병원 응급실 의사는 발목을 물은 개가 일주일이나 지나 물을 무서워하고 침을 흘리며 털이 빠지면 광견병에 걸린 것이라고 했다.

“엄마, 그 개 멀쩡해.” 나는 발바리의 증세를 대전 엄마에게 전화로 알려 드렸다. 엄마는 자신의 안위보다도 외려 애들 개 조심시키라는 말을 잊지 않으셨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함께 저녁노을이 물든 들길을 걸어서 천흥리 저수지로 향했다.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을 따라 조금만

위로 오르면 꽃사과 익어가는 작은 과수원이 나온다.

들꽃이 핀 가파른 저수지, 풀 숲 사이로 난 길을 밟고 올라가면 이마에 땀이 나고, 숨이 차 오르기 시작한다. 피서 철이 끝난 후라 그런지 주위가 한산한 것이 무척 고즈넉했다. 산나리 꽃잎을 머리에 꽂은 딸애가 이리저리 달려 나가고, 아드애가 던진 돌이 물위로 튕겨 오르며 파문을 낸다. 발걸음을 땔 때마다 흙과 자갈이 구르는 산길, 조심스럽게 산 그림자 잠긴 물가에 내려섰다.

우리는 밤하늘에 뜬 별과 보름달을 보면서 저수지를 내려왔다. 가로등이 꺼져서 캄캄한 동네 어귀를 향해 천천히 우리 가족은 걷는다. 남편은 다리가 아프다는 딸애를 업고 난 아드애의 손을 잡고 걷는다. 상수리나무 숲을 지나 거봉포도밭을 가로 지르고, 와삭거리는 수수밭쯤에서 우리 집이 보이면 서로의 얼굴을 살피면서 가족의 따뜻한 체온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

어떤 때는 고속도로 밑 굴다리를 지나 분홍색이 아름다운 싸리나무 꽃가지를 꺾어 풀벌레소리 소란한 풀 숲을 두들기면서 망향휴게소까지 걷기도 했다.

난 송남리에 살았던 것이 행운이었다. 단대병원을 지나 천안시내에 들어오면 매연으로 가슴이 답답해졌다. 난 아파트가 많이 세워진 쌍용동에 집을 장만한 것을 후회하면서, 결국 작년 선달 그믐날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 25층 아파트다 보니 아래쪽에선 하늘도 쉽게 보이지 않았다. 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창문에 커튼도 달지 않았다. 창가에 행운목과 몬스테라를 놓았다. 조금이나마 자연의 맛

을 느껴보려 애를 썼지만 그래도 여전히 송남리 그 들길이 그리웠다.
아주 많이.

〈천안문학 25집, 1998〉

박매선 | 월간 '수필문학'으로 등단
한국도로공사 수기 공모 금상
천안수필문학회 동인
공저 수필집 「첼로의 선율을 타고」

삼거리공원

| 손 남 미

오후 여섯시 십 분이다. 펜 뚜껑을 닫으며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다. 자리에서 일어나 내 책상 맞은편에 놓인 50잔용 미니자판기가 놓인 곳으로 다가간다. 이쪽 창가에서는 남쪽 방면이 훤히 내다보인다. 산업도로와 연결된 작은 골목길도 보인다. 차량이 빈번하지 않은 그곳에 은색 엑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다. 그 차량 옆으로 키 큰 남자와 어린아이가 서성이고 있다. 내 퇴근시간에 맞춰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 남편과 아들이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는 날이거나 시내에 볼일이 있는 날, 남편의 약속이 있는 날을 제외하면 우리 세 식구는 오후 6시 10분을 전후로 이렇듯 매번 같은 장소를 서성이고 있다.

나는 회사에 다니고 남편은 집에서 일을 하는 특성상 집안일은 주로 남편의 몫이다. 아이 키우는 일도 그렇다. 이제는 남편과 더 익숙해진 아들 녀석을 볼 때면 문득, 질투 비슷한 감정이 들 때가 있다. 우리 세 식구에게 이런 일상이 시작된 지 어느새 1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 속에서 아이의 키가 한 뼘 가량은 큰 것 같다.

회사를 나서 남편 차가 보이는 곳에 이르자 녀석이 잇몸을 드러내며 달려온다. 다른 아이들도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녀석은 유달리 껌안아준다거나 어루만져주는 것을 좋아한다. 집에 있다 보면 제 아빠나 내 몸에 볼을 밀착시키고 비벼대기도 하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조금만 안아 달라고, 아주 <조금만>을 강조해 말하기도 한다. 그래, 그런 걸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으랴. 아들 녀석은 카시트가 부착된 앞 좌석에 앉는다. 나는 으레 뒷 자석 오른쪽에 앉게 된다.

산업도로로 접어든 차가 천안삼거리에 이르러 독립기념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이 켜질 때쯤이면 창밖을 내다보던 아들 녀석이 엉덩이를 들썩인다. 삼거리공원 입구에 보리건빵 봉지를 가득 쌓아 놓고 파는 트럭 옆으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보인다. 아저씨는 오늘도 그곳에서 건빵을 팔고 있다. 차 시동이 꺼지기도 전에, 아들 녀석이 벨트를 풀려고 몸을 뒤 튼다. 차에서 내려서자마자 남편은 담배를 피워 문다. 우리가 제일 먼저 들르는 곳은 화장실 옆 음료수 자판기 앞이다. 아들 녀석은 돈을 집어넣기도 전에 후레쉬 화이바라고 씌어있는 음료 버튼을 누르라고 안달이다. 벌써 일주일 째 같은 음료만을 고집한다. 다른 음료는 깡통에 든 것이어서 내용물이 보이지 않지만 유독 이 음료만은 투명한 유리병 속에 주황빛이 도는 내용물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것이 녀석의 눈길을 끄는 모양이다. 녀석의 것을 한 병 뽑아 들고 그 옆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지나 이번엔 커피 자판기 앞에 선다. 남편과 나는 밀크 커피 버튼을 누른다. 남편과 함께 커피숍에 들러 차를 마신 일이 언제였던가 문득 기억해 보려고 하지만 떠오르지 않는다.

다. 나는 피식 웃고 만다.

아이가 앞장을 선다. 한 손에 음료수병을 든 채로 말이다. 우리는 뒤에서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를 들고 천천히 녀석의 뒤를 따른다. 피엄퓌엄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인조 잔디가 깔려 있는 축구장엔 건장한 젊은 남자들이 웃옷을 벗은 채 공차기에 열중이다. 그 옆을 지나자 아들 녀석은 신이 나서 달려간다. 그러다 문득 한 번 돌아보고는 빨리 오라고 소리친다.

서둘러 커피를 마시고 우리는 걸음을 재촉한다. 아이가 다다른 곳은 비둘기들이 살고 있는 비둘기집이다. 탑 모양으로 높게 세워 놓은 곳에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비둘기 집은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는 두 곳에서 있다. 몇 마리나 살고 있는 것일까. 아이는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한다. 그러고는 바로 돌아선다. 또 가야할 길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남편의 손에 어느새 또 한 개비의 담배가 들려져 있다. 아들 녀석은 음료수 뚜껑을 열어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앞장서서 내달린다. 조금 가면 모래 씨름판과 그네가 있다. 씨름판에서 남편과 아이가 한판 경기가 시작된다. 심판을 보는 내 입장에서는 으레 아이 쪽 손을 들어주게 마련이다. 경기가 끝나면 녀석은 잔디밭에 앉는다. 그러고는 운동화를 한 쪽씩 벗어 들어간 모래를 털어 낸다. 익숙해진 행동이다. 다시 음료수를 한 모금 마신다. 이번에는 음료수 병을 내게 맡기고 그네에 매달린다. 의자에서 엉덩이는 반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작은 손으로 줄을 움켜쥐고는 남편은 힘껏 그네를 민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 몇이 우리 옆을 지난 간다. 젊은 남녀가 우리 쪽을 흘끗 한번 쳐다보다

니 발길이 얽힐 정도로 몸을 밀착시키고 걸어간다. 일전에 나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한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그땐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지 정말...”

그네에서 내린 아이가 이번에는 젊은 남녀가 걸어간 쪽으로 내달린다. 연못 중앙에 분수가 솟아오르고 있다.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잉어도 보이고 제 자리에서 죽은 듯이 목만 내밀고 있는 남생이도 보인다. 아나는 연못 가장자리를 따라 정자가 서 있는 곳까지 달려간다. 거기서 연못을 내려다보면 잉어 머리나 꼬리지느러미가 보이기도 한다. 연못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지나면 출구 쪽이다. 아이는 잠시 그 다리에 멈추어 서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그리고 다시 전진이다. 아직 한군데 더 들러야 할 곳이 남아 있는 것이다.

남편이 새로 한 개비의 담배를 뽑아 들 때쯤이면 우리는 공원을 한 바퀴 돌아 공원 입구 쪽에 위치한 처음의 자리로 돌아와 있다. 농구나 축구를 할 수 있는 작은 경기장에서 땀이 나도록 몸을 푸는 일이 남아 있는 것이다. 양쪽 축구 골대 사이를 오가는 달리기가 시작된다. 우리 역시 걸어 서는 안 된다. 회사 일에 지치고 허기진 날이면 짜증이 날 때도 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요령은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열 번쯤 왕복하고 나면 녀석은 내 손에 들린 음료수를 찾는다. 음료수 병이 바닥을 드러낸다. 남편의 손에는 담배꽂초만이 남아 있다. 비로소 오늘 공원에서의 일이 마무리된 것이다.

어쩌다 공원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날이면 아이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삼거리공원은 으레 들르는 곳이 되어버렸다. 아이에게 흙을 밟게 하고, 자연을 마주 보게 하는 것이 나쁠 까닭도 없다.

그리고 이곳에서처럼 신이 나 있는 아이를 보는 것도 우리에게 내밀한 기쁨이다.

남편과 내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장소도 이곳이 되어 버렸다. 매년 시민 백일장이 열리는 곳, 내가 천안문인협회에 발을 들여놓고, 또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여기 삼거리공원이 맺어준 인연이다.

날씨가 특별히 번덕을 부리지만 앓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곳을 그대로 지나치지 못하리라. 마치 젊은 날의 내밀한 의식을 토로하는 공간이 일기장인 것처럼 우리 가족에게 삼거리공원이 그런 공간이 돼 버린 것이다.

이곳에서 보내는 오후 여섯시 대를 훑날 세 사람은 각자 어떤 시간대로 되새기게 될까?

〈천안문학 33집, 2002〉

손남미 | '수필과 비평' 신인상으로 등단
천안수필문학회 회원
공저 수필집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천안을 꿈꾸며

| 김 만 수

작년 설달, 가족들이 이사 오는 바람에 이제 천안은 우리 식구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고향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에 방황의 닳을 내리기에는 삼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서성이고, 때로는 그리움을 결박하고,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기다림의 매듭만 키워 왔습니다.

떠나올 때 신혼부부를 위해 몇 자 적어놓고 왔습니다.

새로 이사 오실 분에게,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아끼고 가꾸어 온 집이라 금세 정이 들 것입니다. 싱크대, 베란다의 창문, 복도 창문의 샹시는 새로 바꿨고, 현관과 세탁기가 있던 다용도실에는 문을 달았습니다. 집안의 벽지와 전등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 변기 뒤에 있는 오른쪽 밸브에서 가끔씩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으니 시간 나는 대로 조여 주세요. 관리비와 가스비는 내일 분까지 계산하고 갑니다. 이사 오

시는 대로 도시가스에 연락하셔서 가스 연결부터 하십시오.
청소는 포장이사 하시는 분들한테 단단히 부탁을 했습니다.
베란다에 있던 벽돌과 돌맹이는 치우고 갑니다. 행복하게 사
십시오.

2000년 12월 14일

이사 온 곳은 천안의 봉서산 기슭입니다. 경사가 심해서 오르기가
숨이 찹니다. 바람이 다른 데보다 유난히 차고 매서워서 뺏속 깊이 한
기가 스며듭니다. 그러나 일단 집안에 들어서면 너무나 아늑합니다.
거실의 반을 고운 햇살이 뿜굴고 있으니깐요. 4년 간 떨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 우리는 그날 밤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낮
선 아내와 손을 꼭 잡고 첫날밤을 보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일찍 집 앞의 봉서산에 올랐습니다. 아파트 사이를
지나 소나무 우거진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까지 소리가, 조용한 산 속
에 파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목발을 한 사람이 힘겹게 산을 오르고 있
습니다. 그 앞에는 허리 굽은 할머니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열심히 오
르고 있습니다. 집에서 십여 분 거리에 정상이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
했습니다. 넓은 공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새해의 소망과 함께 가
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산 밑으로 천안 시내가 내려다보입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회색
도시에서 불빛만이 반짝입니다. 아산 방향으로 지금쯤 어머니도 잠에
서 깨어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고향인 당진에서 서울이나 외지로 나갈 때는 꼭 천안을 지나야했습니다. 신례원에서 열차를 타고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곳이 이곳 천안이었습니다.

‘천안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살까?’

오며 가며 차창 밖으로 비쳐지는 시내의 풍경을 바라보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이 도시를 동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천안사람이니까요.

천안에 가면
길이 보인다

망객산 너머
논두렁 밭두렁 지나서
미루나무가 있고
그 아래 우물이 있고
질경이 무성한 보리밭 사이로
길이 보인다

지친 몸 쉬어 갈
고향길이 보인다
천안에 가면
길이 열린다
동서남북 길이 열린다

부질없는 이념도 이웃간의 갈등도

천안에 들어서면

한 길이 된다

삼거리 능수버들

바람에 어울리듯

풀어져 하나가 되듯

길이 열린다

해가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자 주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로 해돋이를 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제각각 다릅니다. 해는 알몸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구름자락을 끌어다 몸을 가렸습니다. 소나무 가지 사이로 두둥실 맑은 새해가 떠오릅니다. 참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이렇듯 가깝게 내 사는 집 앞에서 새해의 첫날을 맞는 것이 너무도 행복합니다. 천안을 꿈꾸는 멋진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천안수필문학 동인지 1호, 2001〉

김만수 | 세계일보 신춘문에 수필 당선
현대그룹문학상, 울산공단문학상
천안문인협회와 천안수필문학회 회원
공저 수필집 「빈칸을 채우다」 외

인연의 땅, 사람

| 김 순 자

‘하늘 아래 편안한 곳’ 천안! 이 땅에 붙박이 인생의 첫 날이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43년 전 정월이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던 해, 국가기능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을 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담임선생님께서 입학금을 마련해 보겠다며 교대에 진학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내 장래보다는 발등에 불이 더 급했다. 당장 취직을 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어머니를 돕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했었다.

시험에 합격은 했으나 집에서 먼 타지로 발령이 나면 어쩌나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드디어 근무지 결정 통지서가 도착했다. 부여 임천우체국이라는, 그때로선 처음 듣는 낯선 곳이었다. 지도를 찾아보며 기대 반 두려움 반 착잡한 생각에 잠겨 있을 무렵, 뜻밖에도 ‘근무지 변경 통지서’가 날아왔다. 운 좋게도 대전에서 가깝고 충남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천안이었다. 그 종이쪽지 한 장으로 해서 내 인생이 정해진 것은 아닐까. 만약 임천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지금쯤

나는 어디에서 무엇으로 살고 있을까? 또한 교대에 들어갔다면 천안과의 인연은 없었겠지. 먼 과거를 회상하노라면 만감이 교차한다.

천안 땅에 첫발을 내딛던 날, 언니의 손을 잡고 기차에서 내려 처음 맡아본 천안의 냄새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곱게 땅아 내린 양 갈래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천안우체국에 첫 출근을 하면서 객지생활의 홀로서기가 시작되었다. 온실 속 화초처럼 바깥세상 구경 제대로 못해보고 자란 풋내기 사회 초년생이 바람 많은 별판에 뿌리를 내려야 할 터였다.

객지생활의 외로움과 직장인으로서의 고달픔, 이 모든 것들이 향수병을 불러왔고 가족에의 그리움은 날로 깊어갔다. 그러나 시간은 자연치유력을 갖춘 면역체 역할을 잘도 해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가면 서 천안 땅, 천안사람과의 끈끈한 인연이 내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곱삭을 대로 곱삭은 깊은 정은 이 땅에 서서히 뿌리내리도록 만들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곳도, 감동의 러브스토리를 펼쳤던 장소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엄청난 슬픔을 안겨준 곳, 또한 천안이다. 하루아침에 그이를 데려간 하늘이 너무 미워 실컷 원망도 해보고 신의 권능을 부정하기도 했다. 태어나서 딱 한번뿐인 간절한 기도를 수수방관한 하늘이기에... 그러나 그건 이미 내 인생의 밑그림에 그려져 있던 숙명의 그림자일 뿐, 하늘의 탓이 아니라는 걸 이내 깨닫게 되었다. 그래도 소중한 나의 가족, 나의 천사들을 만나게 해준 이 땅과 하늘에 감사한다. 서른 다섯 성상^{星霜} 긴 세월동안 같은 자리에서 공직을

마감할 수 있었던 행운도, 천안의 편안한 기운을 그대로 받은 축복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내가 처음 이 땅에 발붙이고 살던 그 시절과는 비교조차 안될 만큼 많이 발전하고 변화된 모습들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흑백사진과 디지털영상의 차이라고나 할까.

세월은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변화를 낳고 또 낳았다. 그 시절엔 자동차 구경하기도 힘들었고 시내버스도 없었다. 낮은 산지가 그대로 있어 오르막길이 많았다. 큰 재빠기, 작은 재빠기, 차돌고개 등. 도로는 거의 비포장인데다 자갈길이어서 하이힐이 수난을 당하기 일쑤였다.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는 기껏해야 다방이나 빵집이었고 그나마 가난한 연인들은 재건데이트를 즐겼다. 돈 안 들이는 건전하고 경제적인 데이트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적한 길 따라 마냥 걷는 것도 그런대로 낭만은 있었다. 천안의 유일한 포장도로였던 국도1호선을 따라 한없이 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옆 사람은 가고 없으니 인생무상이란 말이 뻗속 깊이 사무친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여름밤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던 논밭이 있던 자리, 어디쯤이었나 어림잡을 수도 없을 만큼 변해 버렸고, 푸르던 산자락도 땅속으로 꺼져버린 듯 자취를 감췄다. 아파트촌으로 개발되면서 화려하게 변신한 그이의 고향 옛길이 생각한다. 옹기종기 아담한 초가집들이 터를 잡은 작은 동네를 내려다보며 솔밭사이로 실땀 같은

오솔길을 내준 나지막한 산이 있었다. 그 언덕을 넘어 시내로 나오려면 시오리 길을 걸어야만 했다. 이른 아침, 출근시간에 대기 위해 덜컹 덜컹 도로의 심술에도 아랑곳없이 자전거 뒤편무늬는 내 자리였다. 순탄한 길은 아니지만 힘껏 페달을 밟으며 앞으로 썩썩 달리는 믿음직스런 그이의 등 뒤에서 동행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세월의 뒤안길로 사라진 길이지만, 내 인생의 지도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추억의 옛길로 존재한다.

먼 길을 걸어야하는 퇴근길에는 때때로 복에 겨운 호강도 했다. 오르막길이 나타나면 듩직한 등을 내 주며 어부바 하잔다. 혼자 오르기도 버거운 언덕배기를 흑기사처럼 거뜬히 넘는 그였다. 그 안락감이란, 어릴 적 엄마의 등에 업히면 세상을 손에 넣은 듯 넉넉하고 안온했던 것처럼, 따스하게 전해지는 체온이 하루의 피로를 걷어가고도 남았다.

이렇게 먼 기억에서부터 나의 역사가 지층처럼 쌓여 함께 흐르고 내 아이들의 고향이 된 인연의 땅, 천안! 사랑과 눈물, 한숨과 기쁨이 곳곳에 묻혀 있는 추억의 땅 천안.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제2의 고향이기에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늘, 땅, 사람들이다.

천안은 내 인생에 있어 시나브로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살려, 작은 꿈을 이루게 해준 영광의 땅이기도 하다. 그동안 삶에 파묻혀 차마 고개 들지 못했던 오랜 소망이 하나 있었다. 숨 가쁘게 달려온 내 인생의 한 모퉁이라도 떼어내어, 조각칼로 다듬듯 아름다운 글로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 다행히도 늘그막에 수필과의 귀한 인연을 맺게

되었고, 존경하는 선배 문우님들의 가르침과 마음을 쉬을 수 있는 교류 또한 신선한 삶의 비타민이 되고 있다. 힘없는 작은 새가 창공을 향해 힘껏 날개 짓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사람들과의 만남, 이 고마운 인연으로 해서 내 삶의 가치는 더욱 성숙해지리라 믿는다.

내 인생의 설계도에는 천안이라는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리도록 진즉 계획되어 있었던 게 아닐까? 꽃다운 청춘기에서 황혼의 내리막길에 이르도록 이 땅의 지기를 먹고, 이 하늘을 호흡하며,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니 말이다. 살며 부대끼며 곱삭은 나이만큼 세월도 이 땅에서 함께 익어갔으리.

‘하늘 아래 편안한 곳’ ‘하늘까지도 편안한 땅’ 이런 지명 풀이에 천안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한다. 천재지변도 알아서 비켜 가는 곳, 천혜의 땅이기에 이 삶의 터전을 축복으로 알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더 빛나는 땅으로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리라.

〈천안문학 44집, 2007〉

김순자 | 천안문학 신인상
‘수필과 비평’ 신인상
천안수필문학회 회원
천안문인협회 회원
공저 수필집 「시냇물은 산빛을 실어나르고, 외

서당골 장마

| 문 세 희

서당골 장마는 계절을 잃어버린 들녘에서부터 시작된다. ‘택지개 밭지구’라는 이름을 달고 낫선 길을 가게 된 숨 가쁜 땅 위에 비가 내린다.

들판을 가로 질러 비포장도로를 오가던 차량들도, 오만한 기계가 평온을 무너뜨리며 지축을 흔들던 시간도 비 앞에서는 멈추어 섰다. 먼지와 소음에 숨 막히는 나날을 보내야만 했던 들판도 차분히 비에 스며들고, 죽기 전에는 절대 떠날 수 없노라 항변하던 붉은 깃발도 비 앞에서는 순응하는 눈빛이다.

비는 이내 강도를 달리해 삼시간에 주위를 온통 황토 빛으로 물들이고 만다. 고집 아닌 고집도 물 건너가고 단절 아닌 단절의 세상이 되 어버린 지금 고립된 할머니가 스러져 가는 집 창밖으로 근심을 피워 올리며 하염없이 비를 바라보는 모습이 측은하다.

어느새 빗물은 언덕을 달려 실개천으로 향하고 너저분한 세상 것들을 단숨에 쓸어 강으로 바다로 달리기 시작한다. 모든 것을 일순간에

삼킨 시뻘건 황톳물에 겁 없는 백로는 먹이 찾기에 목숨을 걸고 이 비에 무엇을 찾아 나섰는지 어미 개 한 마리 흠뻑 젖은 몸을 털며 터덜터덜 지나간다.

퍼붓던 비 잠깐 그친 산, 이쪽과 저쪽 능선에 걸친 구름, 인왕제색도를 떠올린다.

비 갠 인왕산을 그렸다 했었지. 문^文만을 숭상하던 그 시대에도 결코 환쟁이의 수치를 감추지 않았던 환상적인 산수화. 비 그친 실경산수에 진경산수의 옛 그림이 교차되며 꿈과 현실을 동시에 맞본다. 여기저기 상처로 가득한 폐허의 땅 위에 비는 잠시 그리움을 선사한다.

비는 곧 추억이고 그리움이다.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 어머니는 오랜만에 낮잠을 주무시고 비에 갈 곳 없는 아이들은 대청마루에서 구슬치기를 한다. ‘애들아 조용히 놀아라. 애들아 조용히 놀아라.’ 반복되는 어머니의 타이름에도 시끄러움을 멈추지 못하는 아이들, 어머니가 들고 나온 빗자루에 즐거움은 이내 잦아들고 잠을 뒤척이던 어머니도 그만 잠을 접고 소침해진 아이들을 위해 텃밭에 나가 부추와 호박, 풋고추를 따서는 부침개를 해주곤 하였다. 그 고소한 냄새가 골목길에 번져 길 가던 사람들을 하나 둘 불러들이면 집은 이내 가난한 잔치집이 되곤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의 지붕 위로 장맛비는 계속되고 지친 사람들은 힘겨운 삶을 폭우에 씻어내려는 듯 날선 목청을 돋우기 시작한다. 기와지붕 물받이로 흘러내리던 폭포소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드시

고 다투는 소리, 어디선가 와르르 돌담 무너지는 소리, 짹짹 10원 내기 화투치는 소리, 개울 건너 아저씨가 도랑에서 잡은 추어탕 끓는 소리, 불어난 물에 떠내려간다는 생각도 못하는 아이가 물살에 드러난 예쁜 돌을 주우며 저물도록 소꿉놀이하는 소리, 모두 내가 자란 우중농촌의 아련한 추억이다.

창 밖에 손을 내밀어 빗방울을 헤아린다. 거기 희미한 옛 추억이 빗속에 아른거린다.

퍼붓는 빗속에서도 능소화, 백일홍, 도라지, 호박꽃들 수련수련 피어난다. 더러는 비를 견디지 못해 일찍 목숨을 놓아버리고 더러는 끝까지 살아남아 소중한 열매를 남긴다.

추억이 없다는 것, 그리움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학원을 향하는 내 아이는 훗날 어떤 추억을 지니게 될까?

고부라진 허리에 우산을 쓰고 가는 저 할머니도 어찌면 비 내리는 날의 풍경을 더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비 내리는 날 한 자락 추억을 떠올리는 것은 끝없이 젖기만 하는 삶에 보송보송한 건조다.

〈천안문학 44집, 2007〉

문세희 | '수필과 비평'으로 등단
현대그룹 문예공모 수필 당선
천안수필문학회, 천안문인협회 회원
공저 수필집 「첼로의 선율을 타고」 외

만일사 외 1편

| 김 다 원

이제야 희미하던 기억이 살아난다. 그땐 여름이 한참 지나고 있었고 지금은 온통 짙은 가을이 사방에 널렸다.

저수지를 돌아서면 맑은 계곡 물이 흐르는 산자락이 나왔다. 시원한 물에 손을 씻으며 더위를 잠시 버리고 다시 힘을 내었다. 산이나 강, 들에 들어서면 어린 날들의 노래가 제격이다. 눈이 먼저 노래를 하고 입은 이리저리 구경하며 텀스로 소리를 낸다. 잠자리를 따라 쫓다가 넘어질 듯 하는 아이를 번쩍 안아 일으켜 긴 바지를 걷어 올려주며 팔다리를 크게 올려 걸었다. 장대비에 큰물이 났음을 알려 주듯이 여기저기 길이 상처를 입었다. 거의 다 오른 듯싶었는데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너럭바위를 타고 적당히 길 잡아 오를 때 바위 빛 뱀이 삼시간에 스쳐 지나갔다. 꿈같은 순간이 사실인가 확인하고 싶어 한참을 조심했던 길이다. 검은 물뱀, 개구리 잡아먹고 목 아래가 불룩하던 숲속의 뱀, 진초록 알록달록 처연히 아름답던 꽃뱀, 아기 팔뚝만큼 굵던 구렁이 등 여러 뱀을 보았지만 말간 회색빛의 뱀은 처음이었다.

그 길, 10년 전의 길을 간다. 비얇진 돌투성이 길이지만 발이 가볍다. 배를 움켜쥐는 웃음도 있고, 마음 터놓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 감사하다. 보랏빛 구절초가 하늘거리고, 상수리 꺾뎀기 널러있는 길,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심산유곡에의 그늘에서 잘 자라지 못한 코스모스 한 송이 안쓰럽게 피었다.

이번이 두 번째 행보이니 길이 익다. 산 중턱에 별장이 있다하기에 숲 사이로 고갯 디밀었더니 실망이다. 그러나 적당히 낡음이 덜 인위적이고 부담이 적어 좋다. 세상 바람 맛을 못 본 사회 초년생보다 적당히 주름지고 뿌연 세월이 허리를 두른 이들의 너털웃음이 편안하듯, 조금 낡고 조금 덜 호화로운 별장이 만만한 것이다.

강산이 그 새 변했구나 싶다. 오르는 길에 시멘트 포장에 섞여 있다. 아마 장마 때마다 고초를 겪기에 피해가 심한 곳은 인공의 힘을 빌렸나 보다.

목전의 만일사는 변장이 심하다. 고개를 뒤로 젖혀야 할 만큼 가파른 꼭대기에 빠끔 건물이 보인다. 돼지우리인가?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꿇어가면서 마지막 층계에 올라서면 입에서 휘파람 소리가 절로 난다. 한참을 서서 진정한 눈에 처음 들어온 곳은 아래에서 궁금했던 낡은 건물이다. 생각과는 달리 정갈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 고시공부를 하던 학생들의 거처였단다. 땀물에 바람만 가끔 앉았다가 갈 뿐.

그 동쪽에 야트막한 집 한 채가 있다.

노 보살이 기거하는 살림집이다. 열린 정지문으로 부엌살림이 조금

씩 들어온다. 시렁엔 사기 보시기가 저마다 윤을 내며 궁둥이 붙이고 앉아 있다. 돌아가신 큰어머님 댁 부엌이 생각난다. 검정 무쇠 솥이 어두운 부엌에서도 유난히 빛이 났다. 푸짐하게 김이 오른 뒤 솥뚜껑을 열면 자욱한 김 속에서 주먹만 한 뚝배기 서넛이 밥을 가운데 두고 둘러 앉아 정담을 나누고 있었다.

일석이조의 지혜로 따뜻한 밥과 계란찜, 새우젓찌개, 김치찌개가 함께 요리되어 나왔다. 장작불이 스러지는 아궁이에서 김을 구워 상을 차리면 최고의 겨울 밥상이 만들어졌다.

잠시 머물던 정지 넘어 뒤란이 보인다. 넓은 바위가 무릎인양 장독이 얹혀있다. 바위에도 장독 뚜껑에도 아가 색동옷 색깔의 고추가 널려있다. 햇살이 곱게 퍼진 마루 한 쪽에 보자기만한 종이 위에도 바삭마른 고추가 한주먹 있다. 먼지 하나도 비칠 만큼 색이 곱고 많다. 손에 들고 흔들면 맑은 방울 소리가 날 것 같다. 할머니 보살의 말간 얼굴과 잘 어울린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니 병풍처럼 둘러쳐진 성거산 꼭대기 바로 밑에 만일사 절 한 채. 사위는 너무 적막하여 주절대고 올라온 우리가 오히려 머쓱하고 미안했다. 할머니 보살께 물 한 모금 청했더니 우물 뚜껑을 열고 물 한 바가지 떠서 직접 따라 주신다. 조롱박이 어울릴 것 같으나 애석하게 플라스틱 바가지였다. 이 높은 꼭대기에도 샘 솟는 물이 있어 자연을 경외하게 한다. 내 고향 동네 배미산 밑에도 절로 넘쳐흐르는 웅달샘이 두 곳 있었다. 청정한 그 물은 퍼내도 퍼내도 갈하지 않은 어머니 사랑같이 내 마음 속을 흘러 마른 마음을 적셔준다.

양 팔 벌린 정도의 넓이 층계가 둘, 부처님 모셔진 절이 오뚝이 같다. 넓게 자리 잡을 수 없는 공간 탓이었을까. 팔작지붕으로 가로 세로의 배치가 불안하다. 높은 곳에 홀로 서서 아래 사람을 호령하는 무인 같은 기개다. 푸근함이라든지 정겨움이 없다. 절 집에 눈이 오래 머물 기보다는 그 곁에 망연히 서 있는 노 보살에 눈이 더 간다. 깊은 눈 속에 고요와 평안과 세속을 벗음이 느껴진다.

절을 한 바퀴 돌다 뒤에 가보니 절에 올라다 남은 기와가 이끼와 함께 세월 속에 녹고 있다. 동글납작한 돌 위에 음식 찌꺼기를 놓아 산짐승이 뚫으로 보시한 흔적이 있다. 그래! 자연은 인간만의 것이 아니지.

5층 석탑 2개. 옛 것과 새것이 어우러져 함께 서 있다. 20여 년 전에 새로 쌓았다는 탑 둘레의 경계철책이 남아가고 있다. 그 동남쪽 한 자 쯤 위에 고려시대 쌓았다는 국보급 낡은 탑은 마름버짐인 양 더덕더덕 재색 이끼를 안고 있다. 낡아서 추해 보일 것 같은데 오히려 중후함과 푸근함이 느껴져 우리 어머니인 양 슬그머니 다가가 끌어안고 싶다.

할머니 보살이 한 걸음씩 물러나는 우리가 아쉬운 듯 주춤주춤 다가온다. 부처님이 학이 되어 부리로 마애불을 쪼다가 날이 저물어 날아가 미완성 마애불이 되었다는 이야기며 만일사의 명칭, 유래 등을 더듬더듬 힘겹게 들려주신다. “또들 오우” 합장하는 할머니 손을 더럭 잡고 싶어진다. 손은 커녕 얼른 얼굴을 돌리고 총총 걸음으로 돌층계를 먼저 내려온다. 어머니의 욕심 없이 사신 얼굴이 거기 있었고 자신을 위해선 항시 빈손이던 손이 그곳에 있었다.

공수래공수거! 할머니 보살을 둘러싼 성거산은 말하고 있었다. 눈물을 주체하려고 옆을 보니 돌담을 타고 만들어진 갈치 폭만큼의 땅에 배추가 나비인양 팔을 벌리고 당당하게 해와 마주하고 있다.

〈천안수필문학 동인지 9호, 2009〉

갯골 외숙모

꼭 걸어서 다녔다. ‘가래 울’ 우리 집에서 ‘돌다리’ 외가댁까지는 이십 리가 넘었다. 멀리 언덕에 우뚝 솟은 소나무 한 그루가 보이기 시작하면 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질게 드리워진 그늘에서 한동안 쉬었다가 일어나면 어려움이 덜어졌다. 솔잎 지천인 오솔길로 접어들면 더 위는커녕, 깊은 적막에 놀라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고 종종걸음으로 따랐다. 산자락 끝에 펼쳐진 긴 콩밭을 끼고 한참을 지나면 내리막길이 나온다. 그제야 띄엄띄엄 집이 보여 외가댁에 다 온 듯 마음이 놓였다.

외가댁 마을 이름이 ‘돌다리’, 원래 돌로 된 다리가 있었는지, ‘석교리’, ‘마교리’ 라고도 불렀다.

내가 살던 마을에선 여름 장마에 도랑을 흐르던 흙탕물이 전부였던 터라 외가댁 마을에서 처음으로 큰물을 보았다. 빠른 물살에 나뭇가지며 온갖 나부랭이들이 아우성치며 끌려갔다. 비가 그치면 냇가둑을 따라 이리 닫고 저리 닫으며 도도히 흐르는 물을 보는 것 또한 신나는 일이었다. 하늘이 맑게 개고 얼마 후면 신발과 옷가지가 널린 둑 아래에서는 까옥까옥 아이들 소리가 넘쳤다.

그 ‘돌다리’에서 가장 위풍당당하고 운치 있는 기와집이 외갓집이었다. 남향에 있는 솟을대문 오른쪽으로 사랑채가 있었다. 가끔 오가는 이들, 또는 동네 어른들이 널찍한 사랑채 마루에 둘러앉아 있던 모습이 넉넉한 마음인 양 보기 좋았다. 외갓집 안방에서 뒤란으로 향한 미닫이문을 열면 또 뒷마루가 있었다. 무릎에 턱 괴고 앉아 흐드러진 달리아며 봉숭아 붉은 꽃을 한동안 바라보다 보면 매미 소리가 꽃잎 끝을 흔들어 꾸벅 잠을 끌고 왔다.

그곳에 외숙모가 계셨다. 어머니의 올케시다. 어머니와 비슷한 어린 나이에 시집와 어머니와 즐겨 어울리셨다. 어머니가 결혼하신 후 가세가 빈궁하여 외숙모 옆으로 이사 오셨다. 아버지는 고향을 떠나 사업을 시작하셨고 집에 오실 때면 교통편이 좋지 않던 때라 자주 늦은 저녁에 도착하셨다. 으레 웃어른인 외숙모 집을 먼저 들르시면, 삭풍 한 설이건 삼복더위건 가리지 않고 언제나 따스한 밥상을 차려 내셨다는 외숙모다.

대산이 친정인 외숙모는 깃바람을 많이 쐬 탓인지 새신부가 가무잡잡했다. 신방에 앉아있는 신부를 보며 마을 아낙들이 수군댔다고 어머니는 추억하셨다. 외숙모는 신랑과 합방 한 번 못 해보고 평생을 사셨다. 신랑이 몹쓸 병에 걸려 어른들이 합방을 막으셨단다. 아내의 삶을 애석하게 생각한 신랑이 결혼 2년 후 개가를 유언으로 남기고 갔으나 그 집안 식구임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밝게 사셨다.

내가 예산 신암중학교에 근무할 때 정류소집 아주머니가 나를 알아

보고 은인 대하듯 하던 일이 있었다. 가족이 끼니를 자주 거르던 어릴 때였다. 이웃집 사정을 뻔히 알던 갓골 외숙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부엌일 조금 거들게 하고, 커다란 양푼에 밥을 수북하게 퍼주어 목숨을 잇게 해주셨다고 옛일을 회억했다.

어머니 혼자 오라버니를 기르며 밭일, 들일로 바쁘실 땐 자주 서너살 나이 오라버니를 발독에 혼자 놀게 하셨다. 외숙모는 얼른 당신 집으로 데려가 씻기고 밥을 먹인 후 저녁때가 되어 “석진이 집에 가” 하고 놀릴라치면 “석진이 집에 안 가”라고 대답했노라고, 외숙모 맥에서 그렇게 자랐노라고 어머니는 눈가의 눈물을 닦으셨다.

아버님 생신이 동짓달 스무 이튿날이셨다.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칠쯤인데 그런 때에도 외숙모는 거르는 법 없이 찾아오셨다. 다락 안 소쿠리의 흥시를 꺼내놓고 어머니와 두런두런 늦은 밤까지 이어지던 대화를 들으며 슬며시 잠이 들던 어린 날의 겨울도 행복했다.

외숙모는 부모 일찍 여윈 어린 조카딸 둘을 자식인 양 고이 길러 출가시키셨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만 보아도 얼굴 가득 미소부터 번지던 분이셨다. 이제 본향으로 가실 날이 가까이 오는 때, 양자한 아들 며느리의 지극한 효성으로 말년은 행복하시다. 어린아이인 양 부엌으로 방으로 며느리를 쫓아다니신단다. 세월을 접을 때가 가까워져 오는 것을 아셨는지 가끔 새댁 시절을 회상하시며 “그분은 이인異人이셨어.”라는 알 수 없는 마음을 드러내셨다.

인고의 여인, 유난히도 가르마가 반듯하고 윤기 나던 머리, 손자의

재롱에 파안대소하던 큰 입을 생각하면 어느새 내 입도 벌어진다. 외숙모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돌아가신 어머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대전으로 다이얼을 돌렸다. 간신히 집안에서만 운신하시는 외숙모께 건강은 어떠시냐고 묻다가 두 손으로 전화기만 잡고 있다. 어머니가 외숙모고 외숙모가 어머니인 양 항시 같이 떠오르던 분이셨다. 덩싹 외숙모 품에 안겨 어머니의 향기라도 맡고 싶은 마음에 말을 잊지 못하고 눈을 허공을 두고 있다.

〈천안수필문학 동인지 15호, 2015〉

김다원 | 수필과 비평 신인상
허난설헌 문학상, 지구문학상
천안수필문학회, 천안문인협회 회원
충남문인협회 이사
시집 「다원의 아침」 외



제5장



동 화

소중애

김월순

천안남산초등 아이들 외 1편

| 소 중 애

“이재훈 옆자리는 마강석이깐 비워 놓고.”

선생님의 말씀에 숨이 막혔다. 얼굴에서 열이 나고 손가락이 나도 모르게 책상을 토도독톡톡 쳐댔다. 내 곁을 선생님이 지나갔다. 선생님 뒤로 아이들의 눈동자가 와르르르 내게 몰렸다. 부러움. 시기. 질투.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눈빛은 둘째 쉬는 시간에 강석이가 바람처럼 들어와 내 옆 자리에 앉았을 때 번들거림으로 바뀌었다.

“강석아. 같은 반 되어서 반갑다야.”

“너 올해는 시합에서 뛰다면서?”

아이들이 몰려와 강석이 주위를 껍껍이 둘러쌌다. 옆자리에 앉았던 나는 아이들에게 놀려 다시금 숨이 막혔다. 그렇지만 나는 아이들을 밀쳐내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건 내 성격이다.

“88. 여기는 왜 이렇게 더워!”

소리를 지른 것은 강석이였다. 아이들이 움찔 물러섰다. 그 바람에 놀렸던 나는 편해졌다. 내 가슴은 쿵덕쿵덕 뛰었다. 강석이의 줄무늬 야구복 팔이 내 팔에 닿았다. 단단하고 건강한 강석이의 팔이였다.

강석이가 다시 욱했다.

“88.”

아이들이 와 소리를 지르며 웃었다. 욱을 이렇게 큰소리로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강석이 밖에 없을 것이다.

“너희들 알지? 4학년에 시합에 뛸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야.”

누군가 외쳤다.

“대단해. 대단하다고. 우리는 네가 자랑스러워.”

“우리 남산초등학교 명예는 네 손에 달렸어.”

“우리 반 명예도 네 손에 달렸어.”

“강석! 강석! 마강석!”

한 아이가 소리를 지르자 모두들 주먹 쥔 손을 올렸다내렸다하면서 마강석을 외쳐댔다. 강석이에게 닿은 오른쪽 팔을 죽어도 움직이기 싫은 나만 가만히 있었다.

그 때, 강석이가 날 돌아보며 씩 웃었다.

“88. 더워서 난 가야겠다.”

강석이는 바람처럼 휙 나가 버렸다.

마강석의 이름으로 짝 찼던 교실 안이 조용해졌다. 알 수 없는 멧쩍음과 허전함이 교실 안을 채웠다.

아이들이 흩어져 자리로 돌아갔다.

뒷자리에 앉은 성우가 내 머리를 톡 쳤다.

“강석이랑 짝이라고 짤 것 없어. 강석이가 이 의자에 앉은 것은 몇 번 안될테니깐.”

획 성우를 돌아봤다.

“뭘 봐. 선생님 들어오셨잖아.”

성우가 이번에는 등을 탁 쳤다.

애들은 왜 날 가만 놔두지 않을까? 나도 강석이처럼 인기가 있으면 좋으련만.

강석이는 글러브가 무거워 한 쪽 팔이 아래로 처지는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했다. 강석이는 유치원 재롱 잔치때 야구복을 입고 나와 공 던지는 모습과 방망이 휘두르는 앙징맞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강석이는 모르겠지만 그 때부터 강석이는 나의 친구였다.

학교에 들어와 같은 반이 된 적은 없었지만 먼 발치에서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3년을 지냈는데 강석이가 우리반이 된 것이다. 그 것도 내 짝으로 말이다.

학교에 일찍 가는 버릇이 생겼다.

“재훈이가 4학년 올라오더니 멋을 낸다.”

거울 앞에 서 있는 날 보고 아빠가 놀렸다.

“예쁜 여학생이 짝인 되었나보다. 어이구. 얼굴 빨개지는 것 봐라.”

“아무래도 수상하죠?”

엄마도 옆에서 맞장구 치셨다.

두 분이 놀리시거나 말거나 나는 집을 나와 학교를 향해 급한 걸음을 내딛었다. 교문을 들어서기도 전에 야구부 아이들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다.

“여기 여기로 던져.”

“뛰어 뛰어. 뭐하는거야. 빨리 뛰라고.”

“투수, 허리 더 숙여. 더 숙이란 말야.”

“화이팅. 남산. 으아아. 남산.”

코치의 고함소리와 선수들의 학교 이름 넣은 구호가 운동장에 차고 넘쳤다. 그들의 외침에 어깨가 흔들리고 발이 굴러졌다. 차가운 스탠드에 앉아 야구부 연습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내 즐거움었다.

강석이가 한쪽 귀퉁이에서 혼자 달리기 연습하는 것도 지켜보고 선배들 틈에서 야무지게 방망이를 휘두르며 연습 게임하는 것도 지켜보았다.

‘마강석 파이팅!’

내놓고 소리를 지르지는 못했지만 나는 언제나 강석이를 응원했다. 며칠 그러고 앉아 있으니 코치가 공 줍는 척 다가와 말을 걸었다.

“몇학년이냐?”

“4학년요.”

“키가 크네. 마강석만 하구나.”

‘내 친구예요.’

가슴 속에서 대답했다.

“너 야구 할래?”

우리 엄마가 들으면 기절 하실 말씀이다. 엄마에게 나는 학자였다.

“우리 재훈이는 천상 학자감야. 혼자 조용히 연구하는 것이 재 적성에 맞아.”

하면서 못을 박으셨는데 그건 내가 걸음마할 때부터 이것저것 다 시켜 보고 내린 결론이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생각있음 말 해. 내가 부모님 허락을 받아낼테니…”

코치가 뒤에서 소리쳤다.

강석이와 함께 야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강석이는 교실에 오는 날이 드물었다. 어쩌다 교실에 오기만 하면 아이들은 강석이에게 열광했다.

아이들은 작은 인형이나, 양징스러운 글로브가 매단 핸드폰 줄, 초콜릿 등을 갖다 줬다. 어떤 여자애는 자신이 수 놓은 십자수 책갈피를 주기도 했다. 강석이는 그런 것들을 무관심한 얼굴로 가방 속에 쓸어 넣거나 책상 속에 집어넣었다.

강석이가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어쩌다 교실에 들어오는 강석이는 준비물을 몰랐다. 난 준비물 한 벌을 더 준비해 가지고 다녔다. 그러나 언제나 눈치만 보다가 준비물을 건네주지 못했다.

5월.

강석이는 초등학교 야구 대회 연습으로 거의 교실에 오지 못했다.

“어머. 뭐야. 내가 준 책갈피가 여기있네!”

다혜가 강석이 책상 속에 무엇인가를 넣어 두려다가 3월에 자신이 정성껏 수 놓은 십자수 책갈피를 발견했다. 아이들이 다혜 주변에 몰려들었다.

“이건 내가 준 인형이잖아.”

“내가 준 핸드폰 줄도 그냥 있어.”

“초코렛.”

아이들 얼굴이 별칭게 달아올랐다. 나는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아

나나 다를까 아이들 입에서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야구 선수면 다냐? 우릴 무시하잖아.”

“남의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말도 안돼.”

분노는 금방 험담으로 바뀌었다.

“야, 사실 말이지. 내가 연습하는 걸 봤는데 말야. 강석이는 형편없어. 이번 시합에 못 펼걸.”

“5, 6학년 형들도 잔뜩 있는데 제가 무슨 재주로 시합에 나가.”

“나가긴 나가. 공 주으려.”

“하하하.”

이러면 안되는데……. 나는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책상에 엎드렸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오후에 나는 학원에 가지 않고 학교 뒷문어 길 건너 [꿈의 궁전]으로 갔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한명도 없었다. 주인 아줌마 혼자 양파 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떡볶이 주세요.”

떡볶이를 시켜 놓고 나는 강석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꿈의 궁전]은 강석이의 단골 분식집이다. 항상 이맘때면 이 곳으로 들어가는 강석이를 봤는데 오늘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떡볶이 떡이 굳어가고 있었다.

“누구, 기다리니?”

양파 때문에 눈물이 나는지 아줌마가 두 눈을 깜박이며 물었다. 우물쭈물 말을 고르는데 강석이가 들어왔다. 온몸이 흠으로 범벅이 되

었다.

“쫓쫓. 기합을 받았구나.”

아줌마가 혀를 차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석이가 내 앞 자리에 털썩 앉았다. 이를 악물어 양볼이 두툼한데 두 눈은 무섭게 번쩍였다. 강석이는 식탁에 머리를 대고 엎드렸다. 그 아이 어깨에 누군가 역세게 잡았던 흠손자국이 뚜렷했다.

가슴이 날카로운 것으로 찢리운 것처럼 아팠다.

어깨가 빠져라고 공을 던지고 또 던져야하는 아이. 치고 달리고, 달리고 뒹굴기를 수만번하는 아이. 혼나고 기합 받고.....

아이들은 그저 운동복 차림의 멋진 강석이만 좋아하는데 그건 정말 아니다.

아, 내게 용기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강석이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위로 할 텐데.....

“.....”

강석이가 머리를 번쩍 들었다. 사나웠던 눈빛이 사그러졌다.

“너 내 짝이지? 왜 울고 있지? 누가 괴롭혔니? 어떤 녀석인가 말 해. 내가 혼내줄게.”

나는 웃으려고 노력했다. 입술이 일그러지는 것이 느껴졌다. 눈물을 닦았다.

“양파 냄새때문에.....”

“아줌마. 나, 어묵 주세요.”

강석이가 소리쳤다. 그리고 내게 물었다.

“너 이름이 뭐니?”

나는 멍하니 강석이를 쳐다봤다. 유치원도 같이 다녔고 초등학교도 3년간 같이 다녔고 지금은 짝인데도 내 이름을 몰라? 거기다가 아파트 같은 동에서 사는데 말이다. 그 아이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억울했고 내 이름도 모르는 그 아이에게 무지하게 화가 났다. 분통이 터졌다. 어디서 용기가 났을까 나는 강석이에게 대들었다.

“너 그럼 안돼. 알려 주려고 왔어. 우리 반 애들이 너 때문에 모두 화났어. 친구들이 준 선물을 책상 속에 버려두고, 제 짝 이름도 모르고.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니?”

강석이가 킁킁 웃었다.

“재훈이 짜식, 많이 컸다.”

맥이 탁 풀렸다. 아줌마가 수저 두개와 어묵을 가져다 냈다.

“아무렴 내가 네 이름을 모르겠냐? 내가 널 얼마나 부러워한다고.”

강석이가 날 부러워한다고? 헛! 별 말을 다 듣겠네.

“그런데 널 보면 참 답답해. 너처럼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애가 왜 애들하고 못 어울릴까하고 말야.”

사둔 남 말하고 있네. 또 대들었다.

“넌 인기도 좋은 애가 왜 친구들을 속상하게 하는데?”

강석이는 손으로 앞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런 작은 동작 하나도 강석이는 멋있었다. 그런데 얼굴은 어두웠다. 강석이는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 내가 유치원 때부터 야구 한 것 알지?”

“알아.”

“난 어른들이나 선배들하고만 놀았기 때문에 내 또래랑 어떻게 노

는지 몰라. 공부를 제대로 안해서 애들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 난 내 또래 애들과 같이 있으면 바보가 된 기분이
들어. 불안하고 겁이 나.”

천하의 강석이가 겁이 난다고?

“나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 같아. 발을 구르지 않으면 넘어져. 아
무리 어려워도 야구를 계속 할 수 밖에 없어. 야구로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 것도 아냐.”

강석이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며 고개를 숙였다.

“야구 밖에는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일도 없어.”

‘불쌍하다!’

나는 어묵 꼬치를 그릇 가에 대고 주욱 잡아 당겼다. 어묵이 대접
속으로 빠졌다.

“공부가 문제라면 내가 도와 줄 수 있는데…….”

큰 용기를 내어 말했다. 강석이가 고개를 들고 날 쳐다봤다. 그리고
웃었다. 가지런한 이가 멋있었다.

“고맙다.”

강석이는 크고 두툼한 손으로 내 어깨를 탁 쳤다.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교장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거야. 가야
겠다. 늦으면 코치에게 혼나거든.”

학교 뒷문 가까이에 있는 타석과 마주 보고 있는 2층 교장실까지의
거리는 꽤 멀다. 우리 학교 야구부에서는 교장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데 상품이 걸려있다. 상품도 상품이지만 공을 쳐서 교장실 유리창을
깨뜨린다면 그 선수는 한방에 우리 학교 영웅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

그런 영웅은 나오지 않았지만…….

“반 애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해 줘. 나도 알고 보면 좋은 놈이라고 말해 줘.”

강석이는 아줌마에게 오천원짜리 한 장을 주고 밖으로 뛰어 나갔다.

“너, 강석이랑 친구니?”

아줌마가 내게 거스름 돈을 건네주었다.

“강석이에게 이 돈 좀 전해줘. 쟀 참 이상해 항상 거스름 돈을 안 챙겨간단말야.”

강석이는 거스름돈 계산을 할 줄 모르는 것 아닐까? 설마 … 그런 데도 가슴이 찌르르 아팠다.

[꿈의 궁전]을 나와 학교를 건너다 봤다.

선수들이 구호를 외치며 운동장을 돌고 있었다. 운동장 건너 까마득한 교장실 유리창이 넘어가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강석아, 너라면 할 수 있어. 꼭 교장실 유리창을 깨뜨려라.”

강석이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믿는다.

“나도 노력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귈게.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 너는 내 친구니깐 내 친구는 다 네 친구가 되는 거야.”

강석을 믿듯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유리창 깨뜨리는 것과 친구 사귀는 것으로 내기를 해도 좋을 것이다.

햇불낭자 유관순

외교권을 빼앗기다

1905년 11월 18일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특사로 조선에 파견, 을사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을사조약은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주는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독립국이 아닌 일본의 보호국이 된 것입니다.

이름도 ‘조선’이라 바꾸었습니다. 조선왕조를 잇자는 뜻이 아니라 ‘이씨조선’이라는 씨족 국가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불손한 계책이었습니다.

을사조약은 하세가와가 지휘하는 일본군이 궁궐 안과 밖을 물샴틈 없이 둘러싸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민족에게 비밀로 부쳐졌으나 11월 20일 황성신문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2천만 동포는 분노했습니다. 조약체결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팔도강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종무관장 민영환은 고종 황제와 2천만 동포에게 남기는 유서를 써 놓고 할복자살을 했으며 그를 따라 자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농부 율태근은 이토 히로부미가 탄 열차에 돌을 던져 얼굴에 부상

을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곳곳에서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공부를 하던 유생도, 농사짓던 농부도 들고 일어나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웠습니다.

민중식은 홍주성을 공격하였고 최익현, 이병찬은 전라도에서 싸웠으며 평민출신 의병대장 신돌석은 태백산 일대에서 싸워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고종 황제는 을사조약의 억울함을 국제기구에 호소하기 위해 미국으로 여러 차례 밀사를 보냈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907년 6월 15일 만국평화회의가 헤이그에서 열렸습니다.

일제의 침략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고종 황제의 신임장을 갖고 이상설, 이준, 이위종이 헤이그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식 대표단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본회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분할 수가 있는가? 일제의 침략을 알리는 방법이 없나니…….”

분을 못 이긴 이준은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그어 자살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경운궁으로 달려가 고종 황제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일파 각료들을 시켜 어전회의에서 고종 황제를 협박했으며 애국지사가 궁궐 출입을 하지 못 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헤이그 밀사사건을 구실삼아 일제는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고종 황제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우리 민족을 억압한 원흉 이토 히로부미는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의 총에 사살당했습니다.

새로 온 총독 데라우치는 1910년 8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합병조약 체결을 발표하였습니다. 경찰권 사법 및 감옥사무도 일본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신문사를 강제로 접수하여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았으며 곳곳에 일장기가 내걸렸습니다.

2천만 국민들은 울분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충효의 집안에서 태어나다

나라가 한참 어려운 시절에 유관순을 태어났습니다. 1902년 3월 15일(호적에는 1902년 11월 17일로 되어 있음)에 태어난 관순이는 아버지 유중권 씨와 어머니 이소제 씨 사이의 3남 2녀 중 셋째 딸이었습니다.

관순이가 태어난 충청도 천안 아우내는 높고 낮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것입니다. 높고 낮은 산에서 흘러 내려온 맑은 물이 모여 내를 이루는 곳이라서 붙여진 이름이 병천, 순수한 우리말로 아우내였습니다.

아우내는 천안, 전의, 조치원, 진천 등지와는 40여 리(16km)의 거리로 사람들이 하룻밤 걸어 이곳 장에 오곤 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본래 고집이 세고 강직하여 옛부터 많은 충신열사가 나왔습니다.

관순이네는 대대로 충효의 집안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관순이의 증조부 유명일의 이야기는 유명했습니다.

유영일이 8살 때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병이 났는데 꿩고기를 먹고 싶어 하셨습니다.

“꿩을 잡아 와 어머니의 병환을 낫도록 해야지.”

유영일은 8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눈 덮인 산으로 꿩을 잡으러 갔습니다.

유영일은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꿩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몇날 며칠을 헤매고 다녔지만 꿩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유영일이 낙심하고 있을 때 이웃 마을 사창에 사는 포수 정씨에게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지령리에 사는 효자 유 도령에게 꿩을 한 마리 갖다 주도록 해라.”

잠에서 깬 정 포수는 이상하게 생각하여 지령리 유영일을 찾아왔습니다.

유영일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난 정 포수는 감동하였습니다.

“도령님의 그 지극한 정성에 산신령님이 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꿩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정 포수는 그 날 해가 저물기도 전에 꿩을 잡아왔습니다. 정 포수가 잡아 온 꿩을 먹고 어머니의 병이 나았습니다.

“산신령님도 감동하신 효심이야.”

마을 사람들은 유영일의 효성을 칭찬하였습니다. 관순네는 ‘효’ 뿐만 아니라 ‘충’ 의 집안이기도 했습니다.

의병대장이었던 유인석(유린석)은 관순이와 10촌뻘이 됩니다. 유인석은 의병 총대장으로 일본군과 용맹스럽게 싸웠습니다.

의병들은 유인석의 용맹무쌍한 전투에 힘을 얻었고 일본군들은 그

의 이름만 듣고도 벌벌 떨었습니다.

유인석은 본래 선비였으나 명성황후가 일본군에게 살해당하자 붓을 쥐고 싸움터로 뛰어 나왔습니다.

의병들은 훈련도 부족하고 무기도 일본에 비하여 형편없는 구식이었지만 유인석의 뒤를 따라 죽기살기로 싸웠습니다.

고종 황제는 그에게 정남대도독이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유인석은 너무 감격하여 구월산이 울리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유인석은 황제의 격려를 받고 강원, 경기, 함경, 황해, 평안 등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당한 봉변에 분노하다

충효의 집안 후손답게 관순이도 효심이 지극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마을 사람에게 의해 업혀 왔습니다.

어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관순이는 아버지가 크게 봉변을 당했고 다쳤다는 것을 눈치로 알았습니다.

집안에는 슬프고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관순이는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난 괜찮으니 나가 놀도록 해라.”

아버지가 말했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관순이는 어른들이 주고 받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다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라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나라의 기둥을 될 젊은이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쳐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흥호학교였습니다. 초등과와 고등과를 두어 젊은이들을 모아 신학문을 가르쳤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모두들 먹고 살기도 어려운 요즘에 여유있는 돈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일본인이라면 몰라도.”

아버지는 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어머니는 걱정했습니다.

“일본인 돈이라지만 우리나라 사람에게 착취한 돈이니 그 돈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앞날을 위해 해볼만한 일이지.”

아버지는 아우네 장터에 살고 있는 일본인 고마도에게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고마도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가축이나 땅을 빼앗아가기로 이름이 나 있는 고리대금업자였습니다.

“유 선생님이 나에게 와 돈을 꾸다니 영광입니다.”

고마도는 음흉한 웃음으로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불쾌한 기분을 감추며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 선생님이 필요하다면 돈을 이자없이 꾸 드리겠습니다. 염려 말고 갓다 쓰세요.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선생님이 돈이 필요하다는데 당연히 꾸 드려야죠.”

어쩐 일인지 고마도는 이자없이 돈을 선뜻 꾸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불안하였지만 급한 나머지 돈 300량을 썼습니다.

그 뒤 아버지는 고마도의 돈을 꺼림칙하게 생각해 갚으려고 노력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돈 갚는 날짜는 몇 번 어기자 고마도는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의 지식인이 남의 돈을 떼어먹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조선인들이 이렇게 파렴치하고 몰상식하니 나라를 빼앗긴 것이다.”

욕을 해댔습니다.

말도 못할 모욕을 당한 아버지는 서둘러 돈을 마련해 가지고 고마도를 찾아갔습니다.

“자, 여기 꺾 간 돈 300량 있소.”

아버지가 돈을 갚자 고마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월금만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 그 동안의 이자와 그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 해서 3,000량을 갚아라.”

아버지는 아차, 돈을 잘못 썼구나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 없이 날뛰는 일본인의 횡포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이런 횡포를 저지르고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아버지는 증서를 빼앗아 박박 찢어 버리고 가져간 돈 300량을 내던졌습니다.

“그것밖에 없으니 받으려면 받고 맘대로 해라.”

아버지가 고마도 집을 나서는데 아우네 사는 일본인들이 몰려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남의 돈을 썼으면 이자를 갚아야지. 어디서 행패냐?”

“그동안 애들 교육시킨다고 거들먹거리는 꼴이 맘에 안 들었는데 잘 만났다.”

일본인들은 우르르 달려들어 아버지를 꼼짝 못하도록 붙잡았습니다. 몸부림을 쳐 봤지만 혼자 힘으로 여럿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아버지를 우물로 끌고 가 거꾸로 매달고 얼굴에 찬물을 부었습니다. 찬물이 코와 입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이 놈들아, 당장 내려놓지 못하겠느냐?”

몸부림치던 아버지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당한 기막힌 사연을 알게 된 관순이는 눈물을 떨구며 이를 갈았습니다.

“나쁜 놈들, 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관순이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못살게 굴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굶주림에 허덕이게 하는 일본인들을 이 땅에 몰아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는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관순이가 무슨 일을 저지를까 걱정했습니다.

“어른들의 일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하거라.”

관순이는 어머니의 말씀을 새겨들었습니다. 일본인들과 싸우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다

관순이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 개를 터득하는 영특함과 하고자 하는 일은 끝까지 해내고 마는 의지력이 있었습니다.

“관순이는 놀라운 재능이 있는 아이입니다.”

예배 드리러 매봉교회에 오기만 하면 서양인 선교사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관순이를 공주로 보내세요. 우리가 열심히 가르칠게요.”

아버지도 딸에게 좀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어 어머니와 상의했습니다.

“관순이를 공주로 보내 공부를 계속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좋지요. 관옥이와 예도가 공주에 있으니 같이 공부하면 의지가 되고 좋을 거예요.”

어머니도 찬성했습니다.

오빠 관옥이와 작은아버지 유중무 씨의 딸 예도는 공주에 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관순이 부모의 뜻을 마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 했습니다.

“거 뭐, 여자애를 객지까지 보내 교육시켜요. 그냥 데리고 있다가 시집 보내면 되지.”

여자가 교육을 많이 받아 뭐하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때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 가는 판국에 당장 총 들고 싸워도 모자란데 한가롭게 학교나 세우고 교육을 시켜서야 되겠느냐?”

하고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육은 힘이지. 여자도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해. 관순이는 총명하고 의지력이 강한 애니깐 좋은 인재가 될 거야.”

아버지의 뜻에 찬성한 사람은 조인원 속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조병옥은 관옥이가 다니는 공주 영명학교를 거쳐 평양 승실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의 와이오밍 고등학교에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조병옥은 교육의 중요함을 일찍이 깨닫고 앞서갔던 아버지 덕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독립운동을 했으며 광복 후 대통령을 도와 국가발전에 커다란 공을 세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관순이를 공주로 보낼 결심을 하였습니다.

관순이는 공주에 가서 좀더 공부하게 되어 기뻐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농삿일도 바쁘신데 관복이, 관석이를 누가 돌봐요.”

“걱정하지 말아라. 가서 선생님을 말씀 잘 듣고 공부 잘 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야.”

옷을 챙겨주면서 어머니는 관순이의 걱정을 웃음으로 묵살했습니다.

“관순이는 작은아버지와 속장님께 인사하고 오너라.”

아버지 말씀에 관순이는 먼저 매봉교회로 뛰어갔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아픔을 달래며

1900년대 초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기독교를 전파시켰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아픔과 혼란을 사람들은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교회를 찾았습니다.

“충청도에도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양반의 고장이라서 반대가 클 것입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다른 고장보다 더 많은 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결정을 하고 1903년에 공주에서 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가깝게는 40리^(16km) 멀게는 80^(32km) 밖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신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관순이와 먼 친척인 유빈기 씨는 글공부를 하다가 나라 일이 걱정되어 마음을 잡지 못하고 집을 떠나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공주에서 서양인 선교사 기이브를 만나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지껏은 나라를 잃고 방황하던 방랑자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로 내 길을 가겠습니다.”

유빈기 씨는 충청도 여기저기 전도를 다니며 신앙심을 키워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이브 선교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내 고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기이브 선교사는 대찬성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유빈기 씨는 기이브와 여선교사 케이블 부인과 함께 고향인 천안

아우내로 왔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 첫 예배가 있던 날, 아우내에는 백여 명의 사람들의 모였습니다. 서양인에 대한 호기심과 우리나라를 걱정해 주고 기도해 주는 선교사들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 서양인 선교사의 전도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그 중에는 관순이 아버지인 유중권 씨와 조인원 속장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빈기 씨의 도움을 받아 1908년에 매봉교회를 지었습니다.

관순이 작은아버지 유중무 씨는 선교사가 오지 않을 때는 예배를 올리기도 하고 신자들 집에 심방 가는 일도 하는 대리 목사로 대부분의 시간을 매봉교회에서 지냈습니다.

매봉교회에 가 작은아버지 유중무 씨에게 인사를 하고 난 관순이는 조인원 속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관순이 오늘 공주에 간다고?”

뜰에 있던 조인원 속장의 아들 조병호가 반겼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몸이 크고 서글서글한 성격의 조병호는 후에 독립만세를 같이 부른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속장님께 인사 올리러 왔어요.”

관순이는 방으로 들어가 조인원 속장 부부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느님과 나라를 위해 보탬이 되거라.”

“예.”

조인원 속장은 어려울 때 쓰라고 돈을 주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관순이는 흥호학교 김구응 선생님과 그의 어머니인 채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채씨 할머니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관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공주에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거라.”

공주에 가는 것을 알고 있는 김구응 선생님은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젊은 김구응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형님처럼 다정했습니다.

선생님은 내일을 짊어질 젊은이들을 바르게 키워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김구응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관순이는 나중에 나를 위해 한 몫을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영특하거든요.”

관순이와 헤어져 걸으면서 김구응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냐? 본래 관순네 유씨들이 충효집안이지. 피는 못 속인단니깐.”

채씨 할머니는 관순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공주 영명여학교를 거쳐 이화학당으로 가다

관순이는 공주 옥룡동에 있는 영명여학교(명선여학당)에 입학하였습니다.

영명여학교 선교사 사에리시(Mrs Slise H.Sharp)가 1905년에 세운 초가집 학교로 두 명의 학생과 허조셉 선생님 한 분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충남 지역의 첫 신식 교육이었습니다. 영명여학교는 처음 시작은 보잘 것 없는 규모로 출발했지만 관순이가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제법 학교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할 때여서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당국에 등록까지 한 큰 학교가 2,250개가 되었습니다. 등록 안 된 작은 규모의 학교까지 헤아리면 56,000개나 되었으니 대단한 숫자였습니다.

유빈기 씨는 공주에 와 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교회 서적과 일반서적 그리고 학교 교과서를 취급하는 북음서관을 개관하였으니 공주 최초의 서점이었습니다.

“너는 자랑스러운 백제의 후예이며 대한의 딸임을 잊지 말아라.”

유빈기 씨는 관순이를 볼 때마다 강조하였습니다.

사촌언니 예도가 서울 이화학당으로 갔습니다. 의지하고 있던 언니와 헤어졌지만 관순이는 꾀꿀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명랑쾌활하고 부지런하고 공부 잘 하는 관순이는 선교사들의 귀염둥이였습니다.

관순이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여 모든 것이 다 특출났습니다.

“관순이는 좀더 큰 학교에 가서 공부를 많이많이 해야 해요.”

사부인(사에리시)은 관순이를 볼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사부인은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에 관순이를 추천하여 입학허가를 받았습니니다. 사부인은 자기 일같이 기뻐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많이 배우고 하느님과 조국을 위해 큰 재목이 되세요.”

관순이는 1916년 13살 되는 해에 이화학당 보통과 3년에 입학했습니다.

“관순이는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입니다. 장학금을 주세요.”

사부인이 이화학당 프라이 교장에게 부탁을 해 장학금을 받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화학당은 1886년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M.A 스크린튼 부인에 의하여 서울 서대문구에 세워졌습니다. 명성황후가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이 학교는 후에 이화여자여고가 되어 많은 여성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화학당의 메인홀은 1900년에 세워졌는데 이 안에는 강당, 선교사 숙소, 기숙사, 부엌, 식당, 세탁실, 기도실 등이 있었으며 기도실은 항상 열려 있어 누구나 자유스럽게 들어가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관순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고향의 가족들을 위해, 선교사와 친구들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관순이는 기도했습니다. 이화학당에서 관순이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은 별명이 있으니 청소 잘 하고 빨래 잘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관순이를 가르친 선생님들

이층 벽돌집으로 되어 있는 기숙사에는 30여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한 개의 방에는 5~6명의 학생이 함께 생활하였는데 나이 많은 학생이 반장으로 ‘큰언니’라 불렸습니다.

막내인 관순이는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침마다 침구 정리와 청소를 맡아했습니다. 남자 형제들에서 엄마를 도와 집안 일을 맡아했던 관순이에게 부지런함은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동생에게만 일을 시키니 미안하잖아. 우리 침구는 우리가 정리할게.”

언니들이 미안하다 하면 관순이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하니 고마운 일이잖아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그래요.”

언니들이 옷을 벗어 놓으면 재빨리 가져다 빨아 널었습니다.

“이렇게 더운 물이 콧물 나오고 비누도 있어 저는 빨래하는 것이 좋아요.”

날씨가 따뜻하면 학교 안 우물에서 빨래를 하고 겨울이면 더운 물 나오는 세탁실에는 빨래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구경하기도 어려운 서양 비누가 있어 기분 좋은 빨래시간이라고 관순이는 웃었습니다.

늦가을이면 기숙사에서는 김장을 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겨우내 먹을 김치라서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모두들 우물가와 나와 배추를 나르고 씻고 소금에 절였다가 버무려 넣은 작업은 큰 행사였습니다. 김장을 담글 때도 관순이는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담근 김치는 익혔다가 겨우내 먹었습니다. 기숙사 식당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잠곡밥에 김치 그리고 몇 가지의 밑반찬에 일주일에 한 번은 소고기국을 주었습니다.

기숙사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면 한 달에 식비를 10원씩 내야 했습니다. 가난한 친구가 식비를 내지 못해 굶는 것을 보고 관순이는 대신 돈을 내 주고 자신은 굶은 적도 있었습니다.

일요일만 되면 이화학당 여학생들은 줄을 지어 정동교회로 예배를 보러 갔습니다. 여학생들은 걸어가면서 소근소근 재잘재잘 떠들다가 간혹은 웃음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난 손정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가슴 속에서 불 같은 것이 솟구치는 것 같애.”

“맞아. 목사님이 나라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면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어나가 일본군들을 쳐부술 것 같은 힘이 생겨.”

손정도 목사는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1912년 만주 하얼빈 지방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독립운동 혐의로 2번이나 체포되어 한 번은 구속되고 한 번은 유배되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나자 정동교회에 부임해 왔습니다.

“나라도 없는 백성이 어떻게 하느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종이 되고자하면 나라부터 찾아야 합니다. 나라사랑이 하느님 사랑이요 하느님 사랑이 나라사랑인 것입니다.”

손정도 목사의 설교는 어린 학생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신앙심과 애국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관순이도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손정도 목사를 존경하고 따랐

습니다. 하느님 사람이 곧 나라사랑이라는 그의 가르침에 언제나 두 주먹을 아프도록 불끈 쥐었습니다.

손정도 목사와 함께 관순이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었으니 그는 박인덕 선생님이었습니다.

박인덕 선생님은 이화학당에서 중학부와 대학과를 졸업하고 이화학당의 교사가 되어 기하, 체육, 음악, 합창을 지도했습니다.

박인덕 선생님은 관순이를 유난히 귀여워하셨습니다. 책도 빌려주고 이야기의 상대가 되어 주기도 했습니다.

“관순아, 너의 희망은 무엇이나?”

“제가 원하는 것은 대한의 독립밖에 없습니다.”

“독립을 못 얻으면 어떡하겠느냐?”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일본 애들이 한 시간 공부하면 우리는 두 시간 공부하고 그 애들이 하나를 알면 우리는 둘, 셋을 알아야 한다.”

“예, 선생님.”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두 눈에서 광채가 나고 팽팽한 긴장감이 온 몸에 감돌았습니다.

민족자결주의가 준 희망

1918년 11월 11일.

4년 동안 전 세계를 공포와 살상으로 몰아 넣었던 세계1차대전이 끝났습니다. 전쟁을 종결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미국의 윌슨대통령은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의 정치를 결정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지.”

“세계적으로 민족자결주의 바람이 분다는 것은 좋은 징조야. 우리도 이 바람을 타고 독립을 하자.”

“식민지를 가진 나라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윌슨대통령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 때를 좋은 기회로 이용하자고.”

윌슨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정동교회 손정도 목사는 교회를 사임하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관순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뭔가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자신이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던 관순이는 기도실로 갔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실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간 관순이는 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독립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내려 주세요. 저에게 나라를 찾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라를 빼앗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모욕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을 떠

나게 만든 일제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결심하는 관순이었습니다.

1919년 1월 22일 고종 황제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68세로 건강했던 고종 황제의 죽음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제가 고종 황제의 석해에 독을 넣어 독살하였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장례식은 3월 3일 거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의 어른이신 고종 황제마저도 죽음을 당하자 분노와 슬픔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사람들을 통곡케 하였습니다.

대한문 앞에는 소복을 입고 나와 곡을 하는 사람들로 하얗게 덮였습니다.

일본 동경에서 공부하던 유학생들은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국내는 국내대로 대규모 독립만세운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각계의 대표자 33명이 모였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최남선이 독립선언서를 썼습니다. 일본에게 보낼 ‘독립통고서’와 미국의 윌슨대통령에게 보내는 ‘독립청원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최남선이 작성한 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27일 인쇄소 보성사에서 밤을 세워 2만여 장 인쇄되었고 일본군 모르게 전국으로 배포되었습니다.

독립만세운동은 이렇게 착착 준비되었습니다. 이화학당 학생 조직인 이문회도 2월 28일 밤 모임에서 3.1독립만세 운동회에 참석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독립만세운동

만세운동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며칠 전부터 떠돌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이화학당의 교내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언니들이 아무래도 이상해. 오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할 계획이 틀림없어.’

관순이는 언니들을 따라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기로 굳게 다짐하고 몇몇 뜻 맞는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학생들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려는 것을 눈치 챈 교장 프라이는 학생들을 강경하게 말렸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독립을 하는 길입니다. 교문 밖에, 아무도, 나가서는 안 됩니다.”

교문은 굳게 잠기고 선생님들로 하여금 학교 담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교문으로 몰려갔습니다. 나가려는 학생과 못 나가게 막는 수위와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몇몇 학생들이 교문을 빠져 나갔습니다.

“이 때다. 우리는 뒷담을 넘자.”

관순이는 친구들과 함께 뒷담을 넘어 만세 행렬에 끼었습니다. 그들은 파고다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파고다공원에는 학생과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파고다공원에는 학생대표 정재용이 팔각정에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습니다. 모여있던 5,000여 명의 학생과 시민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거리로 몰려 나갔습니다.

“대한독립만세!”

“일본인은 너희 나라로 물러나라!”

“우리는 자주 독립국이다!”

거리로 나가자 고종의 국장을 보러 왔던 지방민들이 합세하였습니다. 만세의 물결은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물결은 파도가 되어 너울너울 서울 시내를 뒤덮었습니다.

“대한독립만세! 일본은 물러가라!”

관순이는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학교를 같이 빠져 나온 친구들은 사람 틈에서 헤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린 여학생의 피를 토하는 듯한 만세 소리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자주 독립국이다!”

“일본인은 속히 일본으로 돌아가라!”

총을 든 일본군들이 나타나 시위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이날 잡힌 사람은 수천 명이었습니다. 관순이도 잡혔으나 해가 질 무렵 잡혔던 사람들 대부분이 풀려나면서 같이 풀려났습니다.

“네가 무사히 돌아왔구나.”

학교로 돌아온 관순이를 붙잡고 사촌언니 예도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관순이는 아직도 가시지 않은 흥분으로 온 몸이 뜨거웠습니다. 수만의 인파가 독립만세를 목이 터져라 부르던 모습은 머릿속에 박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관순이는 기도실로 들어가 좀더 큰 힘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잡혀간 박인덕 선생님

3월 1일 독립선언과 독립 만세 운동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으며 점차 작은 마을까지도 퍼져 전국에서 700여 회의 만세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등의 교포와 유학생들도 독립선언과 독립 만세를 불러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임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렸습니다. 독립 만세 운동은 다음날, 또 그 다음날로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3월 5일.

서울 시내 학생들은 다시 만세를 부르며 거리로 뛰어 나갔습니다. 여기에 노동자와 시민들이 합세 했습니다.

“탕탕탕.”

맨손으로 만세를 부르는 학생과 시민에게 향해 일본군이 총을 쏘아댔습니다. 총소리가 나자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을 향해 일본군은 무자비하게 총을 쏘아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100여 명의 사람이 잡혔습니다. 이 중 학생이 28명이었으며 징역을 받은 학생이 5명이나 되었습니다. 관순이는 잡히지 않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프라이 교장은 운동장을 왔다갔다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다가 학생과 선생님이 돌아올 때마다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학생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박인덕 선생님과 신준려 선생님이 아직 안 돌아오셨어.”

관순이는 기도실에 들어가 선생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선생님은 다음날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박인덕 선생님과 신준려 선생님이 잡히셨대.”

소문은 곧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독립 만세 운동을 일본군은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운동은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총독부는 신문에 만세 운동 기사를 신지 못 하도록 하였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3월 10일.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당국의 명령으로 휴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제 다시 학교 문을 열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프라이 교장선생님은 침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기숙사가 닫히고 교문이 잠겼습니다.

관순이는 박인덕 선생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예도 언니와 함께 천안 아우내 고향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고향 산천은 조용하기만 했다

고향으로 오면서 보니 곳곳에서 헌병들이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잡아 총살을 시키는 등

곳곳에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은 바람이 싸늘했습니다.

아우내 장터에서 지령리 집으로 걸어가면서 관순이는 낯선 곳에 온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조용하였습니다. 너무나 조용하였습니다.

“팔도 방방곡곡 모든 사람들이 독립 만세를 목이 터지게 부르건만 내 고향은 조용하기만 하구나.”

대대로 충신열사가 많기로 유명한 땅인데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조인원 숙장님, 김구응 선생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누나다. 누나야.”

집 앞에서 혼자 자치기를 하던 관석이가 소리 질렀습니다.

“어머니 관순이 누나가 와요. 관순이 누나가.”

“관순이가 왔다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던지 어머니가 바늘을 쪽진머리에 꽂으며 뛰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왔다. 그렇지 않아도 걱정 많이 했어. 서울에서 만세 운동이 벌여졌다는데 네 성격에 가만있을 리 없고 무척 걱정했다. 어디 다친 데는 없지? 잘 왔다. 어여 들어가자.”

어머니는 관순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속장님 댁에 가셨어. 전국에서 독립 만세를 부르는데 우리 마을만 가만있어 어떡하느냐고 속이 상해서 요즘은 매일같이 속장님 댁에 가 신단다. 어여 들어가자.”

관순이는 빈 눈 너머 조인원 속장님 댁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괜한 오해를 했지. 아버지와 속장님이 그냥 계실 리가 없지.’

관순이는 얼굴이 환해지면서 목소리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저, 속장님 댁에 다녀오겠습니다.”

“쉬었다가 저녁 먹고 가렴. 해도 저물어 가는데…….”

어머니가 잡고 관석이가 누나의 치마를 당겼습니다.

“학교 이야기 해 줘.”

“어머니.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관순이는 짐 보따리에서 종이를 꺼내 저고리 속에 감추었습니다.

따라오는 관석이를 어머니께 맡기고 잔걸음으로 조인원 속장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소식에 놀랄 마을 어른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사랑방에서 독립선언서를 읽다

“이게 누구냐? 관순이 아니냐?”

속장님 부인이 반가워 외치는 소리에

“관순이가 왔다고?”

하면서 사랑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조인원 속장님과 아버지 유중권 씨, 작은아버지 유중무, 김구응 선생님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독립 만세 운동은 기차가 지나가는 도시나 큰 길이 있는 도시 따라 번졌습니다. 신문조차 사실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 이동이 많은 도시가 소식이 빨랐습니다.

철도가 닿는 천안과 성환에서는 수천 명이 만세 운동에 참여했으나 천안에서도 더 들어간 작은 마을인 아우내는 마음만 앞설 뿐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모여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절을 하고 나자 아버지 유중권 씨가 목소리 낮춰 물었습니다.

“지금 서울은 어떤 형편이냐? 이야기 좀 해봐라.”

“이것 좀 보세요.”

관순이는 몸을 끌리고 앉아 품속에서 종이 두 장을 꺼냈습니다.

“태극기 아니냐? 이걸 또 뭐냐?”

종이를 펼쳐 방바닥에 놓는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독립선언서입니다.”

“흠. 독립선언서라고?”

조인원 속장이 김구응 선생님에게 청했습니다.

“김선생이 읽어보시오.”

김구응 선생님이 독립선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심호흡을 하고는 독립선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김구응 선생님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얼마나 애타게 원하는 독립인가?

우리가 독립 국가임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자주민임을 선언하는 264 글자로 된 독립선언서 낭독이 끝났지만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방안은 조용하였지만 사람들의 핏줄 속에는 뜨거운 피가 팔팔팔 용솨음 쳤습니다.

“그래.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 대로 아는 대로 말해보렴.”

조인원 속장이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관순이는 서울에서 일어난 만세 운동 이야기를 자세히 하였습니다.

“만세 운동으로 죄 없는 우리 국민이 죽고 많은 학생과 시민이 잡혀갔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따르던 박인덕 선생님께서도…….”

관순이는 목이 메어 이야기를 잊지 못했습니다.

“다 나라가 없는 설움이란다. 마음을 진정 하거라.”

아버지가 관순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자. 계획을 세워서 우리도 만세 운동 합시다.”

조인원 속장님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렇시다. 우리가 독립국임을 일제에게 알려줍시다.”

모두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해가지고 어둠이 깃들게 되어 호롱불을 켜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누구 하나 자세를 흐뜨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화선이 되다

“만세일은 언제가 좋겠소?”

“음력 3월 1일로 합시다. 그날이 장날이니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거 좋습니다. 서울에서는 양력으로 3월 1일, 우리는 음력으로 3월 1일이니 의미가 깊습니다.”

만세일을 음력 3월 1일(양력 4월 1일)로 정했습니다.

“아우내 장에 오는 청주, 진천 등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미리 연락을 해 만세 운동에 같이 참여 시켜야 합니다.”

“아무렴요. 만세 운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죠.”

“태극기를 제작하여 사람들에게 나눠줘 아우내 장터에 태극기의 물결이 넘치도록 합시다.”

각자 할 일을 분담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등사하는 일과 태극기 만드는 일은 김구응 선생님과 작은아버지 유중무가 맡았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김구응 선생님은 학생들과 함께, 목사 대리로 일하는 작은아버지는 교인들과 함께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인원 속장과 아버지는 총책임자로 만세 운동의 모든 일을 점검하고 필요한 물자를 구해오는 일을 맡았습니다.

마을의 지도자인 두 사람은 일본 헌병의 눈길이 항상 따라 다녀 행동이 자유스럽지 못했습니다.

천안 길목은 조인원 속장의 아들인 조병호에게, 수신면 쪽은 조만형, 진천 쪽은 박봉래에게 연락과 책임을 맡기로 했습니다.

“저도 태극기도 나눠 주고 만세 운동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만나겠습니다.”

관순이는 스스로 할 일을 정했습니다.

“어린 내가 할 수 있겠느냐. 밤늦게 다니는 일도 생길텐데 할 수 있겠느냐?”

조인원 속장이 염려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딸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태평시대였다면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을 했거나 친구들과 놀러 다니며 젊음을 즐겼을 나이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어리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할 것입니다. 제게 맡겨 주세요. 나라의 독립을 위한 일인데 그까짓 밤길이 뭐 무섭겠습니까?”

관순이의 굳은 결심은 아무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관순이가 가져온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는 아우내 만세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가장 골칫거리인 조선인

그 시간에 아우내 헌병 주재소에(천안 헌병대 병천 분견소) 천안 헌병대에
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동태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여기는 아주 조용합니다. 시골 무지랭이들인데다가 행동과 말이
느린 고장 아닙니까?”

주재소장 고야마의 전화 내용을 듣고 헌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
니다.

“제가 지키고 있는 한 이곳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예.”

주재소장 고야마는 전화를 끊고 물었습니다.

“서울로 공부를 하러갔던 유증권의 딸과 유증무의 딸이 돌아왔다
지?”

한국인 헌병 보조원 정수영이 대답했습니다.

“예. 어린애들이라 뭐 별일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조선인들은 여자
가 앞장서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고야마는 껄껄 웃다가 딱 멈췄습니다.

“가장 골칫거리인 조선인들은 말야, 싫다 좋다 말도 않고 예의가 바
르기 때문에 일본인에게 복종하는 것 같지만 벼슬을 주면 공손히 사
양하는 것들이지. 술도 안 마시고 노름도 하지 않으며 교회나 학교에
서 젊은이들에게 애국심을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

는 자들이야.”

고야마는 들고있던 지휘봉으로 책상을 탁 쳤습니다.

“조인권이나 유중권, 김구응, 유중무 같은 자들이군요.”

“그래. 그들을 잘 감시해야 해.”

“잘 알았습니다.”

주재소에서 자심들의 이야기를 하는 줄도 모르고 조인원 속장 집에
모였던 사람들을 헤어져 집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관순이는 일어나자마자 집 뒤에 있는 매봉산에 올라갔습
니다.

“우리도 같이 가.”

어제 누나가 늦게 집에 오는 바람에 이야기 한 마디도 못 한 관복이
와 관석이가 꺾충거리며 뛰어 나왔습니다.

“그러자.”

관순이는 어린 관석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매봉산은 높지는 않으나
경사가 급했습니다. 정상에 오르니 콧등에 땀이 송알송알 맺혔습니다.

아침 햇살이 산 아래 마을들을 평화스럽게 덮었습니다.

‘북쪽에는 북면이 있고, 남쪽으로 가면 조치원, 그 너머에는 공주,
남동쪽으로 진천…….’

관순이는 어림으로 자신이 다녀야 할 마을 방향을 돌아보았습니다.

“누나, 오늘은 하루 종일 우리랑 놀 거지?”

어린 관석이는 누나와 같이 산에 온 것이 기뻐서 관순이의 손을 잡
고 놓지 않았습니다.

관석이는 매서운 눈초리로 주위를 살펴보는 누나가 낮설게 보였습

니다.

산에서 내려온 관순이는 아침밥을 먹고 외출 할 준비를 했습니다.
두 동생들이 누나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 우리랑 놀자.”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관복이를 꾸짖었습니다.

“넌 공부 좀 했느냐? 나라가 어려울 때 일수록 공부를 해야 하느니라.”

관복이는 얼른 건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관석이는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도 누나를 따라 나설 기세였습니다.

“관석이도 형 곁에서 글을 읽도록 해라.”

“예.”

관석이는 원망스러운 눈으로 누나를 쳐다보고는 건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도 앞으로는 관순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묻지 마시오.”

아버지 유중권 씨는 부인 이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관순이는 아버지의 격려 눈빛을 받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불씨를 퍼뜨리며 다니다

관순이는 먼저 매봉교회로 가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흥호학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은 급했지만 천천히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흥호학교에 가는 관순이는 오랫동안 떠났던 고향에 돌아와 놀러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관순이 왔느냐?”

김구응 선생님이 주위를 살펴보며 안으로 관순이를 끌어 들였습니다.

“밤에 일하니까 추위 때문에 잉크가 뭉쳐 등사가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베끼었어.”

김구응 선생님은 직접 베껴 쓴 독립선언서 한 통을 내주었습니다.

“예, 선생님.”

그 날부터 관순이는 속바지에 특별하게 만든 주머니 속에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넣고 다녔습니다. 낮 동안에는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 만세 운동에 참여할 것을 설득하였으며 밤이면 태극기를 그렸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옆에서 색칠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관순이는 낯선 마을에 가면 먼저 그 마을의 존경 받는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대개 나이가 많으신 남자 어른들이었습니다.

“암, 독립을 해야지. 어린 처녀가 훌륭한 일을 하고 다니는군.”

그들은 만세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선뜻 나섰으며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도록 설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게 협조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라 걱정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학생은 집에서 조용히 살림을 배우고 있다가 시집이나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구먼.”

하면서 답답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 나라가 없는데 어디에 간들 맘 편하게 살겠습니까? 저에게는 나라의 독립이 먼저입니다.

어린 저도 이렇게 발 벗고 나서는데 어르신께서 몰라라하면 후에 자손들에게 무어라 하시겠습니까?”

관순이는 신념에 가득 찬 눈으로 상대를 쏘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온 국민이 독립 만세를 부를 때 나는 몰랐다 하실 것입니까? 무서워서 숨었다 하실 것입니까?”

사람들은 야무지게 따지는 관순이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남들이 찾아 준 광복의 밥상을 받으시렵니까?”

또박또박 하나 하나 논리 정연하게 설득하는 관순이에게 사람들은 압도당했습니다.

“대단한 여학생이야.”

“관순이 말을 듣고 있으니 참 부끄럽더구만.”

사람들의 가슴속에 관순이는 독립이라는 불씨를 퍼뜨리며 다녔습니다.

하루에 80리 길을 걷다

아직도 캄캄한 새벽.

관순이는 부시럭거리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옷을 두 겹씩 껴입고 숨이 든 버선을 신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이 트려면 아직 멀었는데 벌써 나가려느냐?”

어머니는 관순이를 볼 때마다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어른보다도 굳은 의지에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이 투철한 딸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친구들과 철없이 놀러 다닐 나이에 새벽같이 일어나 돌아다녀야 하는 딸이 애처롭기도 했습니다.

독립 만세 운동 후에 닥칠 핍박을 생각하면 딸이 당할 고통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한 번도 관순이에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청주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늦게 올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마세요.”

“관순아. 너 하는 일을 막지는 않겠다.”

어머니는 관순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거든 떠나거라. 청주로 가는 드무실 고개는(벌미고개) 낮에도 호랑이가 나온다는 험한 고개가 아니더냐. 호랑이는 아니더라도 굶주린 짐승의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고 세상이 험할 때니 도둑떼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청년들도 어두울 때는 오가지 않는 고개 아니냐.”

관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잡힌 손을 슬그머니 뺐습니다.

“일찍 출발해야 늦기전에 돌아올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딸의 고집을 아는지라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빈속에 가면 추위가 더 심해지는 법이다. 어제 먹던 국을 데워 줄 테니 밥을 말아 먹고 가거라.”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더 주무세요.”

“널 굶겨 내 보내고 내가 잠이 오겠느냐?”

관순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편케 하려고 국에 만 밥을 한 그릇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어제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밤새 조인원 속장님 집에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새벽 일찍 길 떠나는 것을 혹시라도 일본 순사의 눈에 띄면 의심을 받을까봐 관순이는 뛰는 걸음으로 지령리를 벗어났습니다. 새벽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관순이의 콧등엔 땀이 솟았습니다.

송정 왜마루를 지나 관순이는 드무실 고개길에 닿았습니다. 양옆으로 서 있는 나무들이 어둠 속에서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덤벼들 것 같은 괴물 모습에 등이 오싹하고 사나운 짐승처럼 울부짖는 바람 소리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관순이는 애국가를 부르고 주기도문을 외우며 무서움을 참고 걸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이까짓 무서움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음을 다부지게 먹었습니다.

서서히 동쪽 하늘이 밝아왔습니다. 드무실 고개 마루에 올라섰을 때 둥근 해가 불끈 솟았습니다. 아침햇살은 고개마루에 서 있는 관순이에게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나는 한 때 나라를 빼앗긴 비운의 나라에 태어난 것을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를 되찾는데 내가 한 몫을 할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햇살을 받고 서 있는 관순이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하늘의 계시를 받고 태어난 소녀처럼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관순이는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관순이는 그날 청주와 진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캄캄한 밤에 다시 드무실 고개를 넘었습니다.

후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혀를 차며 놀랐습니다.

“어린 여자애가 담도 크다.”

하루에 80리(32km) 길을 걸은 것도 놀랍지만 캄캄한 밤중에 혼자 드무실 고개를 넘은 대담함에 놀란 것입니다.

투사가 되어

그렇게 관순이는 20일간 돌아다녔습니다. 청주, 진천, 연기, 안성, 천안, 목천의 여섯 개 고을을 쉴 틈 없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마을의 대표를 뽑아 아우내 지령리 조인원 속장님께 보내세요. 2월 그믐날 밤 12시에 지령리 매봉산에 봉화를 올릴 것입니다. 모두 함께 봉화를 올리세요. 민족의 소원을 봉화로 확인합시다.”

발이 부르트고 입술은 터졌으며 햇빛에 그을린 얼굴은 살이 빠져 날카로운데 두 눈만은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언제나 생글생글 웃어 귀여움 받던 관순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용기 있는 당당한 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관순이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많이 배우거나 돈이 많은 사람보다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독립 만세 운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만세 운동 후 일제의 핍박을 두려워하고 가진 것을 잃게 될까 봐 망설였습니다.

“나라가 없는데 논과 밭이 무슨 소용이며 돈 몇 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머지않아 일제에게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관순이는 피를 토하듯 말했습니다.

일본은 토지 정리를 한다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나라 땅이나 개인 땅을 빼앗았습니다. 글을 몰라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던 농민은 멀쩡한 땅을 빼앗겨도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땅 몇 조각이 아까워 벌벌 떠는 줄부가 있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적극적인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여자들은 말없이 집안 살림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여자들이 관순이의 적극적인 행동에 감탄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여자도 많이 배우면 저렇게 똑똑하고 당당할 수 있구나.”

“참 야무진 학생이구만. 암, 우리 여자도 만세 해야지.”

“나라를 찾는데 여자 남자가 가릴 것 있나.”

그들은 관순이에게 밥을 해 주기도 하고 주먹밥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던 관순이는 전의에서 우연히 유빈기 씨를 만났습니다.

“아저씨!”

“관순아.”

두 사람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디 다녀오느냐. 네 모습을 보니 먼 길을 걸은 것 같구나.”

그렇게 말하는 유빈기 씨도 검게 탄 얼굴에 두 눈만 이글이글 타 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을 떠난 지 오래 되었는지 하얀 두루마기가 흠 먼지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3월 1일 날 만세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순이는 소리를 죽여 말했습니다.

“그래. 내 그럴 것이라 짐작은 했다. 우리 공주도 그 날로 만세 운동 날짜를 잡았다. 공주와 아우내 장날이 같지 않더냐.”

“우리 오빠는 잘 있지요?”

관순의 오빠 관옥이는 학교가 휴교되었지만 아직도 공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 관옥이도 만세 운동 준비로 바쁘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몸조심 하거라.”

“아저씨도요.”

오랜만에 만난 사이지만 긴 이야기를 못하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가족과 함께하다

3월 1일은 하루하루 다가왔습니다.

관순이 뿐만 아니라 조인원 속장, 유중권 씨, 김구웅 선생님, 유중무 씨 등 여러 사람들은 준비에 바빴습니다. 날밤을 새울 때가 많았습니다.

음력 2월 그믐날.

“오늘은 일찍 집에 가서 식구들과 저녁식사를 같이 하시도록 합시다.”

조인원 속장이 말했습니다. 그 동안 식구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편하게 식사 한번 못하고 뛰어 다녔던 그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만세 운동 시위를 두고 마지막 저녁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자는 조인원 속장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들 하시죠.”

유중권 씨도 찬성했습니다.

그들은 밤 12시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관순네도 오랜만에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관복이와 관석이는 좋기만 했지만 관순이와 어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먹고 관복이는 관석이 데리고 옷말 아주머니 댁으로 가거라.”

아버지 유중권 씨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관복이는 내일이 장날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구경을 갈 생각이었는데 아버지 말씀에 실망의 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가 데리러 갈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한다. 장구경을 생각은 하지 마라.”

아버지는 엄하게 말했습니다. 관복이는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여 누나와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누나와 어머니는 관복이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인원 속장 가족은 밥상을 가운데 두고 둘러 앉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만세 운동에 힘을 실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만세 운동에서 아들 병호가 다치지 않도록 기도하고 미국에 있는 아들 병옥이 공부 열심히 해 나라를 위해 큰 재목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같은 시간에 김구응 선생님도 어머니와 아내와 어린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울먹이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내일 당신은 장에 오지 마시오.”

김구응 선생님도 밥을 시원스럽게 먹지 못했습니다. 어린 아들과 아내, 그리고 늙으신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일입니다. 집에서 장터까지는 30여 분 거리지만 돌아오는 길은 멀 것입니다.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머님도 내일은 집에 계세요.”

채씨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요즘 들어 밤잠을 제대로 못 자 수척한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장에 갈란다.”

“어머니!”

“네가 가는데 널 낳은 이 어미가 뭘 두렵겠느냐. 나도 대한의 어머니다.”

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한 김구응 선생님은 목이 메어 그만 수저를 놓고 말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밤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햇불 낭자

관순이도 태극기를 그리다가 때가 됐음을 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사랑방에서 아버지도 나오고 대문으로 작은아버지, 김구응 선생

님, 조인원 속장이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뒤뜰에 마련해둔 잘 만든 장작에 뿔뿔을 해 짊어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관순네 집 뒤의 매봉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상에는 그 동안 모아뒀던 삭정이와 나뭇잎이 수북했습니다. 나뭇잎과 삭정이가 위에 장작을 쌓았습니다.

관순이는 들고 있던 횃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검붉은 불꽃이 넘실거렸습니다. 관순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빛났습니다. 딱 다문 입에 불꽃이라도 삼킬 듯한 두 눈이 매서웠습니다.

“불을 붙입니다. 내일의 성공적인 거사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가 자주민임을 알리기 위해.”

“우리를 도구로 써 주시는 하느님의 뜻에 감사하기 위해.”

“영혼이 잠자는 사람들 가슴에 독립의 불씨를 퍼뜨리기 위해.”

다섯 사람은 똑같이 불을 붙였습니다. 다섯 사람의 얼굴에 비장함이 서렸습니다.

몇 시간 후면 그들 각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겠다는 굳은 의지였습니다. 나뭇잎과 삭정이를 태운 불은 장작에 옮겨 붙으면서 기세당당하게 타 올랐습니다. 매봉산에서 불꽃이 치솟자 곧이어 우각산, 강당산, 잣밭 뒷산, 세성산, 개목산에서 각각 봉화가 올랐습니다.

“대한의 독립을 간절히 기대하는 민족의 불꽃이다!”

다섯 사람은 매봉산 정상에서 움직일 줄 몰랐습니다.

매봉산에서 솟은 봉화는 점점이 이어가듯 다른 고장으로 퍼져갔습니다. 멀리 연화봉에서 불이 일었고 광덕산, 덕산, 화산과 덕유산, 서림산, 약사산, 수리봉에서 일제히 불기둥이 올랐습니다.

이 날 피어오른 봉화는 모두 24개나 되었습니다.

봉화 불을 본 사람들은 대한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아우내 장터에는 태극기의 물결이

3월 1일 아침해가 밝았습니다.(양력 4월 1일)

아침을 먹고나자 아버지의 명령대로 관복이와 관석이는 옷말로 올라가고 어머니는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인원 속장님을 만나러 새벽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관순이는 그려 두었던 태극기를 꺼내 놓고 어머니와 작별을 했습니다.

“어머니. 먼저 나가 보겠어요.”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몸조심 하거라.”

“어머니도 조심하세요.”

잠시 후에 장에서 만나겠지만 어머니와 딸은 얼른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어머니와 작별한 관순이는 쟁걸음으로 장터를 향해 발걸음

을 옮겼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원하는 백성이 어디 아우내 지령리 사람뿐이라.

아우내 장날을 이용해 만세를 부르려던 사람들이 또 있었으니 천안군 수신면 발산리의 김교선과 이순구, 동면 수창리 한동규, 성남면 갈전리 이백하, 갈전면 김상철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령리 사람들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독립 만세를 부르시다.”

“이 기회에 일제를 몰아냅시다.”

장에 온 사람들을 붙잡고 만세를 부를 것을 설득했습니다.

그때 조인원 속장, 유중권 씨, 김구응 선생님, 유중무 씨, 관순이와 예도가 장터에 도착하면서 만세 운동은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들을 안고 온 태극기를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신호에 따라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세요.”

“자, 태극기들 받아 가세요.”

관순이와 약속을 했던 부녀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쪽진 머리의 결혼한 여자도 땡기머리 처녀들도 태극기를 받아 들었습니다.

가져온 태극기를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자 관순이는 옆에 쌓여 있는 가마니 위로 올라갔습니다.

남녀노소 수천의 술렁이던 사람들이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솟아나듯 우뚝 선 16살의 관순은 하늘에서 내려보낸 전령 같았습니다. 관순이는 하늘을 한번 우러러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4천 년 역사의 독립국가입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강점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대한 제국은 독립국가입니다. 우리

나라를 되찾읍시다. 다 같이 독립 만세를 부릅시다.”

관순이는 태극기를 번쩍 쳐들었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양옆에 서 있던 조인원 속장과 아버지 유중권 씨가 들고있던 대형 태극기를 휘둘렀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그를 신호로 사람들은 들고 있던 태극기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는 바람을 일으키며 펄럭였고 만세 소리는 천둥이 되어 산과 들로 울려 퍼졌습니다. 상투를 튼 사람도, 갓을 쓴 사람도, 머리를 신식으로 깎은 사람도, 땀을 흘린 젊은 여자도, 쪽을 진 결혼한 여자도 다 같이 목청 높여 만세를 불렀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일제는 물러가라!”

주재소 헌병들이 놀라서 달려 나왔습니다.

울려 퍼진 종소리

주재소장 고야마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당장 해산하라!”

“일제는 물러가라.”

“대한 독립 만세.”

만세 소리는 더욱 커지고 사람들은 더욱 많아져 붓물처럼 장터에 넘쳤습니다.

겁이 난 주재소장 고야마는 소리쳤습니다.

“발사! 발사!”

“탕!”

“탕!”

“탕!”

맨 앞에 서서 만세를 부르던 김구응 선생님이 총에 맞았습니다. 김구응 선생님이 쓰러졌습니다.

“구응아!”

그 모습을 본 채씨 할머니가 사람들을 헤치고 달려가 피 흘리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놈들아, 너희가 우리나라를 빼앗더니 우리 아들까지 죽였구나. 이 나쁜 놈들아!”

채씨 할머니의 피를 토하는 절규였습니다. 헌병이 채씨 할머니의 등에 총을 쏘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위에 쓰러졌습니다.

헌병은 총검으로 숨진 할머니의 등을 마구 찔렀습니다. 피가 튀고 피비린내가 퍼졌습니다. 잔악한 그 모습에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고야마가 주재소로 도망쳤습니다. 분노한 사람들이 그를 쫓아 주재소로 몰려갔습니다.

“전화선을 끊어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젊은이들이 장터 밖으로 달려나가 전신주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한발 늦었습니다. 이미 고야마가 전화로 천안에 지원 요청을 한 뒤였습니다.

성난 파도처럼 몰려오는 사람들을 헌병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주재소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주재소 안으로 쳐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헌병들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총을 쏘고 총검을 휘둘렀습니다.

유중권 씨가 총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형님!”

총 맞고 쓰러진 유중권 씨를 총검으로 다시 찌르려는 것을 보고 유중무 씨가 두루마기를 벗어 그 끈으로 헌병의 목을 감아 낚아챘습니다.

“형님에게서 물러나라!”

유중무 씨는 피 흘리는 형을 안고 주재소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형님을 살려내라.”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라. 우리는 평화적으로 운동하는데 왜 총을 쏘느냐?”

주재소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과 막으려는 사람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비명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놈들아. 평화적으로 독립 만세를 부르는 우리 아버지를 죽이다니…….”

관순이는 일본헌병을 밀치며 아버지 곁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헌병들은 총검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유중무 씨는 안고 있는 형에게서 점점 힘이 빠져나감을 느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유중무 씨는 혼란한 틈을 타 형을 안고 몸을 피하려 하자 헌병이 막아섰습니다. 관순이가 헌병에게 매달렸습니다.

“이 놈의 계집애!”

헌병이 관순이를 주먹으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튀었습니다.

“이 놈아, 어디다 손을 대느냐!”

어머니가 딸을 구하려고 헌병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탕!”

헌병의 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아악, 관순아.”

가슴에 총을 맞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 어머니!”

관순이는 어머니를 부여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도 분하고 원통한데 일제의 손에 어머니를 잃다니…….

관순이는 울부짖었습니다.

헌병 지원군이 오다

유중무 씨는 형을 아는 집에 맡기고 밖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형, 유중권 씨를 치료할 사람을 구하러 가던 그의 눈에 한국인 헌병 보조원 맹성호가 일본 헌병과 함께 날뛰며 몽둥이로 사람들을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중무 씨의 눈에 불이 튀었습니다.

“네가 대한인으로 이럴 수가 있느냐? 헌병 보조원을 몇 년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면서 맹성호를 잡고 뒹굴었습니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유중무 씨를 짓밟고 묶었습니다.

천안 헌병대에서 철도옹호대장 다리갑 대위와 헌병 6명을 아우내로 급히 파견 시켰습니다.

“분명히 아우내 입구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태극기를 들고 가자.”

그들은 마치 만세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처럼 태극기를 휘두르며 달려왔습니다.

천안에서 들어오는 길목을 막고 있던 청년들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자동차를 보고 긴장하였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오는데요.”

“천안 쪽에서 만세를 부르러 오는 사람들인가 보다.”

그들은 태극기를 보고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 순간 자동차에 탄 헌병들은 총을 쏘아대면서 장터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분하고 원통한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며 농사만 짓던 순진한 그들이 어떻게 음흉한 그들의 계책을 알았

겠습니까.

지원군들은 아우내에 들어서면서 총을 쏘아대어 사람들의 혼을 다 빼놓았습니다.

“탕탕탕!”

연달아 총소리가 나고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조인원 속장의 피 끓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일제를 물리치자!”

잠시 혼란스러웠던 사람들은 조인원 속장의 소리에 정신을 가담고 다시금 만세를 외쳤습니다.

“탕. 탕. 탕.”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거나 총검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조인원 속장도 총에 맞았으나 워낙 건장한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총을 쏘면서 주재소로 달려간 다리갑 대위는 한 소녀가 주재소장 고야마의 멱살을 흔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놈들아, 내 부모님을 살려내라!”

관순이었습니다.

아우내 총책임자인 고야마는 어린 소녀에게 멱살을 잡히는 망신에 분이 터져 날뛰었습니다.

“이 계집애를 퐁퐁 묶어라.”

지원군이 도착하자 기세가 등등해진 헌병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관순이를 잡아 묶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곱게 땀던 머리가 풀려 산발

이 되었습니다.

“놓아라. 이 놈들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관순이는 묶인 채 얻어맞으면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타는 관순네 집

이 날 아우내 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3,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보통 장날 같으면 500여 명이 모여드는 것에 비교하면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관순이가 밤길을 무서워하지 않고 발이 부르트면서 설득하고 다닌 성과였습니다.

아우내 만세 운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다쳤습니다.

김구응, 김상현, 박병호, 박유복, 박준규, 신을우, 유중오, 윤탈영, 윤의천, 이성하, 이소제(관순의 어머니), 전치관, 채씨할머니(김구응 어머니), 한상필은 만세 운동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박상규와 방치석은 그 다음 날 사망하였습니다. 총에 맞고 총검에 찔렸던 유중권 씨는 3일 뒤에 사망하였으며 박영학과 서병순은 이때 다친 상처로 7월과 8월에 각각 사망했습니다.

총에 맞은 조인원은 진천 영국인 병원에서 일본군의 감시를 받으며 치료를 받고 3개월 후에 공주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옷말 친척 아주머니에 가 있던 관복이와 관석이는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친척 아주머니도 장터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안절부절 못

했습니다.

“저 소리는…… 저게 총소리 아니냐?”

생전 총을 구경도 못하고 소리도 들어본 것 없는 아주머니였지만 만세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것이 총소리가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들아, 절대 집 밖에 나가지 말거라. 아주머니가 잠깐 장터에 다녀오마. 금방 올테니 집 보고 있어.”

아주머니는 총총히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금방 온다는 아주머니는 가더니 소식이 없었습니다.

장터 쪽에서는 총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텅 빈 집에서 두 아이는 무서웠습니다.

“형, 집에 가자.”

관석이가 졸라댔습니다.

“안돼. 아버지가 이곳에 있으라고 했잖아. 아주머니도 그러셨고.”

관복이는 14살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어렵듯이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만 없다면 장터에 가 같이 만세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독립 만세를 힘차게 부르고 싶었습니다.

해가 지자 장터 쪽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자 더욱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 집에 가자.”

관석이가 다시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자.”

손을 잡고 옷말을 내려오는데 매봉산 아래에서 연기가 솟았습니다.

“저, 저기는.”

관복이과 관석이가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우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관복이네 집과 옆에 있는 매봉교회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형!”

두 아이는 불타는 자기 집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매봉교회와 관순네 뿐만 아니었습니다. 헌병들은 미친개처럼 날뛰었습니다. 운동에 가담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남의 집 방을 군화발로 짓밟고 문짝을 부수었으며 운동과 관계없는 사람도 치고 때렸습니다. 지령리는 그야말로 축대밭이 되었습니다.

관순네 초가집이 다 타서 주저앉자 헌병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관복이와 관석이는 집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

엄하면서도 자상했던 아버지가 책을 읽던 사랑방, 남자 삼형제가 뒹굴고 장난치면서 같이 쓰던 건너 방, 어머니와 관순이가 바느질도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던 안방이 형체도 없이 사라져 장작 몇 개로, 재 몇 무더기로 남아 연기만 올라갔습니다.

헌병들은 미쳐 날뛰고

두 아이는 울면서 작은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아구구구. 아구구구.”

작은아버지 유중무 씨 댁 가까이 오자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관석이가 관복이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빨리 네 딸이 간 곳을 대라.”

바깥 마당에서 헌병 하나가 작은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아구구구. 모른다. 나는 모른다. 아구구.”

헌병이 찾아오기 얼마 전에 장터에서 만세를 부르던 예도가 도망쳐 왔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도망가요. 놈들이 사람들에게 총을 마구 쏘아서 큰 아버지 큰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어요.”

작은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놈들에게 잡혔어요. 어머니 빨리 도망가야 해요.”

예도는 어머니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니다, 예도야. 나는 집을 지킬 테니까 너나 도망가거라.”

어머니는 집안에 있는 돈을 다 털어 예도에게 주면서 등을 밀었습니다.

“예산 쪽으로 가거라. 그 쪽으로 가면 친척들이 많으니 밥 한 끼 얻어먹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예도는 울면서 뒤돌아보고 또 보면서 몸을 피했던 것입니다.

예도가 떠나고 10분도 안되어 헌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래도 말하지 않겠느냐?”

헌병이 칼을 빼 작은어머니 목 앞에 바짝 들이댔습니다.

구경하던 몇몇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 발만 동동 구를 뿐 어찌지를 못했습니다.

“모른다. 모른다지 않느냐.”

작은어머니는 모른다는 말만 계속하다가 그만 기절했습니다.

집 모퉁이에서 작은어머니가 헌병들에게 당하는 모습을 훔쳐보던 관복이와 관석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끝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헌병들은 감시할 헌병 한 명을 남겨 놓고 돌아갔습니다.

관복이는 관석이를 데리고 옷말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니 낮 동안 가 있었던 아주머니 집에 햇불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헌병이 지키고 있어.”

관복이는 관석이를 데리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헌병들은 지령리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만세 부른 사람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횡포를 부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비명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누나는…….”

그저 큰일이 난 것만은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습니다.

관복이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장터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아는 얼굴이라도 만나 무슨 소식이라도 듣겠지 싶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길에는 오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장터에 가까이 가자 찢어진 태극기와 옷가지, 찌그러진 갖과 임자 없는 짚신짝들이 여기저리 널려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낮에 있었던 만

세 운동의 격렬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관복이와 관석이는 서로의 손을 꼬옥 잡았습니다.

장터안에 들어가자 가끔씩 사람들이 눈에 띄었지만 말도 못 붙이게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왜 이려고 다니니. 어서 집에 가거라. 가.”

상투머리가 흘러 내려 무섭게 보이는 아저씨가 지친 목소리고 두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 아저씨. 우리 아버지 못 보셨어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유자, 중자, 권자 되십니다.”

“…… 너희가 관순이 동생들이구나. 이려고 다니면 위험하다.”

“우리 누나 보셨어요?”

“천안 헌병대로 잡혀갔다.”

아저씨는 거친 숨을 내쉬며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누나를 찾아 천안으로

“천안에 가자. 거기에 가면 누나 소식을 알 수 있을거야. 누난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는지 알 거야.”

천안 헌병대가 가 한 번이라도 좋으니 누나의 얼굴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두 아이는 밤길에 무서운 줄 모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잡힌 수십 명의 사람들은 오라줄에 생선처럼 묶여 천안 헌병대로 끌려갔습니다. 관순이는 끌려가면서도 애국가를 부르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개머리판으로 얻어맞았지만 조금도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저 계집애 지독한 악질이야!”

일본군들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총칼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만세를 부른 관순이었지만 밤이 되어 누우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어머니의 시신이 눈앞을 가리고 피를 흘리며 작은아버지에게 업혀간 아버지의 소식을 몰라 애가 났습니다. 끌려올 때 옷 앞섶이 피로 물들은 작은 아버지를 멀리서 봤지만 아버지의 안부를 묻지 못했습니다. 조인원 속장의 아들 조병호도 잡혀온 것을 보았으나 사촌 언니 예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순이는 예도가 무사히 도망쳤기를 빌었습니다.

옷말 친척집에 보낸 동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관순이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았습니다.

남의 집 헛간에서 잠을 자고 난 관복이 형제는 아침 일찍 천안 헌병대에 도착하였습니다. 헌병대 주위를 돌던 관복이 형제는 면회 온 지령이 사람들과 작은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니?”

작은어머니의 피멍 든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관복이 형제는 작은어머니를 보자 뜨거운 눈물이 다시 솟구쳤습

니다.

“울지 마라. 기운 빠진다. 울지 마라.”

아이들을 달래면서 작은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침 일찍 아우내에서 걸어왔건만 만세 운동하다가 잡혀 온 사람들은 아무도 면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석이 형제와 지령이 사람들은 안타깝고 분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어머니를 통해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은 관복이와 관석이는 천안에서 아우내까지의 길을 눈물을 적시며 걸었습니다.

며칠 후 면회를 겨우 할 수 있게 되었을 때도 관복이 형제는 어리다 는 이유로 누나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은 관순 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을 면회 온 지령리 사람들의 입을 통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다니…….”

“숨은 곳에서 헌병에게 발각 났으나 일제가 주는 약은 먹지 않겠다고 거부를 하셨단다. 3일 만에 돌아가셨지.”

“나라를 빼앗고 부모님을 빼앗아 간 일제를 나는 죽어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관순이는 통곡했습니다.

하느님이 시키신 일이다

천안 헌병대 유치장에서 10일간 있는 동안에도 매일같이 관순이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목에서 피가 나고 만세를 부를 때마다 얻어맞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10일 후 관순이와 잡혀있던 사람들은 공주 법원검사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공주에 가니 천안, 온양, 공주 등지에서 만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잡혀와 있습니다. 관순이는 남자 감옥에 오빠 관옥이와 유빈기 씨가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주 장날 만세 운동은 주로 정명학교 교사와 재학생, 졸업생이 주동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공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잡혔습니다. 헌병들이 관순이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어린 나이로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 따라 만세를 불렀다고만 말하면 널 풀어 주겠다.”

“고집을 부리면 너는 죽고 말 것이다. 고향에 남은 네 동생들을 생각해야 않겠느냐? 네 부모가 다 죽었는데 너마저 죽는다면 어린 동생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협박을 하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순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순이에게 취조와 고문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우내 만세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5월 9일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다가가 관순이는 오빠를 보았습니다.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옷에 불라보게 살이빠진 오빠가 오라줄에 묶여 재판을 받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오빠!”

“관순아.”

“관순아,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는 총에 맞아…… 그만…….”

현병들이 달려와 관순이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혈육인 오빠를 보고도 맘 놓고 말 한마디 못하고만 관순이는 뜨거운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관순이는 재판 받는 동안 내내 머리를 똑바로 들고 재판장을 노려 보았습니다. 관순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모자가 누구냐? 누가 시킨 일이나?”

“하느님이 시킨 일이다.”

관순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가면 또 독립운동을 할 것이냐?”

“그렇다. 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난 할 것이다.”

판사가 비웃었습니다.

“흥. 넌 조선이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그렇다. 나는 굳게 믿고 있다.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판사는 만세 운동 가담자에게 내리는 최고형인 7년, 구형엔 3년형을 내렸지만 관순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에서 유증무 씨와 조인원 속장에게도 3년형이 내려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씩 형이 가벼웠고 오빠 관옥이는 2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습니다.

다시 만난 박인덕 선생님

유빈기 씨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청원에 의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독립 만세 운동으로 다른 나라들의 눈들이 모두 우리나라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들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풀려나긴 하였지만 서점은 다 부서지고 책들은 압수를 당해 유빈기 씨는 더 이상 공주에서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관순이는 1919년 6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은 죄목과 지방법원에 따라, 남녀에 따라 대기소가 달랐습니다. 각 대기소 사이는 판자로 나뉘었습니다. 관순이는 판자벽에 기대어 지친 몸을 쉬었습니다. 짐짝같이 차에 태워 실려 온데다가 만세를 부르고 애국가를 불러 지칠 대로 지친 관순이었습니다.

관순이는 차를 타고 오면서 보았던 들판을 떠올렸습니다. 연둣빛으로 물드는 들판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이때쯤이면 매봉산 나무들은 잎이 피어 아름다운데…… 그 곳에서 관복이 관석이랑 뛰어 놀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동생들은 어디에 있을까?’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는데,

“똑똑똑.”

누군가 관순이가 기대고 있는 판자를 두드렸습니다. 관순이는 놀랐으나 곧 판자를 두드려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디서 오신 누구인가요?”

판자 너머에서 묻는 목소리가…… 귀에 익었습니다. 가슴이 뛰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 공주에서 왔습니다. 천안 아우내에서 만세운동을 하다 잡혀온 유관순입니다…… 혹시, 혹시 박인덕 선생님 아니십니까?”

관순이는 흐느꼈습니다.

“오, 관순아. 네가 정말 거기에 있는거냐?”

귀에 익은 목소리는 바로 박인덕 선생이었던 것입니다. 선생과 제자는 가로막힌 판자 벽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기구한 만남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래. 그동안 이야기 좀 해 보렴.”

관순이는 흐느끼면서 지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부분에서는 한참동안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부모님의 원수, 민족의 원수를 꼭 갚고 말 것입니다. 제 남은 생명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래. 우리 끝까지 싸우자. 나는 빌링스 목사님의 보석금으로 내일 쯤 나가게 된다. 관순아, 몸조심 하거라. 뒷날 우리 웃으며 만나자.”

박인덕 선생님은 사랑하는 제자만 두고 나가게 된 것이 가슴 아파 소리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당당한 애국소녀다

재판을 맡은 것은 총독부 판사 우태랑 이었습니다. 그는 공주법원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형량을 줄여 줄 이유가 없다하여 전에 받았던 형량대로 판결하였습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한 당신네들이 내게 벌을 내릴 권리가 어디 있느냐? 나는 잃어버린 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하여 투쟁한 당당한 애국소녀다.”

관순이는 판결에 불복중 하며 재판장에게 외쳤습니다. 재판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소란을 피우느냐?”

“너는 네 나라에 돌아가거라. 내게 죄가 있다면 대한제국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

“너희같이 어리석고 야만적인 국민이 독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너희는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하는 열등 국민이다.”

관순이는 별떡 일어나 의자를 들어 재판장에게 던졌습니다. 관순이에게 법정 모독죄를 추가하여 7년형을 내렸습니다.

이 일로 조인원 속장, 작은아버지 유중무 씨, 오빠 등 9명은 공주 감옥으로 내려가고 관순이만 서대문 감옥에서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에게는 푸른색 죄수복이 주어졌으나 관순이에게는 황토색 죄수복이 주어졌습니다. 황토색은 형량이 무거운 사람에게 입히는 죄수복이었습니다.

“쫓쫓 어린 것이 어찌다가…….”

관순이가 지나가면 그 옷만 보고도 다른 죄수들은 애처롭게 생각했습니다.

같은 감방에 있는 개성 전도사 어윤희는 동글동글한 얼굴에 성격이 좋고 자상했습니다. 아우내에서 헌병의 총검에 찢린 상처라 아물지 않고 굵아서 고생하는 관순이를 친동생처럼 돌보아 주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약할 때는 언제나 기도를 해 하느님의 힘을 빌리도록 하자.”

하면서 관순이의 상처가 낫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감옥 생활에도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는 어윤희를 모두들 좋아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관순이에게 어윤희는 큰 위로였습니다.

선생님의 편지

관순이는 틈만 있으면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 대한 독립 만세!”

관순의 만세 소리를 신호로 모두들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를 부를 때마다 관순이는 끌려나가 모진 매를 맞았지만 만세 부르기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관순이는 독방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루는 밥을 나르는 여죄수가 몹시 긴장된 얼굴로 쪽지를 주고 사

라졌습니다. 그것은 박인덕 선생님이 관순이에게 보낸 쪽지였습니다.

박인덕 선생님은 석방되었다가 애국 부인회 사건으로 다시 잡혀와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습니다.

“관순아, 만세를 부르니 네 몸만 자꾸 상하는구나. 동지들도 끌려나가 고통을 당하니 너와 동지들을 위해 제발 참겨라.”

사랑하는 제자를 위한 선생님의 호소였습니다.

관순이는 박인덕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만세 부르기를 그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하루에도 수백 번씩 독립 만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만세를 부르지 않자 간수들은 관순이를 8호 감방으로 옮겼습니다. 감방 식구들은 다 같이 관순이가 돌아온 것은 환영하였습니다.

“언니, 나는 요즘엔 너무 불안해요.”

불을 끄고 모두 누웠을 때 관순이가 어윤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어윤희는 관순이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 영영 독립을 못 하는것 아닌가, 부모님 원수를 갚지 못하고 마는 것 아닌가 생각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서 죽을 것만 같아요.”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렴. 밖에 있는 우리 민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비록 갇혀 있지만 우리도 뭔가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만세 운동을 한 지 1년이 다 되었건만 아무런 변화도 없잖아요.”

“이렇게 갇혀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니.”

관순이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3월 1일이 곧 다가오잖아요. 그날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어윤희가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한 번 만세를 부르자.”

1주년 기념 만세를 부르다

관순이와 어윤희가 뜻을 같이 한 만세 계획은 8호 감방 식구들이 힘을 합해 준비되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만세를 부르려면 어떤 신호가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걱정하자 관순이가 생긋 웃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들려오는 괘종시계 소리에 맞춰요. 두시, 괘종시계가 두 번 쳤을 때 모두 함께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관순이의 말에 모두 감탄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2시면 식사도 끝나고 간수들이 느긋해질 때니깐 말야.”

“다른 방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만세를 불러야 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죠?”

“그건 내게 맡겨.”

어윤희가 밥을 나르는 여죄수에게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여죄수는 어윤희에게 감화되어 기독교인이 된 여자였습니다.

만세를 부르고 나면 지독한 고문을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하여 대답할 말도 함께 맞췄습니다.

“만세 주동자는 없다. 우리 다 같이 생각해서 한 일이다.”

“우리는 독립을 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만세를 부를 시간과 잡혔을 때 고문당하면 대답할 말을 깨알같이 적어 어윤희는 밥 나르는 죄수에게 주었습니다. 여죄수의 손에 의해 종이는 각 감방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1920년 3월 1일.

“땡. 땡.”

사무실의 과중시계가 두 시 종을 울렸습니다.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서대문 형무소 감방에서 일제히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제는 물러가라!”

“우리는 대한의 사람이다. 우리를 석방하라.”

“대한 독립 만세!”

도둑질을 하다 잡혀온 사람도, 강도도, 사기범도 다 같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목이 터져라 부르는 만세는 높디높은 서대문 형무소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같이 만세를 불렀습니다.

만세는 불처럼 번져 모하관, 명천동, 애오개, 서대문까지 번져 나갔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집에 있던 사람들이 뛰어 나오고 달리던 전차가 멈추고 승객들이 뛰어내려 만세를 불렀습니다.

경찰서에서 기마대가 만세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였습니다.

내가 주모자다

이 일로 쪽지를 전달했던 여죄수가 발각되어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주모자를 찾는다고 번갈아 죄수들을 데려다가 고문을 했습니다. 고문을 받은 죄수들의 신음소리가 형무소 안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주모자다.”

관순이는 같은 동포가 일제에게 당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관순이는 독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는 악명 높은 일본 여간수 야마사끼가 있었습니다. 야마사끼는 일본인답지 않게 몸집이 큰 여자였습니다.

“흥. 네가 만세 주동자란 말이지.”

야마사끼는 남자 간수보다 더 악독하게 몽둥이로 때리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매를 견디지 못해 정신을 잃으면 물을 끼얹어 정신을 돌아오게 하고 다시 때렸습니다. 온몸이 찢어지고 방광이 터졌습니다. 관순이는 반죽어서 정신을 잃고 독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8호 감방으로 돌아온 관순이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악독한 놈들. 어린 너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감방 식구들이 관순이의 상처를 닦아주고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관순아, 정신 차려야 한다. 정신을 차려라. 주여, 이 어린 소녀를 돌보아 주소서.”

어윤희는 관순이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어윤희 나와라.”

간수가 와서 어윤희를 끌어갔습니다.

그 때 끌려나간 어윤희는 8호 감방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진 매를 맞고 다른 감방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정신력이 강한 관순이는 며칠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얼굴은 퉁퉁 붓고 걸음을 못 걸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감방 안은 짐통처럼 더웠습니다. 매를 맞은 상처가 덧나 끓고 터졌습니다. 관순이의 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유빈기 씨가 면회를 왔습니다.

“아저씨!”

관순이는 유빈기 씨를 보자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관순아.”

몰라보도록 변한 관순이의 모습에 유빈기 씨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특하게 반짝이던 두 눈과 생글생글 웃음 짓던 열

굴을 사라지고 병색이 깊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관복이, 관석이는요?”

“친척집에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유빈기 씨는 공주를 떠나 아들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와 살고 있었습니다. 황토마루(지금의 세종로)에서 서점을 하고 있었는데 일제의 감시가 심해 서점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관순아. 건강해야 한다. 몸이 건강해야 밝은 내일을 볼 수 있다. 명심하거라.”

그것이 유빈기 씨가 본 관순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유빈기 씨가 넣어 준 사식을 감방 식구들에게 나눠주고 관순이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몸이 너무 쇠약해진 탓이었습니다.

햇불 낭자 눈을 감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과 함께 관순이의 병은 점점 더 깊어갔으나 일제는 치료 한 번 제대로 해 주지 않았습니다.

“매봉산 나무들이 발갱게 물이 들었을 거예요. 빨리 나가서 동생들과 예쁜 나뭇잎도 줍고 도토리도 주워야 하는데…….”

관순이는 쓸쓸히 말했습니다.

“빨리 독립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독립을 못 볼 것 같아요.”

마음 약한 말도 했습니다.

가을이 깊던 10월 12일.

관순이는 그렇게도 그리던 대한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17살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비운의 나라에 태어나 짧은 생애를 독립 운동에 바치고 눈을 감은 것입니다.

8호 감방에서 터져 나온 울음소리로 서대문 형무소 죄수들은 관순이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순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유빈기 씨는 관순이의 주검을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이화학당 선생님들은 눈물로 수의를 껴맸습니다.

수의를 입은 관순이는 가슴에 성경과 꽃을 안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관순이의 장례는 정동교회에서 김종우 목사님의 주례로 치러졌습니다. 선생님들과 몇몇 친구와 유족 대표로는 유빈기 씨와 그의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떠났지만 관순이가 햇불로 켜인 독립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 1945년, 관순이가 죽은 지 25년 만에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소중애 | 한국문인협회 천안지부장 역임
해강아동문학상, 충남문학대상
어린이가 뽑은 작가상
한국아동문학상, 방정환문학상
동화집 재미도 노래를 부른다 외 153권

할머니의 텃밭

| 김 월 순

고운 햇살이 소희네 집을 비추었어요. 포근한 봄볕 아래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소희네 집 대문 앞 넓은 마당으로 모였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커다란 트럭이 부릉부릉 소리를 내면서 자꾸만 이삿짐을 높이높이 쌓아놓고 있었어요.

얼마 후 트럭 위로 짐이 가득 차오를 즈음, 까만 코트에 잿빛 모자를 쓴 멧쟁이 소희 아빠가 마당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왔어요.

“정든 고향을 떠나려니 너무 섭섭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간 될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소희 아빠가 모자를 벗고 공손하게 허리 굽혀 인사를 했어요.

“정말 섭섭하네, 그러.”

“그래요,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허리가 굽은 철민이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땅바닥을 툭툭 치며 말했어요. 영미 할머니는 주름투성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는 여기서 그냥 살게 하지, 왜 모시고 가는 거.”

뒷집에 사는 상훈이 할머니가 신발 끝으로 땅을 후벼 파며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게, 내말이. 평생 가꾸던 텃밭을 어찌 두고 가려는지, 당최.”

인섭이 할머니 눈가에도 눈물이 그렇그렇 매달렸어요.

“소희야, 할머니 나오시라고 해라. 출발해야지.”

소희 아빠가 집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소희가 대문 안으로 뛰어가자 뒤따라 후덕하게 생긴 부녀회장 미경 엄마가 덩달아 따라 들어갔어요. 화단 가 경계석에 걸터 앉아있던 소희 할머니는 한 손에 한 움큼 풀을 쥐고서는 어깨를 들썩이며 애써 울음을 참고 계셨어요. 할머니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썩 지나갔어요.

“소희 할머니 일어나세요. 이제 출발해야 된데요.”

미경 엄마가 할머니 손을 살며시 잡아 당겼어요. 힘없이 일어서시는 할머니 오른 손에는 거친 풀이 한주먹 쥐어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소희 아빠 검정 승용차 옆으로 다가서자 벌렁코 현서 할아버지가 하얀 박하사탕 한 봉지를 건네주었어요.

그때였어요. 동네사람들이 우루루 몰려와서 과자며 사이다, 요구르트, 사과, 배, 초콜릿 등을 차 안으로 넣어 주는 거예요.

“안녕히들 계셔유, 흑흑.”

목이 매여 제대로 말을 못하는 소희 엄마 때문에 여기저기서 아쉬운 소리들이 동네를 가득 맴돌았어요.

“잘 가구려. 어찌겠어, 소희 아빠 직장 때문인데, 쫓쫓...”

“서울이 그리 먼 곳이 아니니 자주 놀러 오구려.”

차가 출발하자 동네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물을 닦던 손수건을 흔들었어요.

서울로 이사 온 날부터 할머니는 아파트 방 안에서 꼼짝도 안했어요. 창밖 먼 하늘만 바라보며 긴 한숨만 내쉬는가 하면, 늘 눈가에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 계셨어요. 그 뿐 아니에요. 식사도 잘 못하셨어요. 소희는 할머니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재롱을 떨었어요. 그래도 할머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때론 팔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온갖 정성을 다했어요.

“우리 소희가 기특하구나. 어휴 이쁜 내 새끼.”

할머니는 오랜만에 활짝 웃으시며 소희의 등을 토닥이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금세 할머니는 다시 어두운 표정으로 바뀌셨어요.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도, 예쁜 옷을 사드려도 표정이 밝아지지 않으셨어요.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던 소희에게 할머니가 불현 듯 말씀 하셨어요.

“소희야, 학교에서 친구들 새로 사귀었니? 지금 몇 학년이고?”

“네, 3학년 아이들과 새로 많이 사귀었어요.”

소희는 손가락 세 개를 세워 흔들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몇 살이세요?”

“허허, 할미는 팔십이 다 되어간다.”

“아, 그럼 엄청 많은 거죠? 헐~!”

소희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서울로 이사 온 한 달 후부터 할머니는 외출이 잦아지셨어요.

배낭 속에 물병 한 개를 넣으시더니 매일 아파트 밖으로 나셨어요. 저녁엔 피곤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지만 표정은 매우 밝아지셨어요.

“어머니, 점심은 어디서 드세요?”

“그냥 김밥 사먹는다. 걱정 말아라.”

할머니는 귀찮은 듯 건성으로 말씀을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소희가 재빨리 할머니 뒤를 따라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매일 어디 가세요?”

소희는 궁금한 얼굴로 할머니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응, 천안 텃밭에 간다. 흠흠.”

“할머니는 거짓말쟁이, 천안에 가려면 두 시간도 더 걸린다고 엄마가 그러던데. 헐.”

소희가 입을 삐죽거렸어요.

더운 여름이 왔어요. 소희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현관문을 급히 밀치면서 들어섰을 때, 엄마의 거친 목소리가 울렸어요.

“어머니, 제가 속상해 죽겠어요.”

엄마는 할머니의 흠투성이 옷들과 양말을 두 손으로 털면서 큰소리로 말했어요.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계신 할머니가 불쌍해 보였어요. 소희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빨아 드리면 되잖아.”

소희는 할머니 얼굴을 연신 쓰다듬었어요.

“뭐라고? 할머니는 어찌다 그러시는 게 아니란다. 매일 이렇게 흠투성이가 돼서 들어오시니 엄마가 화가 안 나겠니?”

엄마는 볼멘소리를 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방안에서 꿈쩍도 안했어요. 말씀도 없으셨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때문에 엄마도 걱정이 깊어졌어요.

숨 막힐 듯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청명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면서 하나 둘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던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오늘은 우리 가족 여행입니다. 준비들 하세요.”

아빠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엄마가 사준 노란색 브라우스와 까만 바지를, 소희는 빨간색 원피스를, 엄마는 커피색 자켓을 입고 즐거운 나들이를 시작했어요.

엄마는 무거운 배낭을 트렁크에 실었고, 소희는 뒷 자석에 할머니 손을 잡고 나란히 앉았어요.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소희는 신바람이 나서 고개를 흔들며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불렀어요. 할머니도 손뼉을 치면서 합죽이 입을 싹룩거리며 콧노래로 흥얼거렸어요.

한참을 달리던 차가 천안으로 방향을 꺾더니 예전에 살던 동네로 들어서는 것이었어요. 아파트 뒷산을 지나서 비탈진 밭이 보일 때 아빠가 차의 창문을 내리며 멈추었어요.

“저기 보이는 파란색 배추, 무는 할머니가 심은 거란다.”

아빠가 가리키는 텃밭에는 풍성한 채소들의 이파리들이 가을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아빠, 무슨 말 하는 거야?”

소희는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눈망울을 두리번거렸어요. 엄마는 물끄러미 발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머니 입가에는 흐릿한, 아주 행복한 웃음이 한가득 번졌어요.

소희네 가족이 여행을 온 곳은 고향 천안이었어요. 예전 소희네가 살던 집 마당이었어요.

소희는 깜짝 놀랐어요.

“아빠, 여행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여행이야? 흥.”

소희는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할머니랑 아빠랑 엄마랑 우리 가족이 서울로 이사 와서 처음 가는 여행이 예전에 살던 고향 동네라니.., 소희는 여간 실망이 아니었어요. 골이 한껏 난 소희와는 달리 차에서 내린 할머니는 가벼운 몸으로 마당 앞 텃밭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소희야, 미안 미안. 우리 공주님이 화가 잔뜩 났구나. 허허.”

아빠는 소희를 꼬옥 안아 주면서 등을 토닥이셨어요. 소희는 토끼같은 눈을 껌뻑이면서 집을 바라보았어요. 집은 예쁘게 색칠을 해서 새집이 되어 있고, 할머니가 가꾸던 텃밭은 배추와 무, 당근, 파, 콩 등이 즐지어 배열한 채 골고루 심어져 있었어요.

“아빠, 엄마, 누가 이렇게 심었어요? 와 대박이에요.”

소희는 혀를 날름거리며 신기한 듯이 쳐다보았어요.

“하하하, 할머니가 고향 천안을 그리워하시면서 텃밭을 못 잊어 하시기에 집도 단장하고 텃밭을 직접 가꾸기로 했단다. 그래서 아빠는 일요일마다 여기에 내려왔고, 할머니는 거의 날마다 여기를 오셨던 거란다.”

소희는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동네 사람들이 우루루 몰려왔어요.

“소희 할머니, 오늘은 가족 모두와 오셨군요. 환영입니다.”

“다시 내려와 사세요. 이제 서울 가지 마세요.”

환호 소리가 동네에 가득 찼어요. 덩실덩실 춤추는 동네 사람들과 할머니의 흥타령축제는 한참을 그렇게 이어갔어요.

〈천안문학 60집, 2015〉

김월순 | 아동문예문학상으로 등단
충남아동문학회, 백수문학회 동인
천안문인협회 부지부장 역임
현재, 천안문인협회 이사
공저 작품집 「시와 울림」 외



제6장



평 론

윤성희

천안의 세 풍경, 길과 장터

| 윤 성 희

오만 사연이 모이고 흩어지는 천안삼거리

천안을 일컬어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한다. 이 말은 천안이 길의 도시라는 뜻이기도 하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천안은 길 위, 그것도 삼거리 길 위에 있다. 천안을 거쳐 영남과 호남으로 떠나고, 다시 모여서 서울로 향한다. 그래서 천안 삼거리는 떠남과 돌아옴, 만남과 헤어짐의 애뜻한 반복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공주행 국도변에 위치해 있던 원삼거리原三巨里가 소롯길을 버리고 신작로가 되어 500m 동쪽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러일전쟁 당시라고 한다. 군수 물자를 수송하려고 일제가 만든 새 길인 것이다. 그 새 길을 끼고 지금의 삼거리 공원이 터를 잡았다. 오고 가는 사람들을 따라 곳곳에 흐르던 사연도 물이 고이듯 함께 멈춰 서 있는 곳이다.

필자는 하얀 눈을 이불처럼 덮고 있는 공원을 조심조심 밟으며 삼

거리 공원만은 역시 겨울이 제격이라 생각한다. 지상을 감추고 있는 설경이 너무 거룩해서였을까. 소담한 눈위엔 성긴 발자국만 몇 개 박혀 있을 뿐이다. 발자국을 좇다보니 건너 쪽에 연인인 듯 젊은 남녀가 눈밭을 자박거리며 원시의 설경을 카메라로 찍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카메라에 담고 있는 것은 어찌면 눈처럼 순결하게 결빙(結氷)된 채 남아 있는 박현수와 능소의 사랑이야기인지도 모른다.

옛날 한 홀아버가 삼거리 주막에 맡기고 갔던 딸 능소가 자라서 절세미인이 되어 있었다. 마침 전라도 고부에서 과거 시험을 치르러 상경하던 박현수가 이 주막에 머물다가 능수를 만난다. 재자(才子)와佳人(佳人)이 만났으니 두 사람은 의기상합하지 않을 수 없었을 터. 그러나 과거 급제라는 청운의 꿈을 위해 연인은 훗날을 기약해야만 했다. 단장의 이별 속에 상경한 박현수는 학업에 정진한 끝에 마침내 장원으로 급제하여 삼남어사의 직품(職品)을 배명받는다.

능소가 꿈에도 그리던 박현수를 다시 만나 백년가약을 맺을 때 인고의 세월 속에 묻어두었던 눈물이 얼마였을까. 혹시 공원 서편에 길게 누워있는 연못의 물은 두 사람이 쏟아낸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능수가 박현수의 가슴에 고개를 묻고 어깨를 출렁거리며 한없이 흐르길 때, 그 아버가 심어두었다는 연못가의 버드나무 실가지도 그렇게 함께 흐르끼고 있었을 것이다. 후세 사람들이 연못 위에 올려 세운 현소각이라는 정자는 바로 이 애뜻한 사연을 생각하여 지은 이름임이 분명하다.

현소각 건너 남쪽 연못으로는 고색이 짙게 느껴지는 영남루(永南樓)가

때 있다. 임금이 온양온천에 행궁할 때 사용하던 건물의 문루(문간채)였다고 전해진다. 원래 중앙초등학교 정문에 자리잡고 있던 것을 1959년에 지금의 장소로 옮겨 복원한 것이다. 영남루 팔작지붕 밑에 앉아 다리품을 잠시 다독거리다 보면 저도 모르게 흥타령 한 가락이 새어나온다. ‘천안 삼거리 흥, 능수야 버들아 흥’ 하는 흥타령을 뇌다가 ‘천안 삼거리 성화가 났구나’, ‘제멋에 겨워서 축 늘어졌구나 흥’에 이르면 거기서 성적 비유를 발견해 낸 해학적 발상이 탄은 그럴 듯하다고 혼자 미소도 지어본다.

삼거리 공원 정문을 들어설 때 보아두었던 흥타령비를 다시 눈여겨본다. 세련된 조형미가 느껴지는 노래비이다. 그리고 보니 이 곳에 또 하나의 노래비가 있던 것이 생각나 그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최희준이 불러 심금을 울렸던 대중가요 ‘하숙생’을 기념하는 노래비이다. 이 고장 입장 출신 작사카이자 극작가인 김석야(金石野)가 삼거리에서 발상을 얻은 노래라 하여 그것을 여기 기념해 두고 있는 것이다.

조선 영조 때의 유명한 실학자 홍대용의 시비며 그 밖의 조형물들을 둘러보다 시계를 본다. 모처럼의 여유를 알았는지 아직 고풍스런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 주막 두어집이 있어 지친 발품을 붙잡는다. 우수 경칩 지나 연초록 실가지로 단장하면 다시 오라는 버들가지 인사를 받으며 공원을 나서는데 정수리가 상쾌해진다. 머리가 허연 태조뫼이 아는 체 바람 몇 줄기를 보내준 까닭이다.

병천 속의 또 다른 병천, 아우내 오일장

얼마 전,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 갈산초등학교 가곡분교장 앞을 지나다가 일행 중 한 사람이 생각난다며 들려 준 이야기다. 충북에도 가곡이 있는데, 그곳 작은 중학교의 음악 시험에 ‘가곡의 왕’이 누구냐는 문제가 있더라. 학생들이 낸 답안지에 ‘가곡의 왕은 가곡 파출소장’이라는 명답이 있었다며 그럴듯하다고 우리는 한참을 박장대소하였다. 그러나 제복을 입고 권총을 찬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던 시절의 역사적 무의식이 학생의 어린 마음에까지 스며 있음을 깨닫고 문득 홧 입맛이 씹쓸하였다.

그렇다면 오늘 찾아가는 병천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무의식은 무엇일까. 총칼로 무장한 일본 헌병의 부릅뜬 눈과, 태극기 하나 달랑 든 채 맨손으로 항거하던 유관순의 모습이 병천의 원형적 상징은 아닐까. 그 만세 운동의 발원지 아우내 장터를 찾는 우리의 의식에 자꾸만 개입해 들어오는 역사적 무의식을 오늘만은 외면해 보자며 애써 액셀레이터를 지긋이 밟는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서행하던 차가 천안 삼거리로 지나 독립기념관 앞을 빠져나오자 비로소 탄력을 받는다.

천안에서 국도 21호를 타고 18km를 달려온 병천. 아우를 병_水자, 내천_川자를 쓰는 이곳을 ‘아우내’라 부르기도 한다. 북면 대평리에서 발원하여 물줄기를 이루며 충북 청원의 미호로 흘러가는 동안 멀고 가까운 봉우리에서 흐르던 물들이 여기서 합쳐진다고 해서 유래된 지명이다. ‘아오지 탄광’으로 유명한 ‘아오지’도 두만강의 지류들이

아올리서 붙은 지명이고, 정선 ‘아우라지’를 비롯해 인근 홍천의 ‘아오라지’, 철원의 ‘아우라지’ 등이 모두 병천의 땅이름과 비슷한 유래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 생긴 순대 타운 어귀에 차를 세운다.

매 1일과 6일에 서는 병천장은 순대 타운을 기점으로 열십자+를 만들며 형성되어 있다. 조선 영조 때 풍수상의 목적으로 암행어사 박문수가 조상의 묘 앞에서 시장을 연 것이 그 기원이었다고 전해지는 병천장은 한때 전국에서 손꼽히는 소시장이 있기도 했다. 3일과 8일에 열리던 천안 읍장, 1일과 6일의 성환장, 4일과 9일의 입장 면장과 풍세장은 병천장과 더불어 이 지역의 대표적 상권이었다.

그러던 것이 교통의 발달로 수도권과의 거리가 단축되고, 인근에 여러 개의 대형 판매점이 생기면서 읍면 단위의 정기 시장은 쇠퇴를 거듭하고 있다. 성환장, 입장장, 병천장만은 지금까지 열리고 있지만 이 또한 쇠퇴 기로에서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긴 해도 장은 우리를 설레게 한다. 장터에서 어우러지는 소리만은 아무리 시끄러워도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다. 사람 사는 맛이 다 여기 있다고 느끼는 순간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장꾼들의 호객 소리와 뒤섞이며 풍성한 먹거리가 군침을 자극한다. 어떤 미식가에게라도 먹거리는 추억 속의 음식을 당할 것이 따로 없다. 어머니의 음식이 가장 솜씨 있게 느껴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장 가운데의 포장집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순대를 찢고, 돼지껍질을 무치고 오뎅국물을 떠오게 한다. 인삼 막걸리도 한 병

곁들이게 한다. 그리고도 두 사람이 나올 때 계산한 돈은 7천원뿐이어서 거저먹은 듯이 술기운과 함께 기분이 불과해진다. 이게 장터의 맛일 게다. 돌아나오는 길에 송사리가 거품을 내는 함지박이 있어 물으니 한 사발에 3천원이라 한다. 그것 무 넣고 지지면 씹쌀한 맛이 입안에 그윽할 텐데.

재래식 비법 그대로라는 충남집, 청화집 순대들을 거들떠 볼 여유 새로 생긴 순대집도 오늘은 그냥 지나친다. 날씨 좋은 주말에는 대전, 청주, 서울 등지에서 몰려든 순대 애호가들이 하루 1만 명을 넘기도 한다던데 그런 날 다시 한번 찾으리라 마음을 지질러두고 시계를 본다. 순대, 돼지 껍질을 먹으며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느라고 보낸 시간이 두 시간이 넘어 있었다.

두 개의 시대가 섞이는 풍경, 성환 오일장

순전히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내가 먹어 본 순대 중 가장 맛있는 것이 성환 순대였다. 자주 즐기는 음식은 아니지만 성환 순대만큼은 나도 모르게 몰입하곤 했던 경험이 있다. 이 순대를 맛보기 위해서는 성환 장날을 기다려야 한다.(이 날은 병천장과 겹치는 날이기도 하다.) 1일과 6일마다 열리는 오일장, 그것도 가급적이면 장날 전야에 우시장 옆 장터 포장집으로 가야 한다.

옛날 우시장이 번창하던 시절에 밤을 새가며 새벽을 기다리는 장꾼

들을 상대로 국밥을 팔기 시작하다 그대로 순대촌이 된 곳이란 다. 이곳에는 지금 상호도 없는 포장집들이 일련 번호만을 붙인 채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중 한 집에만 유독 손님이 들끓는다는 사실이다.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 것일까 해서 의아한 생각이 들지만 음식점이란 게 워낙 사람이 꼬이는 집일수록 더 모여들게 마련인 것. 사람들은 다수에 의해 검증된 집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음식점에도 양극화의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다. 긴 나무 탁자에 앉아 인심 좋게 폭 퍼서 말아주는 순대국밥을 먹다 보면 어디선지 새끼소와 작별하는 어미소 울음소리가 묻어나는 듯하다.

마침 일요일이 장날인 어느 날 나는 오후 느지막이 성환장을 찾아가다. 흥일약국을 끼고 돌아 장터로 들어서면 옛날 같지는 않아도 어느새 흥겨운 분위기가 잡힐 듯이 다가온다. 손수레판에 고무줄이니 좁약이니 하는 방물들을 잔뜩 진열해 놓은 데서 그동안 잊고 지내던 어린 시절을 본다. 거기 채소전이나 생선전을 기웃거리던 가난한 어머니가 서 계신다.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붙잡고 칭얼거리는 유년의 뽀뽀머리도 있다. 얼음통을 지고 가며 ‘아이스 케익’을 구성지게 외치는 소리에 마음을 온통 빼앗긴 소년의 얼굴이 땀에 절어 번들거린다. 빨간 홍옥 사과 한 입 배어 물었으면 하고 입에 침이 고이는 소년은 결핍과 불만의 얼굴로 가난한 어머니를 원망한다. 아아, 장날의 햇살에 녹아드는 유년의 모습에 나는 화들짝 놀라 현실로 돌아온다.

햇살이 뜨겁다. 네 시가 넘었는데도 파장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밀

짚모자를 하나 사서 쓴다. ‘메이드 인 차이나’ 인 것이 아쉽지만 이 장에 나와 있는 농산품이라 해서 모두 국산일 수 없는 현실이니 그것으로 모자 밑의 머리를 위안해 본다. 장터 곳곳에서 갖가지 농작물의 모종들이 성시를 이룬다. 호박 묘며, 고추 묘며, 상추 묘 등속까지 없는 것이 없다. 모종들은 적어도 외국 농산물은 아닐 것 아닌가. 하키야 그것마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니 무엇하나 믿을 수 없는 상인 것, 그거 하나만은 틀림없다.

장터의 풍속이 많이 바뀐 듯싶다.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외국인들의 모습도 많이 눈에 띈다. 그들은 옷이나 생필품 등 우리 공산품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국제화 시대의 성환장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분위기였다. 각양각색의 상품들과 어우러진 각양각색의 인종들이 성환장을 새로운 민속의 세계로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그렇더라도 성환장은 그리운 장터였다. 아직은 우리의 순결한 정서와 인정이 몽클몽클하게 다가오는 생활의 현장이었다. 그것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할인 마트들의 날카로운 공격성을 견디게 하는 내공이었을 것이다.

윤성희 | ‘문학과 비평’ 평론부문 신인상
천안문협 회장, 충남문협 회장 역임
천안예총, 충남예총 회장 역임
평론집 「문학의 발견」 외



제7장



희곡 - 시극 대본

이명열

운초 詩劇

春風詩客(봄바람 속에서 시를 마시다)

| 이 명 열

1막

(애절한 음악이 흐른다)

나레이션 이별하니 그립습니다.

길은 멀고 편지는 더딥니다.

생각은 거기 있고 몸은 여기 있습니다.

비단수건은 눈물에 젖었건만 가까이 모실 날은 기약이 아득합니다.

운초 김부용, 송도의 황진이, 부안의 이매창과 더불어 우리나라 三大 詩妓로 불리면서 당대 여성으로는 보기 드물게 한시 350여 수를 운초집에 남긴 여류 시인입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퇴기의 수양딸이 되어 기적에 오른 그는 타고난 미모와 재능으로 성천고를 名妓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무대 왼쪽에서 운초와 숙부가 등장한다)

부 용 숙부님! 기생이라니요~ (10세 전후의 목소리)

숙 부 지금 갈 곳이 있느냐? 네가 형님께 글을 배우며 시재를 떨쳤으니 성천 땅의 마땅한 퇴기를 알아봐 두었다, 그리 알거라.

부 용 (흐느끼듯) 아버님~ 어머니~

(부용이 무대 오른쪽에 서서 사또 유관준을 바라보며 시를 낭송한다)

[낭송 : 부용] 勝妾容

芙蓉花發滿池紅 연꽃이 곱게 피어 못 가득히 붉고나
人道芙蓉勝妾容 사람들이 연꽃 보고 나보다 곱다하네
今日遇從堤上過 오늘 우연이 독 위를 거니는데
如何人不看芙蓉 어찌하여 사람들은 꽃을 안보고 나만 보는가.

[낭송 : 성천부사 유관준] 勝妾容宴

成都美妓玉羅裳 성천의 예쁜 기생 아리따운 비단치마
幅幅春風步步香 폭폭이 춘풍이요 거름마다 향기로다
黃鶴金獅迎相舞 황학무 금사무 어울려 돌아가니
降仙樓上降仙娘 강선루 위에는 선녀가 하강한 듯

(나의 혼은 그대를 쫓아가고 빈 몸만 문에 기대어 섰오)

[낭송 : 부용]

나귀 걸음 느리기에 내 몸 무거운가 했더니 남의 혼 하나를 신고 있었오.

(부용이 사포의 손을 이끌며 함께 퇴장한다)

2막

나레이션 어느 날 성천부사(사포)가 직속상관인 평양감사 김이양 대감에게 인사차 함께 가자는 기별이 옵니다. 당대의 이름 높은 시인이요, 세상이 존경하는 지체 높은 대감이니 부용으로서 는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이었지요.

(부용 천천히 걸어 나와 무대 왼쪽에 객석을 외면한 채 서있고 오른 쪽에서 흥안백발의 노대감이 신선같이 인자하게 걸어 나오며)

[낭송 : 김이양 대감]

“운초는 봄을 따라 갔구나. 봄을 따라간 너를 책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늙은 탓이지.”

[낭송 : 부용]

뜻이 같고 마음이 통한다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었습니까?

세상에는 삼십 객 노인이 있는가 하면, 팔십 객 청춘도 있는 법이지요.

(부용과 사또 마주보고 앉는다)

김이양 대감 나는 팔구랑보다도 다섯 살이나 더 많으니라

부 용 소첩도 이팔가인보다 세 살이 많사옵니다

붉은 꽃이나 흰 꽃이나 봄을 맞아 새롭게 피는 꽃은 다 같은
꽃이옵니다

김이양 대감 너는 이미 봄물이 못에 가득하구나

부 용 대감께서도 여름구름의 봉우리가 기묘하옵니다.

[낭송 : 김이양 대감] 老郎幼婦

二八佳人八九郎 열여섯 아리따운 신부에 일흔둘 신랑

蕭蕭白髮對紅粧 호호백발과 붉은 단장 마주했네.

忽然一夜春風起 홀연히 한 밤에 봄바람 일어나니

吹送梨花壓海棠 하얀 배꽃 날아와 붉은 해당화를 누르네

[낭송 : 부용]

客子青天流似矢 나그네 인생, 푸르른 하늘에 세월은 쏠살같이
흐르는데

主人白髮亂如絲 주인의 백발은 어지럽기 실과 같네

3막

나레이션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나이와 신분을 떠나 함께 시를 읊던
꿈같은 시간은 지나고, ‘늙은 사람 남우세스럽게 첩언어 올
라갈 수 없으니 좀 더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 보내 데려간다’
말을 남긴 채 김 대감은 한양으로 오르고, 오랜 시간이 지나
도록 소식조차 전하지 않는 대감을 기리며 애절한 시를 쓴
아내는 부용.

[낭송 : 부용] 부용상사곡 中

향각서 종소리 들려오는 이 밤 연광정에서 달이 떠오르는 이 때
쓸쓸한 베개에 의지했다가 잔몽에 놀라 깨어
돌아오는 구름을 바라보니 멀리 떨어져 있음이 슬픔니다.
만날 날 수심으로 날마다 손꼽아 기다리며
새벽이면 정다운 글월 펴 들고 턱을 괴고 우웁니다.

[낭송 : 김이양 대감] 빗소리를 들으며

한번 서울로 떠나 이별하니 생각은 하염없고
봄바람은 화창하게 불어오니

실버들 휘날어진 창에 기대어
님 오시나 속은 게 그 몇 번이고

북관의 가을이 이 내 옷에까지 왔으니
도호부 앞에 낙조는 더욱 붉구나
밤마다 님 그리운 꿈은
응당 서울의 구름 속에 맴돌고 있구나

(이때 사또 어슬렁거리며 들어와 부용을 한 바퀴 돌아 얼굴을 살피
며 느리적 나간다)

(음악 배경으로 흐르고)

[낭송 : 부용] 五言絶句

春風忽駘蕩 봄바람은 화창하게 불어오는데
山日又黃昏 서산에는 또 하루해가 저무는구나.
亦如終不至 오늘도 임 소식은 끝내 없건만
猶自惜關門 그래도 아쉬워 문을 닫지 못하네.

(잠시 멈칫하다 방향을 바꾸어)

垂楊深處倚窓開 실버들 휘날어진 창에 기대서니
小院無人長綠苔 임 없는 집에는 푸른 이끼만 질구나.

簾外時聞風自起 주렴밖엔 봄바람이 절로 불어서
幾回錯誤故人來 임 오시나 속은 것이 몇 번이런고.

4막

나레이션 드디어 서울 남산 기슭 “녹천정”이라는 작은 초당이 지어져 부용을 맞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자연도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없다 합니다. 절세가인, 자신이 있어야 오절을 이루는 것을, 스스로를 자연의 경이로운 세계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애상적이거나 한스러움이 담긴 노래보다는 외려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는 활달한 시를 씁니다. 기존의 가치를 뛰어 넘는 시적 형상은 편협하기만 한 조선조 봉건사회에 대해 그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부 용 사절정, 그 이름 문득 그런가 아닌가. 사절이란 옳지 않아 오절이 옳다네. 산과 바람, 물, 달, 서로 어울리는 곳에 또한 절세가인 있지 않는가.

김이양대감 조화옹의 깊은 뜻 누가 알리오. 짐짓 필력 굳센 이 만나느

라 늦게까지 기다렸구요. 거문고 노래 시와 술 그림이 있으
니, 이승이 또한 신선세상이라. 강산도 기다리면 있을 터
이니, 꽃도 새도 서로 시새우지 말아라.

나레이션 봉조하가 된 김 대감, 부용과 더불어 시를 읊고 거문고 소리
들으며 천수를 누리다 91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는데... 남은
잃은 부용, 오로지 고인의 명복만을 빌며 애절한 심정을 시
로 달래는데...

[낭송 : 부용] 哭淵泉老翁 中

風流氣概湖山主 풍류와 기개는 호산의 주인이요
經術文章宰相材 경술과 문장은 재상의 재목이었네
十五年來今日淚 15년 정든 임 오늘의 눈물
峨洋一斷復誰裁 끊어진 우리 인연 누가 다시 이어 줄고

나레이션 내 죽으면 대감이 묻힌 천안 광덕산 기슭에 묻어 달라... 유
언을 남기고 운초도 생을 마감합니다. 150년이 지난 오늘,
봉조하대감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그리 많지 않
지만, 운초를 기리는 사람들의 발길은 줄을 잇고 있으니, 사
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한다
할 것입니다.

오늘, 운초 김부용의 詩를 함께 즐기며 이 봄 속에서 詩
를 마시려 합니다.

[낭송 : 나레이티] 부용상사곡

이별하니 그립습니다. 길은 멀고 편지는 더딥니다. 생각은 거기 있고
몸은 여기 있습니다.

비단수건은 눈물에 젖었건만 가까이 모실 날은 기약이 아득합니다.
향각에서 종소리 들려오는 이 밤, 연광정에 달이 솟아오르는 이 때,
쓸쓸한 베개에 의지했다가 잔몽에 놀라 깨어 돌아오는 구름을 바라보
니 멀리 떨어져 있음이 슬프웁니다.

[낭송 : 김이영] 홀로 공방空房에 누우니

눈물이 비 오듯 하나 삼생三生의 가약이야 어찌 변할 수 있으며, 혼
자 잠자리에 누웠으나

검은머리 파뿌리 된들 백년정심百年定心이야 어찌 바꿀 수 있으리까.
낮잠을 깨어 사창紗窓을 열고 화류소년花柳少年을 맞아 보아도 모두
가 정 없는 나그네일 뿐,

옥침玉枕 밀치고 향의香衣 이끌며 춤도 추어 보았으나 모두가 가증스
러운 사내들뿐이웁니다.

[낭송 : 사또] 천리에 사람 기다리기 어렵고

사람 기다리기 이토록 어려우니 군자의 박정함이 어찌 이다지도 심
하지나이까. 삼시三時에 문을 나가 멀리 바라보니 문을 나가 바라보는
애처로움, 천첩의 고심이 과연 어떠하겠나이까.

[낭송 : 김이양, 사또] 오직 바라옵건대(合)

관인(寬仁)하신 대장부께서 구연(舊緣)의 촛불 아래 혼연히 대해주셔서
연약한 아녀자의 외로운 혼이 달 아래에서 울며 따르지 않게 하옵
소서.

[낭송 : 부용] 哭淵泉老翁 中

都是非緣是夙緣 인연 아닌 인연을 맺어온 인연
既緣何不趁衰前 피치 못할 인연이면 젊어서나 만나지
夢猶說夢眞安在 꿈속에서 꿈을 꾸니 진실은 어디 있나
生亦無生死固然 살아도 산 게 아니요 진실로 죽은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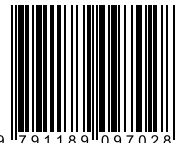
(커튼콜 후 다 같이 나와 무대인사)

Ending

이명열 | 천안문학 신인상
충남시인협회, 천안낭송아카데미 동인
천안문인협회 사무국장
공저 시집 「시와 울림」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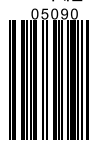
비매품

05090



9 791189 097028

ISBN 979-11-89097-02-8



(PDF)